

제9편 안성지역의 성씨와 인물

1장 성씨(姓氏)

1. 성씨(姓氏)의 유래(由來)

성(姓)은 혈족관계(血族關係)를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성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류사회가 시작되는 원시시대로부터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원시사회는 혈연(血緣)을 기초로 집단을 이루며 모여살았기 때문이다.

이 당시 사회는 모계(母系)만 확실히 알 수 있고, 부계(父系)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모계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모계사회가 나타났다가 뒤에 부계사회(父系社會)로 전환되었다고 하며, 모계건 부계사회건 원시사회는 조상(祖上)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며 모여 살았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먼저 성(姓)을 사용한 나라는 한자를 발명¹⁾하고 사

1) 고대 조선인이라는 설도 있음.

용한 중국이다. 그리고 본래부터 성(姓)과 씨(氏)가 같은 것은 아니었다. 성은 혈통의 연원을 의미하며, 씨는 성의 지역적 분파 즉, 우리의 본관(本貫)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은 출생의 계통을 나타낸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인지소생야(人之所生也)”라 하였듯이 사람의 낳은 바를 의미한다. 예컨대 성(姓)자가 여(女)와 생(生)의 합성어인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고대 원시사회에는 어머니의 혈통만 알 수 있는 모계사회여서 처음에 성은 여계(女系)의 혈통을 의미하였다.²⁾ 그러나 뒤에 모계에서 부계사회로 이행되면서 성이라 하면 남계혈통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씨(氏)는 동일 혈통[성(姓)]을 가진 자가 각지에 분산되어 살 때 그 일파를 의미한다. 『좌전(左傳)』에 “작지사이명지씨(胙之士而命之氏)”³⁾라 한 말이 그것이다.

우리와 중국에 있어서는 그러하였으나 일본에서의 씨는 이와 달랐다. 우리의 씨는 이름의 상반부에 붙이는 개인 칭호였다면 일본의 씨는 가(家)의 칭호였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에 저들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 칭호인 성씨를 창씨개명(創氏改名)하여 자신들과 동일하게 가의 칭호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씨(姓氏)는 중국의 제왕이나 귀족들이 자기의 가문을 드러내기 위해 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명, 산, 강 등의 이름으로 성(姓)을 삼았다.

예컨대 신농씨(神農氏)의 어머니가 강수(姜水)에 살았으므로 강씨(姜氏)라 하고, 황제씨(黃帝氏)의 어머니가 희수(姬水)에 있었으므로

2) 중국의 8대성으로 불리어지는 강(姜)·희(姬)·영(嬴)·원(嫫)·사(姒)·고(姑)·운(妘)·위(緯) 등이 모두 여(女)자의 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성씨가 모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해준다.

3) 은공(隱公) 8년조(年條) 참조

로 희씨(姬氏)를 택한 것이나, 순(舜)의 어머니가 요허(姚虛)에 있었으므로 요씨(姚氏)로 한 것과 제요(帝堯)의 어머니가 기(祁)에 살았으므로 기씨(祁氏)를 성으로 택한 것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한편 사물로서 성을 취한 예로는 복희씨(伏羲氏)의 풍(風)씨를 들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상서(祥瑞)로서 성를 취한 예로 우(禹)의 할아버지가 의차(薏苡)에서 낳았다 하여 성을 사(姒)로 한 것이나, 성탕(成湯)의 어머니가 현조(玄鳥)의 자(子)를 꿈꾸고 낳았다 하여 성을 자(子)로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토테미즘’으로 인한 특정 동물을 씨족(氏族)의 선조(先祖)로 받드는 종교적인 측면이 강했으나, 문(文)자가 보급되면서 점차 ‘토테미즘’이 사라지고 특정 성(姓)씨를 씨족의 상징으로 점차 확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과 씨의 구별은 이미 3대(요순우(堯舜禹)) 이후로 희미해지고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씨와 족(族: 동성동씨(同姓同氏))의 취합(聚合), 즉 일가(一家))이 혼동되고 한대(漢代)에는 성과 씨가 혼동되었다.

중국에서도 중세(中世)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씨는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계층만 사용함으로써 정치사회적 신분계층의 상징이었다. 한(漢)의 호족(豪族)과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귀족(貴族)들이 그러하였다. 이들은 국호(國號)를 성(姓)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후대로 내려오면 천자의 사성(賜姓)을 받거나 관작(官爵) 등을 성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하층계급과 자신을 구별짓는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마치 귀족을 포함한 지배세력들이 왕경인(王京人)이라 칭하면서 수도 주변에 모여 살았던 것처럼, 성씨를

갖는 것도 특권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당(唐)에 이르면 국가에서 씨족지(氏族志)를 만들어 성씨 간의 위계와 관리 선발의 기준으로 삼았고, 송(宋)에 이르면 사대부(士大夫)들의 종보(宗譜) 편찬이 일반화 되었다.

또한 성씨는 씨족끼리의 일체감속에 자기를 귀속(歸屬)시켜 안정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 종족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적 지위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예컨대 특정 성씨의 사회적 성공은 그 성씨 모두의 사회적 신분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각성과 사명의식을 고취(鼓吹)시켜 준다. 이렇듯 성씨는 신성 불가침한 자아성취의 도구로 여겨져 왔으며, 성씨를 중심으로 자신의 심리적 세계가 존재하게 되고, 개인적인 모든 활동이 성씨 속에 결집되고 표출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업적이나 명예가 종래에는 성씨에 부착되고 이를 통해 계승되어왔다는 사실을 볼 때, 성씨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씨는 점차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평등한 조건에서 누구나 갖게 됨으로써 인격존중의 사회적 기반이 다져지게 되었다.

2. 한국 성씨(姓氏)의 유래(由來)

오늘날 한국인들은 모두 성씨(姓氏)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래부터 모두 성씨(姓氏)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땅에 삼국(三國)이 성립되기 이전 고대(古代)사회에 개인을 나

타내는 성씨(姓氏)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성(姓)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문명이 발달한 씨족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다른 씨족과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명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문자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성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장수왕(413~491) 때부터 고(高)씨라는 성을 썼고, 백제에서는 근초고왕(346~374) 때부터 여(餘)씨라 하였다가 무왕 때에 이르러 부여(夫餘)씨라 하였다.

중국문물의 수입이 비교적 늦었던 신라에서는 진흥왕(540~550) 때부터 김(金)씨라는 성을 사용하였다. 김(金)·박(朴)·석(昔) 등의 왕성이 있었고, 이(李)·최(崔)·정(鄭)·손(孫)·배(裨)·설(薛)의 6성이 사성(賜姓)되었다. 이들 6부 성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설씨 외에 모두 나말(羅末)인이기 때문에 신라말 6두품(六頭品)들이 당(唐)의 대족이었던 농서(隴西)의 이(李)씨, 청하(清河)·박릉(博陵)의 최(崔)씨, 형양(滎陽)의 정(鄭), 낙안(樂安)의 손(孫)씨, 하동(河東)의 배(裨)씨와 설(薛) 등의 중국 성을 모방하여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치원(崔致遠)이 그의 선조는 한족(漢族)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7세기 이전 건립된 4곳의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와 동왕 12년(551)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경주 보문동의 명활산성작성비(明活山城作城碑)⁴⁾, 진지왕 3년(578)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광역시

4) 이 비는 1988년 경주 보문동 명활산성 성벽터에서 성벽 일부가 물에 노출되어 발견되었다. 비는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글자도 거의 판독이 가능하다. 글자는 모두 9행으로 총 글자수는 148자이다. 551년(신미) 11월 중에 산성을 쌓고, 거기에 관여한 지방관, 역부를 동원한 지방 촌주[郡中上人], 공사 실무자와 공사 내용(공사구간의 길이), 비의 위치, 공사기간, 비문을 작성한 사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비는 신라 금석문 가운데 군(郡)이란 표기가 나오는 최초의 것으로서 군제(郡制)의 정비와 관련하여 귀중한

시의 무술오작비(戊戌塢作碑), 그리고 진평왕 때(579~583)에 건립된 경주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⁵⁾ 등의 비문을 살펴보면, 인명(人名)에 성을 사용한 사람은 없고, 소속촌락명과 이름만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조상들은 성보다는 본 [村名] 을 먼저 썼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금석문을 다시 살펴보면, 중국식 성씨는 대체로 고구려의 장수왕 이후, 백제의 근초고왕 이후, 신라의 진흥왕 이후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전의 한성(韓姓, 본래 우리의 성)은 특수하다. 한(韓)씨는 선우(蘇于)씨와 함께 기자(箕子)의 후예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한씨들이 자기의 가문을 높이기 위하여 후대에 기자를 조상으로 받든 것이라 생각된다.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이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한성(漢姓)을 따다 쓴 다른 가문과 마찬가지로 후대에 기자를 한씨와 선우(蘇于)씨가 조상으로 받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각종 족보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씨가 중국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두 그대로 믿는다면 한국인은 중국인의 후예로 둔갑되는 큰 우를 범하게 된다.

여하튼 중국 사서에조차 기자의 후예인 준왕(準王)이 남쪽의 한(韓)으로 달아났다고 쓴 것을 보아 한성(韓姓)이 오래 전부터 쓰여 온 것 같다. 그런데 이 한(韓)은 하나의 가문의 성씨일 뿐 아니라 국호로 쓰였던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 겨레의 명칭으로도 통용되어 오

자료로 주목 받는다. 이밖에도 통일기 이전 신라의 신분제와 관등제, 역역동원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 5) 이 비는 6세기말 진평왕대에 경주 남산에 새로 성(城)을 쌓으면서 세운 것으로 현재까지 10기가 발견되었다. 원형으로 남아있는 제1비를 보면, 성을 쌓은 지 3년 안에 무너지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서약문이 앞에 나오고, 이어서 공사 책임자, 기술자의 이름, 마지막으로 공사 구간이 적혀 있다. 이는 신라의 관등체계를 비롯해 성씨와 지방제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기도 한 것이다.

한자가 유입되고 중국문화가 들어오면서 중국식 성씨가 유행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성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7세기 후반부터 진골(眞骨)과 6두품(六頭品) 같은 신라사회를 주도하는 계급이 한자로 된 성을 먼저 사용하였다. 이때 성씨를 갖는다는 것은 하층계급과 자신을 구별짓는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마치 귀족을 포함한 지배세력들이 왕경인(王京人)이라 칭하면서 수도 경주에 모여 살았던 것처럼, 성씨를 갖는 것도 특권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식 성(姓)이 크게 유행하게 된 시기는 나말여초의 호족들 사이에서였다. 이들 호족들은 그들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왕족이나 육두품들만이 가지고 있던 성씨를 자기들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후삼국시대 지방의 호족이나 촌주(村主)들이 스스로 성을 만들어 쓰거나, 남의 성을 빌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을 갖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라말 지방사회의 성장과 중앙귀족들의 지방 이주가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기도 하였으나, 성씨의 취득이 확대된 것은 특권계급의 특권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지방호족이나 촌주들은 성을 얻음으로써 자신들이 지배하는 일반 백성보다 우월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을 지배하는 원리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王建)이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뒤 통치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군·현(郡縣)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토성(土姓)을 나누어 정하였다. 그는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지방호족들이나 공신들에게

통일과정에 세운 공으로 성을 내렸다.

처음에는 한성(漢姓)을 붙이되 이름만은 한국식 이름을 가졌다가 점차 이름마저 중국식으로 바뀌어갔다. 그 결과, 많은 성씨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씨족지(氏族志)를 만들어 여기에 실리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시험을 볼 수 없게 하고 관직을 주지 않았으나, 이러한 제도는 후대로 내려가면서 점차 무너지게 되었다.

특히 왕건으로부터 직접 성을 받은 지방호족들은 그렇지 않은 호족이나 지방민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국의 각 군현에 출신지와 거주지 토성을 각각 나누어 정하면서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성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고려 초기라 하겠다. 이러한 성씨 체계는 고려 충렬왕대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몽고어로 된 성씨를 붙이는 지배층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후 고려말 조선초에 이르게 되면 귀족관료 뿐 아니라 점차 양민에까지 성씨는 확대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모든 백성이 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30~40% 정도가 천민계급으로 성을 갖지 못하였다. 이들 천민계급이 성을 갖게 된 시기는 한말에 이르러서였다. 천민계급이 사회변화로 인해 신분해방이 되자, 성을 갖지 못한 백성들도 성씨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성씨는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큰 변혁을 겪게 되었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이라는 큰 충격이 그것이다. 일제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씨를 붙이도록 강요하였다. 1941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한국인은 누구나 일본식 씨를 작성하여 등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성명은 씨명(氏名)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뿐 아니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여자 이름에 자(子) 자는 그 드러난 예이다.

일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워 창씨(創氏)를 사실상 강요하였고, 한국인들은 창씨를 안 하는 자체가 일제에 저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우리의 성씨를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성씨를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일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성씨의 유래와 특성을 돌이켜보고 이를 오늘날에 계승발전 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우리의 성씨는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왔다. 근자에 성씨가 오히려 파벌(派閥)의 근거가 되고 동류의식이 강화됨으로써 폐쇄적인 족벌주의가 나타나고, 개인을 한 집단에 매어놓고 희생시켜 발전과 개혁의 장애물이 되며, 이혼 가정의 아이들 문제가 대두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성을 자유로이 바꿀 수 있는 법률이 발효되는 등 시속이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어 진정한 가치관과 진정성에 도전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3. 성씨의 성장과정

우리나라 성(姓)은 중국의 한자문화가 유입된 후인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성씨의 수용·정착·분화 과정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성씨가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라도 그들의 성씨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성(姓)과 본관(本貫)은 가문을 나타내고, 이름은 그 가문의 세대를 알려주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씨를 통해 개인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리의 성은 286개를 전후해 중국·일본에 비해 그 수가 극히 적으며, 인구의 50% 이상이 김씨·이씨·박씨·최씨·정씨 같은 몇 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혼인을 하여도 자신의 성씨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적인 귀속의식과 뿌리 깊은 씨족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부계(父系)를 중요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姓)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성씨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이양되면서 모계 즉, 여성의 성을 존중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성씨는 그 분화 과정에서 성만으로 같은 족속(族屬)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관(本貫)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관도 역시 성씨와 마찬가지로 분관(分貫)·분적(分籍)이 늘었다. 그 처음에는 시조의 발상지를 본관(관향(貫鄕))으로 하였으나 점차 군(君)으로 봉토 받은 곳·벼슬 이름·후손의 일부가 새로 이주한 곳을 새로운 본관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중시조(中始祖)이다. 본관제는 고려 초기 지방호족들이 중앙귀족으로 점차 신분이 상승되면서 새로운 관료군(官僚群)에 편입되자, 현 거주지가 아닌 조상의 본거주지를 본관으로 삼으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본관이 하나일 경우, 가문

의 구성원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이전의 본관과 다른 본관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후손들 가운데 사회적·정치적으로 출세한 자가 있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졌다. 출세한 선조가 있는 후손들이 가문을 다른 가문과 구분하기 위해 그 선조를 중시조로 삼고 본관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학(譜學)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국가로서, 인간산맥(人間山脈)의 큰 뿌리가 확실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족보는 성씨 체계와 본관제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성씨와 관련하여 1차사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조선시대 왕실과 관부(官府)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간행되었다.

그 뒤 16세기 중반 이후 명문세족들이 앞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7세기 이후 족보가 홍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족보를 간행하거나 가승(家乘)을 만들어 두었던 가문들은 비교적 충실하고 정확한 족보를 간행한 반면, 이러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은 가문들은 관련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많은 족보가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런 족보들은 자신의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조상의 관직들을 과장하였으며, 심지어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어떤 가문의 족보에서는 자신의 조상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와 시조가 되었다는 것도 있다.

성씨와 본관을 논할 때,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성과 본관을 바꾸려는 사람들 특히, 성과 이름이 없던 하층계급으로부터 성장한 신흥세력들이 대성(大姓)과 거족(巨族)에 자신들의 성과 이름을 투탁(投託)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하였다는 점이다. 족보의 대부분이 19세기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간행되었다는 사실

은 이러한 경향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에서 족보 가운데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를 기재한 족보도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족보를 무비판적으로 이용할 경우 성씨나 본관 또는 선대 인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다음에 서술하겠지만, 집성촌(集姓村, 同族村)의 경우도 고려 초부터 거주했다던지, 선대가 높은 벼슬을 했다던지 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족보의 내용을 완전한 사실로 믿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족보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시의 사료와 비교, 검토해야 비로소 실제 사실을 밝힐 수 있다.

(1) 삼국시대(三國時代)

1) 고구려(高句麗)

우리나라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의하면, 고구려 건국 시조(始祖) 주몽(朱蒙)은 국호(國號)를 고구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高)씨라고 하였다. 주몽은 충신들에게 성(姓)을 사성(賜姓)하였는데, 재사(再思)에게는 극(克)씨, 무골(武骨)에게는 중실(仲室)씨, 연거에게는 소실(小室)씨를 사성(賜姓)하였다고 전해 내려온다.

그리고 중국(中國) 정사(正史)에 나타나 있는 삼국시대의 국왕과 기타 인명을 살펴보면,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에 고구려 후(高句麗侯) 추(騶)-주몽왕(朱蒙王)이 보이고, 『후한서(後漢書)』 고구려전에 추(騶)와 관(官)-태조왕, 성(成)-차대왕(次大王), 백고(伯固)-신대왕(新大王) 및 대가승(大加升)이 보이며, 『삼국지(三國志)』에는

고구려전·공손도전(公孫度傳)에도 추(騶)·관(官)·성(成)·백고(伯固)와 함께 이이모(伊夷模)-고국천왕(故國川王)·위관(位官)-산상왕(山上王)과 기타 대가(大加)·우거(優居)와 주부(主簿) 연인(然人) 등이 보이고, 『진서(晉書)』의 모용전(慕容傳)에 소-고국원왕(故國原王)·안(安)-광개토왕(廣開土王)이 보이는데, 모두 성(姓)을 쓰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상서(床書)』에 이르러서야 장수왕(長壽王)을 고련(高璉)이라 하여 처음으로 고구려 왕실의 성을 고(高)씨로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외교사신으로 간 고익(高翼)·마루(馬婁)·손수(孫漱)·구(仇)·동등(董騰) 등의 성(姓)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중국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장수왕대(413~491)부터 비로소 성(姓)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장수왕대부터 성을 쓰기 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3국(三國) 중에 가장 먼저 국가를 세웠고, B.C 107년에 한사군(漢四郡)의 하나인 현토군(玄菟郡)이 고구려지방에 설치되어 건국 이전부터 중국인들과 접촉하였으며, 전한(前漢) 말기 왕망(王莽)시대(9~25)부터 중국과 교통하여 전한(前漢)·후한(後漢)·위(魏)·진(晉)의 문화를 수입하고,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前秦)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고, 대학을 설치하여 그 문화가 장수왕 이전에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장수왕 이후의 기록이기는 하나, 『위서(魏書)』 북조(北朝) 고구려전에 주몽의 전설을 자세히 기록하고 성을 고(高)씨라 하였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대무신왕(大武神王) 때의 좌보(左輔) 을두지(乙豆支), 좌보(左輔) 송옥구(松屋句), 태조왕 때의 좌우보(左右輔) 직도루(稷度婁)·고복장(高福章), 신대왕(新大王) 때의 국

상 명림답부(明臨答夫), 산상왕 때의 국상 을파진(乙巴秦), 동천왕 때의 국상 고우루(高優婁)·명림어수(明臨於漱), 봉상왕(烽上王) 때의 북부소형(北部小兄) 고노자(高奴子) 등 장수왕 이전에 성을 쓴 사람들이 보인다. 이처럼 고구려는 장수왕 이전에 이미 성을 쓴 듯 하나, 어느 시대부터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여하튼 우리 민족이 중국식 한자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저들의 문화가 수입된 이후의 일이다. 고구려가 언제부터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그 연대를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대개 장수왕 때부터 중국에 보내는 국서(國書)에 왕족은 고(高)씨의 성(姓)을 썼으며, 기타 해(解)·을(乙)·송(松)·목(穆)·우(于)·주(周)·마(馬)·손(孫)·창(倉)·동(董)·예(芮)·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의 15개 성씨가 기록에 보인다.

2) 백제(百濟)

『삼국사기』·『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백제의 시조 온조(溫祚)는 부여계통에서 나왔다하여 성을 부여(扶餘)씨라고 했자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후한서 『삼국지』 진서에는 왕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며, 『진서(晉書)』, 『송서(宋書)』 등의 기록에는 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4)부터 27대 위덕왕(威德王, 554~597)⁶⁾까지는 여(餘)씨로 표시하다가

6) 근초고왕(近肖古王) 이후 여영(餘暎)-진지왕(典支王)·여비(餘毗)-반유왕(畔有王)·여경(餘慶-개로왕(蓋鹵王)·여용(餘隆)-무령왕(武寧王)·여명(餘明)-성왕(聖王)·여창(餘昌)-위덕왕(威德王) 등의 백제 왕실의 성을 여(餘)씨로 표시하였다(진서(晉書)·상서(床書)·남제서(南齊書)·양서(梁書)·진서(陳書)·위서(魏書)·주서(周書)·남사(南史)·북사(北史)).

29대 무왕(武王, 600~641)부터 부여(扶餘)씨로 기록하고 있다.

백제가 마한(馬韓) 50여 개국 중의 한 나라로서 오랫동안 부족국가 생활을 하다가 4세기 초에 마한(馬韓)의 여러 나라를 통일하고 근초고왕에 이르러 처음으로 동진(東晉)에 사신을 보내어 중국과 교류하였으므로, 대개가 이때부터 성(姓)을 사용하였다는 설이 가장 많다.

그러나 백제 역시 중국식 한자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저들의 문화가 유입된 이후의 일로서, 그 이전에 성이 없었다고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

백제의 성은 부여(夫餘)·사(沙)·연(燕)·협(鳴, 荔)·해(解)·진(眞)·국(國)·목(木)·묘(苗)·백(懶)의 10여개의 성과 왕(王)·장(張)·사마(司馬)·수미(首彌)·고이(古爾)·흑치(黑齒) 등 16개 성씨가 기록에 나타나 있다.

3) 신라(新羅)

신라에서는 박(朴)·석(昔)·김(金) 등 3성의 전설이 전해 오며, 유리왕 9년(서기 32)에 육부(六部) 촌장(村長)에게 각각 이(李), 정(鄭), 손(孫), 최(崔), 배(裊), 설(薛)씨의 성을 사성(賜姓)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북제서』에는 진흥왕(540~550)을 금진흥(金眞興)으로 기록하여 처음으로 김(金)씨라는 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삼국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7세기 이전 건립된 신라 진흥왕의 4곳의 순수비(巡狩碑)와 진지왕 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무술명오작비(戊戌銘塲作碑), 그리고 진평왕대에 건립된 경주 남산신성비(慶州南山

新城碑) 등의 비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 인명(人名)에 성을 사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소속촌명(村名)과 이름만 쓴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성보다는 본 [村名] 을 먼저 썼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에서 사성한 이들 6부 성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모두 나말(羅末)인으로 신라말 6두품(六頭品)들이 중국문화가 유입되면서 당(唐)의 대족이었던 농서(隴西)의 이(李)씨, 청하(清河)·박릉(博陵)의 최(崔)씨, 형양(滎陽)의 정(鄭), 낙안(樂安)의 손(孫)씨, 하동(河東)의 배(裴)씨와 설(薛) 등의 중국 성을 모방하여 붙인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최치원(崔致遠)이 그의 선조는 한족(漢族)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식 성인 한성(漢姓)은 대체로 고구려의 장수왕 이후, 백제의 근초고왕 이후, 신라의 진흥왕 이후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그 이전의 우리나라 성인 한성(韓姓)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에 발간된 『삼국사기』에도 성을 쓴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신들과 유학자와 장보고와 같이 무역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 민중은 신라말기까지 성을 쓰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씨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중국문화가 유입된 후 중국식 성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 시기를 추정해보면, 고구려는 장수왕대(413~490)부터이고, 백제는 근초고왕대(346~375)부터이며, 신라는 진흥왕대(540~550)부터 한자식 성을 쓴 것으로 중국의 기록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2) 고려시대(高麗時代)

고려의 태조 왕건(王建)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세력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주(州)·목(牧)·군(郡)·현(縣)의 개편작업과 함께 성(姓)을 하사(下賜) 하면서 우리나라 성씨(姓氏)의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왕건의 부장인 홍술(弘述)·백옥(白玉)·삼웅산(三熊山)·복사귀(卜沙貴) 등은 모두 성(姓)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신승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으로 개명한 것은 왕건을 추대하여 개국공신이 된 후의 일이며, 아마도 태조로부터 사성(賜姓)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각기 부계홍씨(缶溪洪氏), 경주배씨(慶州裵氏), 평산신씨(平山申氏), 면천복씨(沔川卜氏) 등의 시조가 된다. 이와 같이 고려 태조는 사성한 예가 많이 있다.

지금의 강릉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이 귀순하자 왕(王)씨의 성을 하사하였고, 발해태자(渤海太子) 대광현(大光顯)이 귀순하자 또한 왕(王)씨의 성을 주고, 신라인 김신(金辛)이 태조를 보필하여 권능이 많은 까닭에 권씨(權氏)의 성을 주어 안동권씨(安權氏)의 시조가 되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개국한 뒤 목천(木川) 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므로 태조가 이를 미워하여 우(牛)·마(馬)·상(象)·돈(豚)·장(獐)과 같은 짐승의 뜻을 가진 자로 성(姓)을 주었는데, 뒤에 우(牛)는 우(于), 상(象)은 상(尙), 돈(豚)은 돈(頓), 장(獐)은 장(張)으로 고쳤다는 설이 있다.

이와 같이 귀족 관료들은 고려 초기부터 성(姓)을 쓰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중기 문종(文宗) 9년(1055)에 성(姓)을 쓰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급제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법령이 반포된 것을 보면, 문종 때까지도 성(姓)을 쓰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령은 우리나라 성(姓)씨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성(姓)이 보편화되고 일반민중이 성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문종 이후의 사람들을 시조(始祖)로 하는 성씨(姓氏)가 많아졌다. 그러나 노비 등 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조선 초기까지도 여전히 성(姓)을 쓰지 못하였다.

(3) 조선시대(朝鮮時代)

조선 초기 성(姓)은 양민에게까지도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층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임진(壬辰) 및 병자(丙子) 양난(兩亂)으로 인하여 전쟁에 공을 세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과정에서 신분의 상승을 꾀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면서 신흥양반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중국이나 일본인의 귀화로 인하여 득성(得姓)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1909년에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를 기회로 성이 없던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담당할 동(洞)서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문집안의 성씨를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그러므로 성씨의 종류수가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1930년 국세통계조사

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성씨가 많아졌다.

(4) 현대(現代)

성씨의 수(數)와 종류(種類)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역사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성씨를 조사한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책으로 세종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는 256성이 기록되어 있고, 성종 때인 1486년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277성이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영조(英祖) 때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지은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이, 정조 때 아정(雅亭) 이덕무(李德懋)가 쓴 「양엽기(盎葉記)」에는 486성, 1770년(영조 46)에 편찬되어 1782년(정조 6)에 증보(增補)를 시작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조선 초 무려 496성(숫자가 많은 것은 고문헌에 있는 것들 다 넣었기 때문이다)이었던 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289성으로 줄었으며 다시 496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성씨에 관한 문헌으로는 양성지(梁誠之)의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 조중운(趙仲耘)의 『씨족원류(氏族源類)』, 정시술(丁時述)의 『제성보(諸姓譜)』 등이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1930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국세조사(國稅調查)에는 250성으로 조사되었고, 1934년 중추원(中樞院)에서 펴낸 「조선의 성명씨족에 관한 연구조사」에는 326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하에서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1939년에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라

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은 1945년 광복과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이 공포한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에 따라 우리의 이름을 다시 찾을 때까지 우리나라 성씨 역사에서 가장 큰 수난기였다.

광복이 되어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1960년 국세조사에서 미확인(未確認) 11성을 포함하여 258개의 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75년 국세조사에서는 249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대별 또는 자료별 차이가 큰 것은 대개 실제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옛 문헌에 산재해 있는 것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며, 가구주와 호적별로 조사차이가 나타났다.

1975년도 인구조사에 의한 성씨분포도(姓氏分布圖)를 살펴보면, 김(金)씨가 전체인구의 21.9%, 이(李)씨가 14.9%, 박(朴)씨가 8.5%, 최(崔)씨가 4.8%로 4대성이 총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위 20위 안에 드는 성이 80%를 차지하고 35여개 성이 90%, 90여개 성이 전체의 99%를 차지하여, 실제 우리나라에는 249개 성(姓) 중에 90여 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160여개 성은 총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데, 심지어 비(丕)·선(先)·간(間)·응(應)·포(鮑)·방(旁)·은(恩)씨 등은 전국을 통틀어 1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이후 현대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1985년에 조사한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본관별 분류를 처음 시도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였는데, 274개의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조사인 200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서는 286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1960년대 이후 성씨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 성씨의 성장과정(成長過程)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아가 발생하였다가 전 국민의 주민등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이 크게 줄어든 이유도 있겠으나,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귀화 및 국제결혼 등으로 최근 새로운 성씨와 본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발해고(渤海攷)』;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양성지(梁誠之),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이덕무(李德懋), 『양엽기(盎葉記)』; 정시술(丁時述), 『제성보(諸姓譜)』; 계연수편 『한단고기(桓檀古記)』; 이의현(李宜顯), 『도곡총설(陶谷叢說)』; 조중운(趙仲耘), 『씨족원류(氏族原流)』; 북애자(北崖子), 『규원사화』; 윤창현(尹昌鉉),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총독부(總督府), 『국세조사 서(書國稅調查)』, 1930년; 중추원(中樞院)에서 펴낸 「조선의 성명씨족에 관한 연구조사」 1934년; 1985년 조사한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00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통계자료.

4. 성씨의 종류와 본관

우리나라 성씨는 문헌에 따라 그 수가 일정하지 않다. 최초의 전국적인 성씨 자료라 할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약 250여 개의 성씨가 등장하고, 그 이후 1486년(성종 17)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270여 개의 성씨와, 영조 때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상당수가 늘어난 298개의 성씨가 기

록되어 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소재 250여 성씨와 『동국여지승람』 270여 성씨를 비롯해 이후 귀화한 성씨를 모두 합쳤을 뿐 아니라, 이 책이 편찬될 때 이미 소멸된 망성(亡姓)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곡총설』보다 정조 때 이덕무가 편찬한 『양엽기(養葉記)』에는 성을 음운별로 기록하여 379개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한자성이 들어오기 전의 성과 이미 소멸한 망성까지 모두 싣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세기 후반 고종대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496개의 성이 등장하는데, 이는 삼국시대로부터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감안해 볼 때 조선시대의 성은 그 수가 대략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250개에서 270여 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부터 중앙정부에서는 호구조사를 통해 인구수를 조사하여 왔다. 정확한 호구조사는 부국강병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요역과 징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호구조사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였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의 숫자가 세(稅)의 근간이므로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시행했으며, 총 인구와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민정의 기초 자료로 삼으려 했다. 이는 오늘날의 인구조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조사방법은 근래에 실시되고 있는 과학적 인구센서스와 달리, 읍지(邑誌)를 작성할 때 조사된 인구와 호적대장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호구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실제인구와 합치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16세기 이전까지 천민층이 전체인구의 40~50%가 되었으므로 전체적인 인구조사에 한계가 있

있을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인 인구 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후, 매 5년 간격으로 그간 1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우리 손으로 성씨를 조사한 것은 1960년의 일이었다. 이때 인구센서스에 부수된 조사로 실시했지만, 당시의 성씨는 30년 전의 조사보다 8개의 성이 많은 258개로 나타났다. 이때 조사에서는 성씨만을 한자로 기입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성씨의 종류와 분포상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어 남쪽만을 조사하였으며, 현장조사가 충실하지 못하여 확인되지 못한 성씨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1930년의 조사 자료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 뒤 1966년과 1970년 조사에서는 가구원 개개인의 성씨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가구의 성씨만을 한자로 조사하였으나, 역시 미확인된 성씨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 198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국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성씨와 본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75개의 성씨와 3,435개의 본관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의 250여 성과 비슷하나 본관은 약 천여 개가 줄어든 수치이다. 당시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100명 이상인 성씨는 223개이고, 100명 이하의 희성(稀姓)은 52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구 2만명 이상인 성씨는 84개이고, 2만명 이하 100명 이상의 성씨는 139개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5년 후인 2000년 11월 1일에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인구센서스에서는 1만명 이상인 성이 107개이고, 그 미만이 179개로 모두 284개의 성이 조사되어 15년 전에 비해 9개의 성이 늘어났다. 그리고 10대 성씨의 본관 수는 ①위가 김(金)씨가 360개, ② 이(李)씨 278개, ③ 박(朴)씨 161개, ④ 최(崔)씨 161개, ⑤ 정(鄭)씨 138개, ⑥ 임(林)

씨 119개, ⑦ 조(趙)씨 70개, ⑧ 윤(尹)씨 68개, ⑨ 장(張)씨 63개, ⑩ 강(姜)씨 35개로 나타난다.

앞의 성씨 가운데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 김씨는 무려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성과 대본관 대부분은 고려·조선시대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위의 대성이 이미 당대에 많이 분포한 원인도 있겠지만, 문벌을 숭상했던 조선 사회가 이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16세기 이래 무성층(無姓層)이 족보를 개조하거나 윤색하였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인구가 더욱 증가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인구조사를 실시한 년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1. | 1925. 10. 1. | 간이국세 조사 | ▪ 최초의 인구센서스 |
| 2. | 1930. 10. 1. | 조선국세조사 | ▪ 최초로 직업 등 경제활동 사항 포함 |
| 3. | 1935. 10. 1. | 조선국세조사 | |
| 4. | 1940. 5. 1. | 국세조사 | |
| 5. | 1940. 5. 1. | 간이국세조사 | |
| 6. | 1949. 5. 1. | 총인구조사 | ▪ 최초로 인구이동 사항 포함 |
| 7. | 1955. 9. 1. | 간이총인구조사 | |
| 8. | 1960. 12. 1. | 인구 주택 국세조사 | ▪ 경제활동 및 출산력 사항의 20%
표본집계
▪ 노동력 개념 설정
▪ 최초로 주택에 관한 조사 실시 |
| 9. | 1966. 10. 1. | 인구센서스 |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및 출산력) |
| 10. | 1970. 10. 1. | 총인구 및 주택조사 |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
인구이동 및 일부 주택에 관한 사항) |
| 11. | 1975. 10. 1. | 총인구 및 주택조사 | ▪ 5%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및 일부 주택에 관한 사항) |
| 12. | 1980. 11. 1. | 인구 및 주택센서스 |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및 일부 주택에 관한 사항) |
| 13. | 1985. 11. 1. | 인구 및 주택센서스 | ▪ 전항목 전수조사
▪ 성씨, 본관 및 종교에 관한 조사 실시 |

- | | | |
|------------------|----------|--|
| 14. 1990. 11. 1. | 인구주택 총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 인구이동, 통근·통학 및 일부가구에 관한 사항) ▪ 자료입력의 광학판독방식(OMR System) 도입 |
| 15. 1995. 11. 1. | 인구주택 총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통근·통학, 인구이동 및 일부가구에 관한 사항) |
| 16. 2001. 11. 1. | 인구주택 총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인구이동, 고령자, 정보화 및 일부가구에 관한 사항) ▪ 아파트 전수조사가구에 대한 응답자 기입방식 도입 ▪ 자료입력의 PC 지방분산 입력방식 도입 |

5. 안성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와 중요인물

안성군에서는 예부터 어떤 성(姓)씨들이 살고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어떤 상황이며, 어떤 성씨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성의 성씨가 기록된 각종 지리지와 씨족과 관련된 보학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성을 본관(本貫)으로 하는 성씨는 관찬자료로서 우리나라의 성씨를 집대성한 『세종실록지리지』에 잘 나타난다. 이 지리지에는 328개 군현(郡縣)의 지지(地志)가 기록되어 있는데, 안성군 편에 성씨조(姓氏條)에 의하면, 토성(土姓)이 6이니, 이(李)·김(金)·조(趙)·설(薛)·장(張)·경(敬)씨와 감미탄(甘彌吞)의 성이 1이니 유(柳)씨 등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성씨들은 1430년경 안성지방에 세거하고 있었던 성씨들로 조

선전기에는 큰 변화 없이 안성의 관적(貫的)성씨로 존속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안성군 편 의 성씨조(姓氏條)에 망성(亡姓)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안성의 관적 성씨들 중에서 안성을 떠나 망성이 된 성씨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 함길도 영흥대도호부 문천군 조에 망입성(亡入姓)이 35이니, 그 중에 안성의 망성인 경(敬)·이(李)·임(林)·윤(尹)씨 등이 들어있다. 즉 안성의 관적성씨로 경(敬)·이(李)·임(林)·윤(尹)씨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성씨들이 군(郡) 간의 이주정책으로 인하여 함경도 문천 땅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나 지리지 편찬 당시에 이미 망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함길도 안변도호부 용진현조에 망입성(亡入姓)이 25이니, 그중에 안성의 망성(亡姓)인 양(楊)씨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망성(亡姓)은 고려 초기부터 전해오는 옛 문헌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 당시 없어진 토성을 일컫는다. 망성의 발생배경으로 자연적으로 집안이 쇠퇴하여 후손이 단절된 경우와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문이 몰락한 경우가 있다. 특히, 망성은 경기지역에 많았다. 그 이유는 수도에 인접한 토성들이 정치적 변화에 휩쓸려 흥망성쇠가 무성하였고, 서울에 있는 관료들이 빈번한 집권세력의 교체로 세력을 상실하고 도태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하면서 그들의 기반을 경기지역에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성씨의 이동이 유난히 심하였다. 실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성씨의 도별·성(姓)별·성관(姓貫) 수를 보면, 경기도의 망성은 141개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80여년이 지난 1530년(중종 25)에 발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기존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와 『동문선(東文選)』의 시문을 첨가하여 편찬, 보완한 것이다. 이 책의 성씨조 역시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내용과 큰 변화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조선후기 관찬 지리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안성편이 누락되어 1871년에 발간된 『안성읍지』의 내용을 보충한 것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성종(姓種)의 구분없이,

이(李)·김(金)·조(趙)·설(薛)·장(張)·경(敬)·유(柳) 칠성동관이금독이성락존(七姓同貫而今獨李姓略存)

이라 하여 안성을 관향으로 하는 7개 성씨가 있는데 지금은 오직 이(李)씨만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변화된 내용은 여섯 성씨가 이미 안성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떠한 이유로 망성이 되었는지 문헌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1861년(철종 12)~1866년(고종 3)에 완성된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도 『여지도서』와 같은 7개 성씨가 나타난다. 이와 달리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이(李)·김(金)·조(趙)·설(薛)·장(張)·경(敬)·유(柳)씨 등 7개의 성씨가 나타나고 있다.

1871년(동치 10) 12월에 발행한 『안성읍지(安城邑誌)』의 성씨조에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큰 변화 없이 이(李)·김(金)·조(趙)·설(薛)·장(張)·경(敬)·유(柳)씨 등 7개의 성(姓)이 있으며, 지금은 이(李)씨만이 약간 존재하고 있다

(李金趙薛張敬柳七姓同貫李今獨李姓畧存)고 하여 『여지도서(輿地圖書)』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에 안성의 관적(貫籍)성씨는 대개 『세종실록지리지』를 기본으로 하여 7개의 성씨가 있었으며, 조선 말기에 편찬된 『안성읍지(安城邑誌)』에는 안성에 이(李)씨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 안성의 관적성씨가 고을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등장하는 성씨이다.

『사마방목』은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과거 가운데 하나인 생원·진사시의 합격자 명부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이들은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할 자격을 가졌으며, 성균관에서 수학한 뒤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사마방목』이 성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험 볼 당시의 신분 전력(前歷)과 이름, 자, 생년월일 및 본관과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사항으로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 부모 및 조부모의 구존(俱存) 여부와 형제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를 통해 안성을 본관으로 한 성씨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안성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읍지에 나오는 성씨 이외에도 최·변·정·현·조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성으로 분류되었던 성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후대에 다시 창성(創姓)을 했거나 『세종실록지리지』의 찬자가 분류를 잘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사마방목』에 새로 등장하는 성씨가 한국의 안성이 아니라 중국의 안성을 본관으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면 130여 년 전에 안성지역에서는 안성이씨만이 찾아지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안성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대다수가 번성하지 못하고 계대(系代)가 단속(斷續)되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증보문헌비고』와 조중운(趙仲耘, 1607~1683)이 편찬한 『씨족원류(氏族原流)』에 의하면 안성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이(李)·김(金)씨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24년 6월에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따르면 안성을 본관지로 하는 성씨는

경(敬)·권(權)·김(金)·남(南)·라(羅)·문(文)·방(方)·봉(奉)·변(卞)·서(徐)·설(薛)·손(孫)·양(楊)·엄(嚴)·오(吳)·유(柳)·유(兪)·유(劉)·이(李)·장(張)·전(全)·전(田)·조(趙)·주(朱)·차(車)·천(千)·최(崔)·한(韓)·허(許)·현(玄)·황(黃)씨

등 31개 성(姓)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광복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현대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1985년에 조사한 인구센서스와 2000년 11월 1일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안성을 본관지로 하는 성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모두 14개의 성씨로 나타나 있다.

권(權)·김(金)·박(朴)·배(裵)·서(徐)·안(安)·오(吳)·유(兪)·유(庾)·이(李)·임(林)·장(張)·전(全)·차(車)·편(片)씨

따라서 이들 37개 성씨들의 기원과 이들 가문에서 배출한 중요한

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 사라진 성씨들의 기원을 문헌에 의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안성 경씨(安城敬氏)

안성 경씨(敬氏)의 선계 역시 자세히 알 수 없다. 1924년 6월에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 경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권씨(安城權氏)

안성 권씨(權氏)의 선계 역시 자세히 알 수 없다. 1924년 6월에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는 성씨로,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총1,075가구와 3,27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안성시에는 4가구에 16명이 살고 있다.

▶ 안성 김씨(安城金氏)

안성 김씨(金氏)는 신라 내물왕의 9세손 김재영(金再英)의 후예로 전한다. 『안성김씨과보』의 기록에 의하면, 재영(再英)은 진덕왕 때 백제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워 안성군에 봉해졌다고 하며, 이것이 신하에게 군(君)을 봉하는 법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후손들이 본관을 안성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이 없으므로, 고려 고종 때 김돈(金墩)을 1세 조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급제 후 한림학사를 거쳐 금자광록대부에 올라 상서좌복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김돈의 출신지인 안성을 관향으로 삼

고, 그로부터 1세(世)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안성 김씨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아래와 같다.

김유성(金有成, 생몰미상)은 돈(墩)의 아들로 급제하여 감찰어사, 한림학사 등을 지내고, 양광·전라도의 어사를 거쳐 평리사사 태복시윤에 올랐으며, 선유사로 일본에 갔다가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자 왕이 애석하게 생각하여 문하평리 평장사에 추증하고, 보조공신으로 책록하였다. 현재 일본 가마쿠라(鎌倉)의 한 신사(神社)에 봉(封)해져 있다고 전해진다.

김우정(金于正, 생몰미상)은 고려 말의 문신인 김유성의 아들이자 김우일의 형이다. 고려 말의 유명한 학자 단양인 우탁(禹倬)의 문집 『상현록(尙賢錄)』을 발견하여 그 곳에 기록된 것을 후손 윤환(允桓)이 발견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16년(1290년) 5월 과거등과 기록에 정당문학 정가신(鄭可臣)을 지공거로 급제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國學進士 金字正...于正 또는 于正이라고도 부르며, 일명 자정(子正)이라고도 하고 부는 유성이라고 한다.).

김우일(金于鑑, 생몰미상)은 고려 후기의 문신인 김유성의 둘째 아들로 그는 1317년(충숙왕 4)에 사헌부집의로서 경상도·전라도·충청도를 순방하면서 백성들의 질고를 탐문하도록 명을 받자, 이를 기회로 모든 일을 사사로이 처리하고 사복을 채웠으므로 장형을 받고 파면 당했다. 1328년 심양왕 고(瀋陽王 高)에게 아부하여 충숙왕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정사를 살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나라를 배반한다고 무고하다가 유배되었다.

김용(金鏞, ?~1363)은 고려 후기의 정치가이며, 본관은 안성이다. 공민왕이 원자(元子)로서 원나라에 들어가 숙위할 때 시종한 공로로 누차 승진하여 연저수종공신(燕邸隨從功臣) 1등에 봉하여졌고,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된 뒤 수충분의공신(輸忠奮義功臣)의 호를 받았다. 조일신의 난 때 궁중에서 숙직하며 적을 막지 않고 홀로 무사하였다하여 마침내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그 뒤 홍의(洪義)·정세운(鄭世雲) 등과 함께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다.

한편, 이들과 권행(權幸)을 다투던 김보(金普)가 모상을 당하자 비밀리에 행성도사 최개(崔介)를 설득하여 왕에게 백관들로 하여금 삼년상을 행하도록 청하여 김보를 견제하려고 왕지(王旨)를 고친 사건이 발각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다. 1361년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총병관(摠兵官)으로 방어에 실패하였다. 1362년 평소 사이가 나쁜 정세운이 홍건적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자 음모를 꾸며 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芳實)로 하여금 죽이게 한 다음, 안우 등이 주장(主將)인 정세운을 살해하였다는 죄목으로 이들을 또한 참살하였다. 1363년 순군제조가 되어 흥왕사(興王寺)의 행궁에 머무르고 있던 왕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우정승 홍언박(洪彦博) 등을 살해하였다. 이 음모가 실패하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잡힌 자는 모두 죽여 난이 진압된 뒤 일등공신에 봉하여졌으나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 처형되었다.

김림(金琳, ?~1362)은 1358년 원나라 황실과 인척관계를 맺고 권력을 휘두른 기철(奇轍) 일파를 제거한 공로로 공부상서에 제수되고 이등공신이 되었다. 1362년 홍건적의 침입 때 삼촌인 평장사 김

용(金鏞)의 간계에 넘어가 안우를 비롯한 김득배·이방실을 설득하여 정세운을 죽게 하였으나, 사실의 누설을 두려워한 김용이 보낸 자객에 의해 자신도 살해되었다.

조선조에서는 해영(海榮)의 아들 명수(命壽)가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역임한 후 나라에 공을 세워 익대이등공신으로 영국군에 봉군되어 가문을 중흥시켰으며, 진사(進士) 수연(守淵)의 아들 광철(光喆)은 한성부 판윤을 역임하여 절도사를 지낸 아들 호일(好日)과 함께 가문을 빛냈다.

안성 김씨는 1985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남한에 총 1,158가구에 3,76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790가구에 2,519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성시에는 6가구에 2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안성 남씨(安城南氏)

안성 남씨(南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나씨(安城羅氏)

안성 나씨(羅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과천에서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문씨(安城文氏)

안성 문씨(文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박씨(安城朴氏)

안성 박씨(朴氏)의 시조는 박윤정(朴允貞)이나 전해지는 문헌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그의 후손들이 본관(本貫)을 안성(安城)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밀성박씨 은산군파 계통인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며, 1985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남한에 99명이 살고 있으며, 2000년에는 83가구에 244명이 조사되었고, 이중 안성시에는 1가구에 5명이 살고 있다.

▶ 안성 배씨(安城裵氏)

안성 배씨(裵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총70가구와 256명이 조사되었으며, 안성시에는 거주자가 없다.

▶ 안성 방씨(安城方氏)

안성 방씨(方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며,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총 137가구와 46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성시에는 2명

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봉씨(安城奉氏)

안성 봉씨(奉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에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변씨(安城卞氏)

안성 변씨(卞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서씨(安城徐氏)

안성 서씨(徐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에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며,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총61가구와 189명이 조사 되었다. 안성시에는 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설씨(安城薛氏)

안성 설씨(薛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6월에 윤창현(尹昌顯)이 과천에서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

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손씨(安城孫氏)

안성 손씨(孫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안씨(安城安氏)

안성 안씨(安氏)의 세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총273가구와 982명이 조사 되었다. 안성시에는 2가구에 1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양씨(安城楊氏)

안성 양씨(楊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엄씨(安城嚴氏)

안성 엄씨(嚴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오씨(安城吳氏)

안성 오씨(吳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6월에 윤창현(尹昌顯)이 과천에서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며,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총 66가구와 236명이 조사되었다. 안성시에는 3가구에 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유씨(安城柳氏)

안성 유씨(柳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유씨(安城兪氏)

안성 유씨(兪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며,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총 191구와 618명이 조사 되었다. 안성시에는 2가구에 1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유씨(安城庾氏)

안성 유씨(庾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류씨(安城劉氏)

안성 유씨(劉氏)의 시조(始祖)나 계통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조선시대 간행된 여러 문집에는 안성유씨에 대한 기록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창계선생집(滄溪先生集) 권19

小註安城劉氏以度準之

삼연집(三淵集) 권33

安城劉氏亦有一說類此。

지촌선생문집(芝村先生文集) 권28

安城劉氏日月右旋之論

▶ 안성 이씨(安城李氏)

안성 이씨(李氏)의 시조(始祖) 이중선(李仲宣)은 고려에서 경군 호장(京軍戶長)을 지냈고 장민(長民)의 공(功)으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올라 벼슬이 삼중대광(三重大匡)·태사(太師)에 이르렀으며 백하군(白夏君, 백하는 안성의 고호)에 봉해졌다. 상계(上系)가 실전(失傳)되어 정확한 계대(系代)는 알 수 없으나 후손들은 본관을 안성(安城)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선(仲宣)의 아들 영(永)은 과거에 올라 사관(史館)의 대간(臺諫)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갔다. 1122년(예종 17) 이자겸(李資謙)이 한안인(韓安仁)을 죽일 때 영(永)이 매부였던 관계로 연좌되어 진도(珍島)로 귀양갔다가 어머니와 자식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한 말이나 마셔 분사(憤死)했

다고 하며, 이자겸이 쫓겨난 뒤 첨서추밀원사(僉書樞密院事)에 추증되었다. 이희(李禧)는 공민왕 때 명경과에 급제하였으며 양광도안무사(楊廣道按撫使)로 왜구방어에 큰 공을 세웠고 후에 이부시랑(吏部侍郎)에 올랐다. 우왕 때 삼중대광 문하시중으로 평왜대장군(平倭大將軍)이 되었다. 그리고 이경(李炯)은 1376년 문과에 급제하고, 1378년 삼중대광문하시중으로 평왜대장군(平倭大將軍)이 되었으며, 1388년에 왜병을 격파한 공으로 추충정란보조공신(推忠靖亂補祚功臣)에 올라 안성부원군에 봉해졌다.

그 외 인물로 좌사낭중(左司郎中) 극엄(克儼), 병부상서 유(裕), 밀직부사 유인(惟仁)과 함께 의정부참찬 숙번(叔蕃)이 당대에 널리 이름을 떨쳤다. 숙번은 경의 아들로 1393년(태조 2) 문과에 올라 여러 벼슬을 거쳐 제1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올랐고, 뒤에 안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세종 때의 이무(李茂)는 1433년에 진사가 되고 육진설치(六鎭設置)와 이민국책(移民國策)에 의한 개척 지도자에 선발되어 백호아대(百戶阿代)로서 북청에 들어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북방대족(北方大族)이라 할만큼 후손이 번창하여 입북파조(入北派祖)가 되었다.

이항혁(李恒赫)은 학자(學者)로 이름을 날렸으며, 이진(李戩)은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다가 왜적과 역전 끝에 순절하여 충절의 안성이씨 가문을 더욱 유명하게 했다. 인조 때의 이죽림(李竹林)은 1618년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봉사(訓練院奉事)가 되었는데,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와 전투 끝에 전사하였다.

안성이씨는 광능부원군파(廣陵府院君派), 이부시랑공파(吏部侍郎公派), 좌사랑중공파(左司郎中公派), 합문부사공파(閣門副使公派) 등 4개 파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안성이씨 후손들이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인물은 이숙번을 비롯하여 모두 9명(양현良鉉, 숙인叔仁, 기남期男, 석록錫祿, 석복錫福, 형우亨宇, 협심協心, 최영叡榮)에 이른다.

안성의 집성촌은 금광면 오흥리에 30여세대가 촌락을 이루고 있으며, 1928년에 일본인이 조사한 전국의 본관별로 유력한 유생(儒生)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성이씨는 28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남한에 총 6,186구와 19,739명이 조사되었고, 안성시에는 137가구에 449명이 살고 있다.

▶ 안성 임씨(安城林氏)

안성 임씨(林氏)는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총 111구와 363명이 조사되었고, 안성시에는 3명이 살고 있다.

▶ 안성 장씨(安城張氏)

안성 장씨(張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며,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남한에 총 329구와 1,040명이 조사 되었다. 안성시에는 10가구에 37명이 살고 있다.

▶ 안성 전씨(安城全氏)

안성 전씨(全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

며,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남한에 총 135구와 475명이 조사되었다. 안성시에는 2가구에 8명이 살고 있다.

▶ 안성 전씨(安城田氏)

안성 전씨(田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조씨(安城趙氏)

안성 조씨(趙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주씨(安城朱氏)

안성 주씨(朱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차씨(安城車氏)

안성 차씨(車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

며,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232가구에 698명이 조사되었다. 안성시에는 2명이 조사되었다.

▶ 안성 편씨(安城片氏)

안성 편씨(片氏)는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1가구에 5명이 조사되었으며, 안성시에는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천씨(安城千氏)

안성 천씨(千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최씨(安城崔氏)

안성 최씨(崔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한씨(安城韓氏)

안성 한씨(韓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허씨(安城許氏)

안성 허씨(許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현씨(安城玄氏)

안성 현씨(玄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성 황씨(安城黃氏)

안성 황씨(黃氏)의 선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24년 윤창현(尹昌顯)이 발행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발해고(渤海攷)』;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양성지(梁誠之), 『해동성씨록(海東姓氏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이덕무(李德懋), 『앙엽기(盎葉記)』; 정시술(丁時述), 『제성보(諸姓譜)』; 계연수 편 『한단고기(桓檀古記)』; 이의현(李宜顯), 『도곡총설(陶谷叢說)』; 조중운(趙仲耘), 『씨족원

류(氏族原流)』; 북애자(北崖子), 『규원사화』; 윤창현(尹昌鉉),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조선총독부(總督府), 『국세조사서(書國稅調查)』, 1930년; 통계청에서 1985년 조사한 인구 및 주택 센서스와 『2000년 한국주택총조사 성씨 및 본관보고서』.

6. 안성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있는 성씨의 유래

우리나라 지방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이루어졌다. 농업생산과 장시(場市)가 크게 발달한 안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전통의 형성과정에서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끼친 영향은 매우 크고 구체적이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즉, 신유학(주자학)은 남송(南宋)의 선진적인 농업생산력에 조응하여 형성된 이념체계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후기부터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농업기술과 함께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변형 발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왕조의 변혁과 사회를 비롯해 농업생산력의 극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동족촌락(집성촌)이 서경(평양) 이남 지방에 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집성촌이란 그 구성원의 다수가 동족(同族)관계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동족은 공동조상으로부터 출계가 상호 확인되는 동성동본(同姓同本)의 부계(父系)친족들로 구성된다.

이 분야의 종합적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 선생영조(善生永助)의 『朝鮮の聚落』에 예시된 아래의 10가지와 동족집단 발생연혁은

곧 입향(入鄕)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1. 그 지방의 세력(勢力)있는 자가 부근에 적지(適地)를 선택하여 전거(轉居)한 것.
2. 그 지방의 세력(勢力)있는 집의 자손(子孫)이 부근에 분가(分家)하여 그것이 발전한 것.
3. 중앙의 관직에 있었던 자가 적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관(官)에서 토지를 받아 은퇴 정주(定住)하여 그것이 발전한 것.
4. 인구 주밀(稠密)한 남부지방으로부터 인구가 희박(稀薄)한 서부 및 북부지방으로 일족(一族) 또는 일가(一家)가 이주하여 개토(開土)·개척(開拓)하여 그 자손이 번영한 것.
5. 지방관을 지낸 자가 관직을 물러난 후, 그대로 정주하거나 또는 수년 후 다시 와서 정착(定着)하여 그 자손이 번영한 것.
6. 불평을 품고 산간으로 은둔하거나 또는 죄를 지어 유적(流謫)되어 그대로 정착(定着)하여 그 자손이 발전한 것.
7. 전화(戰禍)를 면하기 위하여 피난한 후 귀향하지 않고 그대로 정착한 자의 자손이 발전한 것.
8. 갑(甲)이란 씨족이 발전한 촌락에 을(乙)이란 씨족이 들어와 갑을 상호 또는 갑을병의 씨족이 같이 발전한 것.
9. 갑이란 씨족을 쫓아내고 을이란 씨족이 발전하거나 또는 이전에 있던 씨족이 혼미해지고 새로운 씨족이 발전한 것.
10. 선조의 분묘를 지키기 위하여 묘역을 짓고 살던 자의 자손이 번영한 것.

선생영조(善生永助)의 이 사례들에는 시대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

거나 시대적 편차가 무시되어 있다.

또한 입향동기는 후손들에 의해 미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예시는 단편적 자료의 모음에 지나지 않고 그 내용에는 가상적인, 또는 허구적인 요소도 있기 마련이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조사된 안성의 집성촌(集姓村)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안성면(安城面)	동리(東里)	밀양박씨 18가구
	동리(東里)	전주이씨 15가구
	옥산리(玉山里)	여산송씨 15가구
	금석리(金石里)	이천서씨 16가구
보개면(寶蓋面)	신안리(薪安里)	초계정씨 15가구
	내방리(內芳里)	진천임씨 23가구
	가현리(加峴里)	의성김씨 22가구
	곡천리(曲川里)	경주김씨 27가구
금광면(金光面)	적加里(迪加里)	순천김씨 29가구
	오흥리(五興里)	안성이씨 16가구
	옥정리(玉井里, 梅南里)	기계유씨 23가구
서운면(瑞雲面)	신촌리(新村里)	영천이씨 27가구
	현매리(賢梅里)	경주정씨 26가구
미양면(薇陽面)	고지리(古地里)	진주소씨 19가구
	고지리(古地里)	김해김씨 20가구
	강덕리(康德里)	전주최씨 16가구

	개정리(開井里)	남양홍씨 23가구
	용두리(龍頭里)	남양홍씨 23가구
대덕면(大德面)	모산리(茅山里)	연안이씨 69가구
	보동리(溟東里)	광산김씨 80가구
	대농리(大農里)	밀양박씨 69가구
	진현리(辰峴里)	진주유씨 98가구
고삼면(古三面)	쌍지리(雙芝里)	해주최씨 48가구
	쌍지리(雙芝里)	무송윤씨 44가구
	삼은리(三隱里)	전주이씨 22가구
	월향리(月香里)	서흥김씨 17가구

성씨와 관련하여 한국 전통사회의 특징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동족마을의 존재이다. 현재로는 이농(離農)과 산업화로 동족마을이 거의 사라져가고 없지만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많은 수의 동족마을이 존속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동족마을이 형성된 시기를 5~6백 년 전까지 소급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일반적으로 17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동족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조선초기부터 동족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17세를 전후한 시기에 집성촌이 조성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현재 안성시 관내의 동족마을로 몇 개만이 확인되고 있지만 1953년 『경기도지』 하편에 실린 동족마을은 다음과 같다.

○ 安城邑

洞 名	姓 氏	本 貫	世 帶 數	形成時期
鳳山洞	金	金海	20	미상
鳳山洞	朴	密陽	20	"
鳳山洞	李	全州	24	"
榮洞	朴	密陽	21	"
玉山洞	宋	礪山	20	"
仁智洞	李	全州	36	"
仁智洞	李	慶州	21	"
仁智洞	金	金海	21	"
仁智洞	朴	密陽	26	"
金石洞	徐	利川	21	"

○ 寶蓋面

洞 名	姓 氏	本 貫	世 帶 數	形成時期
薪安里	鄭	草溪	23	미상
加士里	金	金海	29	미상
內芳里	林	晉州	26	미상
陽福里	陵	驪陽	26	미상

○ 金光面

洞 名	姓 氏	本 貫	世 帶 數	形成時期
五興里	李	安城	20	318년전

洞 名	姓 氏	本 貫	世 帶 數	形成時期
四興里	姜	晉州	30	350년전
四興里	金	慶州	21	250년전
玉正里	俞	杞溪	35	320년전
玄岩里	尹	坡平	20	150년전
開云里	尹	坡平	35	600년전
長竹里	任	豐川	21	100년전
內隅里	鄭	慶州	25	400년전

○ 瑞雲面

洞 名	姓 氏	本 貫	世 帶 數	形成時期
賢梅里	李	全州	66	400년전
宋山, 賢梅里	李	慶州	47	300년전
新興人口	李	永川	68	400년전
賢梅·松井里	鄭	慶州	50	400년전
陽村仁里	洪	南陽	49	350년전
松井里	朴	密陽	79	300년전
松山里	張	仁同	21	300년전
洞村里	韓	清州	34	400년전
新興里	高	濟州	42	300년전
新基里	趙	漢陽	23	300년전
中里	金	金海	28	200년전
松井里	俞	杞溪	23	400년전
北山里	金	慶州	62	350년전

○ 薇陽面

洞 名	姓 氏	本 貫	世 帶 數	形 成 時 期
洑 村 里	蘇	晉 州	31	300년전
康 德 里	崔	全 州	22	200년전

○ 大德面

洞 名	姓 氏	本 貫	世 帶 數	形 成 時 期
竹 里	金	金 海	28	미 상
內 里	曹	昌 寧	33	"
新 令 里	金	慶 州	41	"
新 令 里	安	順 興	20	"
蘇 峴 里	洪	南 陽	25	"
洑 東 里	金	光 山	58	"
泉 峴 里	金	彦 陽	25	"
辰 峴 里	柳	晉 州	62	"
大 豐 里	許	陽 川	20	"
大 豐 里	朴	密 陽	60	"
三 閑 里	柳	晉 州	40	"
三 閑 里	尹	坡 平	28	"
舞 陵 里	柳	晉 州	27	"
素 內 里	宋	恩 津	21	"

○ 古三面

洞名	姓氏	本貫	世帶數	形成時期
月香里	韓	淸州	31	570년전
月香里	金	瑞興	27	510년전
雙芝里	尹	茂松	55	360년전
雙禾里	崔	海州	65	400년전
三隱里	李	全州	24	미상
鳳山里	安	竹山	31	"
大葛里	李	全州	34	"
佳柳里	金	金海	25	"
佳柳里	鄭	慶州	24	"

현재 안성에 한 마을에 10가구 이상 집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마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여산⁷⁾ 송씨(礪山宋氏) 집성촌(集姓村)

안성 미양면 서변마을에 입향(入鄕)한 인물은 통덕랑을 지낸 태상(泰尙)의 자손인 상임(祥任)의 막내아들 중옥(仲玉, 1794~1826)이다. 시조 송유익(宋惟翊)은 고려 때 진사(進士)로 공을 세워 여산군에 봉

7) 여산(礪山)은 전북 익산군에 있는 여량(礪良)과 낭산(朗山) 두 현(縣)의 합명이다. 여량현(礪良縣, 일명 礪良)은 백제의 지량초현(只良肖縣)을 여량으로, 낭산현(朗山縣)은 알지산현(闕地山縣)인데 야산(野山)으로 신라 경덕왕이 고쳤는데, 고려 때 야산을 낭산으로 하였다. 1401년(태종 2) 두 현을 합하여 여산현으로 칭하고 세종 때 군으로 승격, 1699년(숙종25) 부(府)가 되었다가 1895년에 여산군이 되고, 1913년 익산군에 병합되어 그 일부지역은 여산면으로 남아 있다.

해졌으며 은청광록대부(銀靑光錄大夫)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추증되었다. 선계(先系)는 중국 경조(京兆)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호부상서를 지낸 송주은(宋柱殷)의 후손 자영(自英)이다.

그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유익(惟翊)은 여산 송씨, 둘째 천익(天翊)은 은진 송씨, 막내 문익(文翊)은 서산 송씨의 각 시조가 되어 우리나라 모든 송씨의 연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은진, 진천 송씨와 함께 우리나라 송씨의 가장 화려한 인맥을 이룬 여산 송씨는 시조의 아들 숙문(淑文)이 고려 원종(元宗)때 정당문학을 역임했고, 증손 송례(松禮)는 지추밀원사로 원나라 도원수 홀둔(忽敦), 부원수 대구(茶丘)와 함께 일본정벌에 참전한 후 충렬왕 때 좌명공신으로 상중대광 문하시중 판전리사사에 올라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봉해져서 명문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손자대에 와서 개성원윤을 지낸 운(운)을 파조로 하는 원윤공파(元尹公派), 밀직부사를 지낸 방영(邦英)을 파조로 하는 밀직공파(密直公派), 소윤을 지낸 원미(元美)를 파조로 하는 소윤공파(少尹公派), 지신사를 지낸 인(璘)을 파조로 하는 지신공파(知申公派), 서(瑞)를 파조로 하는 정가공파(正嘉公派) 등 크게 다섯 파로 갈라져서 세계를 이어왔다.

19세기 초에 안성 미양 서변마을에 입향한 중옥(仲玉)의 자는 문천(文天)이며, 묘소는 마산리 덕곡산 자좌(子坐)에 부인 영월 엄(嚴)씨와 함께 안장되어 있다. 중옥을 비롯한 종원(鍾遠) → 기호(氣浩) → 영필(榮弼) → 재섭(再燮) → 기철(基喆) 등으로 이어져 세대를 이루며 살아왔다. 여산 송씨가 한때 30여 호가 넘게 살았으나 현재는 12호(송정섭을 비롯하여 희섭, 영범(기현), 호범(기호), 기풍, 정환, 기재, 용범(기홍), 용기(기용), 기봉, 재석, 용석, 주식)가 살아가고 있으

며, 회장 송영범(기현), 운영위원장 희섭, 총무 기풍 등이 입향조를 비롯한 선대의 시사(時祀)와 가문의 풍속을 이어가는데 힘을 쏟고 있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여산 송씨는 남한에 총 72,763 가구에 232,753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안성시에는 252가구에 805명이 살고 있다.

경주김씨(慶州金氏)의 집성촌(集姓村)

보개면 곡천리(曲川里)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경주김씨의 입향조(入鄕祖)는 증통정대부 공조참의 김상길(金相吉)에 의해서 이다. 공은 조선개국공신 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찬성 계림군(鷄林君) 군(君)의 3세손이자 예문관대제학 자헌대부 판한성부사로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된 김인민(金仁民)의 6세손이며, 이퇴계 문인으로 울곡(栗谷) 이이(李珣)와 중봉(重峰) 조헌(趙憲)의 상교(相交) 도의지교(道義之交)로 올곧은 선비 증호조판서 행성균관(行成均館) 생원인 함(誠)의 6세손(계림군 14세손)이다. 휘 상길이 충북 괴산군에서 1700년경 진사로 안성에 이주한 뒤 그의 아들 가선대부 절충장군 오위도총부총관으로 계림군(鷄林君) 명선(明善) 역시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1750년대 이곳으로 낙향(落鄕)하여 후학들을 훈도(訓導)하였다. 한편, 그의 손자 가선대부어모장군(嘉善大夫禦侮將軍) 충건(忠建) 역시 관직(官職)에서 물러난 후 선친의 뜻을 받들어 낙향한 뒤 후학양성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곡천리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 전체 50가구 중 경주김씨가 집성을 이루고 있으며, 인근 북평리·오두리·기좌리·불현리에 산재한 후손들이 번성하고 종택(宗宅)에는 조상(祖上)의 위패를 모신 사당(祠堂)이 존속되어 오다가 최근에 매안되었다.

김충건의 증손인 정필(正弼)은 자가 주연(周淵)으로 훈련원 판관 및 전주진영병마절제도위(全州鎭營兵馬節制都尉)와 만경현령(萬頃縣令)을 역임한 뒤 만년에 선조의 뜻을 받들어 낙향한 후 사재로 서당(書堂)을 열고 충효(忠孝)와 인본(仁本)사상을 가르치며 후진양성을 통해 집성촌의 맥(脈)을 빛내었다.

입향조 김상길의 후손들은 선대의 가르침에 따라 대대로 풍화(風化)를 부식(扶植)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도 안성향교를 비롯한 유림 사회의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부내(曲川里)는 앞을 휘 감고 도는 꼬불꼬불한 하천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래 300~350여 년 전 현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300~500m 지점에 큰 마을이 위치하였다. 그러나 1780년대에 마을 근처에 달성 서씨의 대사헌 서명구(徐命九, 1692~1754)의 선조 묘소가 조성된 후 동산 지명이 '서판서(徐判書)네 묘(墓)' 또는 '산순 날(산소 날)'로 불리며 주민이 현 위치로 한 집씩 자연스럽게 옮겨지더니 50여호가 완전히 이전하고 옛날 살던 터전에는 아직도 밭에서 구들장, 주춧돌, 기와 파편이 가끔 출토되는 실정이다. 마을의 산봉우리마다 계곡마다 전설의 고향처럼 독특한 지명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조사된 집성촌의 현황에 따르면, 보개면 곡천리(曲川里)에 경주김씨가 27가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경주김씨는 그 밖에도 금광면 사흥리와 서운면 북산리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오고 있다.

경주김씨는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6,365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2186가구에 7,201명이 살고 있다.

기계⁸⁾유씨(杞溪俞氏) 집성촌(集姓村)

기계유씨의 시조 유삼재(俞三宰)는 신라 때 아찬을 지냈다. 그의 후손 유의신이 고려 개국에 반대하자 태조가 유의신을 기계현(경주의 속현) 호장으로 강등시켰다. 그 뒤 후손들이 그곳에 살면서 본관을 기계로 삼았다고 전한다.

조선 초기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사재감주부 여해(汝諧)의 후손 효통(孝通)이 문과에 급제하여 세종 때 대사성과 집현전직제학을 지내며 문명(文名)을 떨쳤다. 여해의 8세손 기창(起昌)은 연산군 때 만포진첨제절사가 되었으나 직간(直諫)하다 거제도에 유배되었다. 당시 그 많은 국신(國臣) 가운데 연산의 학대받으며 왕을 위해 절의를 지킨 인물은 오로지 기창(起昌)과 홍언충(洪彦忠) 두 사람 뿐이었다. 기창은 두 아들과 손자들을 훌륭하게 가르쳐 가문의 기틀을 다져 명문가로서 발돋움하게 하여 기계유씨의 중흥조라 일컫는다. 아들 정당(政堂) 여림(汝霖)은 판서를 지냈으며 덕망이 높고 청렴하였다. 여주(汝舟)는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한산에 임벽당(林碧堂)을 짓고 독서와 서예로 생을 마쳤으며, 명필(名筆)로 일컬어졌다.

손자 강(絳)은 대사헌 등을 거쳐 호조판서를 지냈으며, 증손 홍(泓)은 공신으로 기성부원군에 봉해져 좌의정에 오르는 등 이후 노론의 영수로 영의정을 지낸 유척기, 안성출신으로 좌의정을 지내 안성대감이라 일컬어지는 유언호, 한말의 의학자 유일준 박사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안성에 기계유씨의 입향조는 정당(政堂)의 손자로 단성공파조인 호(灑)의 셋째아들 대록(大祿)과 그의 아들 3남의 묘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록의 후손들이 금광면에 집성을 이루게 된 것이

8) 기계(杞溪)는 현재 경북 포항시 기계면이다.

혹, 그의 큰 자부가 안성이씨로 금광면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집안이었거나, 아들 달증(達曾)이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 사계가 안성군수로 부임하던 해인 1601년에 진사시에 급제했으며, 이후 사계선생이 3년여 간 안성군수를 지내고 있었을 때, 안성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왜냐하면 달증(達曾)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의 묘역이 모두 금광면에 있으며, 이하 후손들도 금광면 옥정리와 매남리 등지, 미양면 구수리 등에 집성촌을 이루며 학덕과 문명을 크게 떨쳤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조사된 집성촌(集姓村)의 현황을 보면, 옥정리(玉井里, 梅南里)에 기계유씨 23가구가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도 안성에는 단성공파와 자산공파 후예들이 주로 살고 있다. 단성공파는 옥정리 대록지원(大祿之園)에 있는 안응재(安應齋)에서 매년 음력 10월 11일에 시제(時祭)를 중심으로 문사를 꾸려가고 있다. 그리고 자산공파는 유언호 안성대감의 조부가 되는 명건의 묘소가 있는 고삼면 삼은리와 그의 아들 직기와 손자 언호의 묘소를 중심으로 문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000년 11월 1일 현재 전국에 34,984가구에 113,43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안성에는 주로 단성공파와 자산공파 후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안성에 1,292명이 살고 있었으며,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396가구에 1,141명이 살고 있다.

경주정씨(慶州鄭氏) 집성촌(集姓村)

경주정씨 시조 지백호(智伯虎)는 신라 초기 6부 가운데 진지촌(珍

支村)의 촌장이다. 시조(중시조) 문정공 정진원(鄭珍原)은 지백호의 42대손으로 고려시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평장사(平章事) 등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고 월성(경주의 옛이름)군에 봉해졌다. 그래서 후손들이 경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경주정씨가 전체 정씨(鄭氏)의 큰 집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의 인물로는 정극온(부마), 정현영(鄭玄英. 호부상서), 정휘(鄭暉. 문하평리) 등이 고려사에 올라있다. 정휘의 아들 양경공(良景公) 정희계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개국에 참여하여 조선개국공신 1등에 봉해지고 좌참찬, 판한성부사를 지냈다.

양경공의 후손들이 안성에 입향(入鄕)하여 살게 된 유래는 공의 현손인 충좌위부사과(忠佐衛副司果)를 지낸 징(澄)이 서운면에 살고 있는 영천이씨 이석지의 후손인 참봉(參奉) 이인희(李仁禧)의 여서(女婿)가 된 뒤에 처가 인근으로 이주하여 왔거나, 그의 아들이 외가 인근으로 이주하여 온 것으로 짐작된다.

징(澄)의 묘소가 서운면 도곡리(道谷里)에 있고, 그의 아들 군자감 봉사를 지낸 항령(亢齡)의 묘소가 중방동에 있으며, 손자와 증손의 묘소가 모두 서운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의 증손 운우(雲羽)가 광해 신유년(1621)생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임진왜란 그 이전에 징(澄)이나 항령(亢齡)이 서운면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서운면 송정리에 양경공의 사당이 충남에서 이전되어 왔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1812년에 순조 임금의 치제문(致祭文)을 살펴보면 왕을 대신하여 안성군수 박종경이 제사를 지낸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조사된 집성촌(集姓村)의 현황을 보면, 현

매리(賢梅里)에 경주정씨 26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이를 통해서도 짐작되는 바가 있다.

현재 양경공의 후손들은 사당을 중심으로 동주·창해·종훈·을규 등이 살고 있으며, 현매에 동화·남훈·동옥·동진·용훈·성훈·동원·광훈·용문·동백·동교·재훈·동훈·억훈·필규·지섭 등 20여 가구가 집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경주정씨가 1,130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468가구에 1,421명이 살고 있다.

7. 안성에 집성촌⁹⁾을 이루고 있었거나 현재 인구가 1,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성씨들

안성의 인구는 1897년 6월 3일자 독립신문에 따르면, 가호가 2,909호에 인구가 8,091명인데, 남자는 4,463명, 여자는 3,628명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죽산과 양성군이 제외된 당시 안성군의 통계이며, 아마도 호적이 없었던 천민들은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안성의 인구는 1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여하튼 통계청에서 2000년도에 조사 발표한 인구센서스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 당시 안성시에서 1,000명 이상 살고 있는 본관별 성씨들을 간략하게 열거해보기로 한다.

9) 안성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던 성씨의 기준은 『경기도지』 하권 pp.502~505에 실린 1953년을 기준으로 한 동족마을을 준거로 하였으며, 당시 집성촌을 이루고 있던 성씨들을 50여년이 흐른 지금과 대비해 보고자 2000년 인구센서스의 통계에 의거해 살펴보았다.

진주 강씨

시조 강이식(姜以式)은 고구려 도원수를 지낸 인물로 수나라 문제가 무례한 국서를 보내오자 왕은 군신과 회답할 것을 논의할 때 그는 이와 같은 무례한 글은 붓으로 답할 것이 아니라 칼로 답해야 한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수나라 군사 100만을 을지문덕과 함께 살수(청천강) 등지에서 대파하는 큰 전공을 세웠다. 그의 후손 강진이 진양(진주)후에 봉해지며 본관을 진주로 하였다.

문헌상의 본관은 진주, 금천, 안동, 백천 등 9본이 있으나 모두 대종인 진주강씨의 지파로서 강이식은 도시조가 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파는 박사공(博士公) 삼형제파, 은열공파, 인헌공파인데, 이들은 도시조 강이식으로부터 각 중시조까지의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 족보를 함께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중 박사공 삼형제파가 진주강씨의 3대산맥으로 그 후손이 번성하여 1백만 명을 헤아린다. 박사공파는 강계용 또는 손자 강사침(姜師瞻)이 어사를 지냈다 하여 어사공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은열공파는 강민첨장군을 파시조로 한다.

진주강씨가 안성에 입향하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문헌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금강면 사흥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각 면에 고루 분포하여 살아가고 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1,923명이 살고 있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678가구에 2,229명이 살고 있다.

안동 권씨

시조 권행(權幸)은 신라 왕실의 후손으로 본래의 성은 김씨로 930년(경순왕 3) 겨울 견훤의 대군과 이 고을에서 왕건과 대치했을 때,

성주인 김선평과 지도급 인사 장정필(안동장씨 시조)과 함께 왕건을 도와 병산(와룡 서지리)에서 견훤의 8천 대병을 함몰시키는 전공을 세운 삼태사(三太師) 중의 한 사람이다.

왕건이 크게 기뻐하며 “정세를 밝게 판단하고 권도를 잘 취했다. (能炳機達權)”라며 권씨 성과 벼슬을 내리고, 고창을 안동부로 승격 식읍으로 하사했다. 그래서 후손들이 안동을 본관으로 하였다.

권씨는 강릉, 경주, 광산, 대전, 안동, 안성, 예천, 전주, 진주, 청주 등 총11개의 본관이 있다.

안동권씨로 안성에 입향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각 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1,365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542가구에 1,749명이 살고 있다.

광산 김씨

시조 김흥광(金興光)은 신라 신무왕의 셋째 아들이다. 그는 현재의 담양 대전면 평장동에서 살았으며, 후손들이 본관을 광산으로 하게 되었다. 안성군수를 지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조선 예학(禮學)의 종주(宗主)로 가문에 명문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한 장본인이다.

안성에 광산김씨가 입향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덕면 보동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으며, 각 면에 고루 분포하여 살아오고 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2,154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666가구에 2,174명이 살고 있다.

김해 김씨

김해김씨가 안성에 입향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봉산동과 인지동을 비롯해 보개면 가사리, 서운면 중리, 대덕면 죽리, 고삼면 가유리, 미양면 고지리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이 고을에서 살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7,169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2,808가구에 9,246명이 살고 있다.

안동 김씨

안동김씨가 안성에 입향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보개면과 금광면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931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355가구에 1,207명이 살고 있다.

밀양 박씨

밀양박씨는 신라 경명왕(박혁거세의 29세손)의 첫째 아들 박언침(밀성대군)이 밀성(=밀양)대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박언침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밀양으로 하였다. 밀양박씨에서 10여개의 본관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여러 파로 갈라져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밀양박씨는 본관별 인구에서 김해(=가락) 김씨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밀양박씨 중 안성에 입향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상당

히 오래된 것 같다. 태종 때 출생한 박심문(朴審問)¹⁰⁾은 규정공과조인 현(鉉)의 현손으로 세종(世宗) 18년(1436)에 문과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 박원충(朴元忠) 역시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다. 그리고 안성읍 봉산리, 영동, 인지동과 서운면 송정리, 대덕면 대풍리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오고 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6,560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2,491가구에 8,184명이 살고 있다.

달성 서씨

달성서씨의 원조(遠祖) 서진(徐晉)은 고려시대 사람으로 달성군에 봉해졌다.

달성서씨가 안성에 입향하여 살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대사헌 서명구(徐命九, 1692~1754)의 선대 묘소가 보개면에 조성된 후 그의 후손들이 안성에 살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982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321가구에 1,098명이 살고 있다.

평산 신씨

평산신씨는 장절공 신승겸을 시조로 하고 있다. 평산신씨로 안성에 입향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안성읍과 미양면, 보개면 등지에 주로 많이 살고 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

10) 본책 인물편 박심문 참조

계표』에 따르면, 1,221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469가구에 1,466명이 살고 있다.

순흥 안씨

순흥안씨가 안성에 입향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안성읍과 대덕면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금광면과 보개면, 서운면 등지에 살고 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1,612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506가구에 1,673명이 살고 있다.

해주 오씨

안성에 입향 정착한 해주오씨가 입향해 살게 된 인물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오늘날 안성읍과 금광면, 미양면, 보개면, 대덕면, 고삼면 등에 자손들이 살고 있다. 아마도 양성 덕봉서원에 배향된 양곡과 용인의 추탄선생의 후손들이 이주하여 온 것으로 짐작된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2,382명이 살고 있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667가구에 2,149명이 살고 있다.

파평 윤씨

파평윤씨의 시조 윤신달(尹莘達)은 왕건을 도와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으로 태자를 교육하는 대사삼중대광에 봉해졌다. 그의 5세손 윤관(尹瓘)장군은 문종 때 북진정책을 완수

한 공으로 영평(淸平)백에 봉해져 후손들이 본관을 파평으로 하였다.

파평윤씨로 안성에 입향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조선 문종(文宗) 원년(1450년)에 급제한 윤필상(尹弼商)¹¹⁾이 안성사람이라는 사실과 조선 태종의 공신인 윤삼산(尹三山, 1406(태종 6)~1457(세조 1))의 후손들이 세거해오고 있다는 점, 인조 20년(1642년)에 급제한 윤익형(尹益亨)을 비롯해 후손들이 금강면 현암리, 개운리, 대덕면 삼한리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으므로 아마도 조선초기 내지는 고려 말부터 세거해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2,879명에 달한다. 한편,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852가구에 2,836명이 살고 있다.

경주 이씨

시조 표암공(瓢巖公) 이알평(李謁平)은 박혁거세 탄생설화에 나오는 초기 신라의 6촌 중 알천 양산촌(閼川 楊山村 : 급량부)의 촌장이다. 그러나 그 후의 계대가 전해지지 않아 신라 때 소판(蘇判) 벼슬을 지낸 진골(眞骨) 출신인 이거명(李居明)을 1세조로 하고 있다.

안성에 입향한 경주이씨가 누구인지 전해지는 문헌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안성읍 인지동, 서운면 현매리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아 오래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3,769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1,537가구에 4,972명이 살고 있다.

11) 본책 인물편 윤필상 참조

전주 이씨

시조 이한(李翰)은 덕망이 높고 문장이 탁월하여 신라 문성왕 때 사공(司空) 벼슬을 지냈으며 그 후 대대로 신라시대에 벼슬을 해왔다.

전주이씨의 1백여 파 중 으뜸가는 명가는 왕족인 밀성군(密城君, 침=세종의 아들)파로써 6명의 정승과 3대 대제학을 배출했으며,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정종의 아들)파가 부자 대제학 등 3명의 대제학과 영의정 한명을 내어 밀성군파에 버금간다. 덕천군파 다음으로서는 3명의 정승을 배출한 광평대군파, 정승 2명을 배출한 선성군파(宣城君派), 정승 한명과 술한 문신과 무신을 배출한 효령대군파 등이 빼어나다.

안성에 처음 입향한 전주이씨가 누구인지 언제 입향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안성읍 인지동, 서운면 현매리, 고삼면 삼은리, 대갈리 등지에 집성을 이루며 살아왔다. 그리고 1928년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되었던 것을 보인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7,726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2,685가구에 8,849명이 살고 있다.

인동 장씨

시조 장금용(張金用)은 장정필의 후손이다. 그는 고려 때 삼중대광신호위상장군을 지냈으며 후손들이 옥산에서 살면서 본관을 옥산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말에 옥산이 인동으로 바뀌어 인동 장씨로 하였으나 일부는 옥산을 본관으로 고집하며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현광(顯光)으로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자 당대 대

표적인 성리학자로서 의학에도 일가견이 있었으며,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안성에 인동장씨들이 들어와 살게 된 유래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홍문관수찬을 지낸 차주(次周)의 10대손 도환(道煥)의 차남으로 태어난 장기오(張基五, 1884~?)의 호자 비각이 서운면 송산리에 있으며, 이곳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것으로 보아 조선중기를 전후해 입향(入鄕)하여 살아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동 장씨는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1,318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안성시에는 536가구에 1,7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래 정씨

동래정씨는 신라의 6부 촌장 가운데 진지촌(珍支村) 촌장 지백호(智白虎)의 후손이다. 시조는 신라 때 안일호장(安逸戶長)을 지낸 정회문(鄭繪文)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문헌기록이 없는데다 그의 후손으로 고려 때 보운호장을 지낸 정지원(鄭之遠) 역시 그 이후의 혈연계보가 불확실해 정지원을 1세로 하고 그 후 안일호장을 지낸 정문도(鄭文道)를 중시조로 한다. 현재 부산 동래를 세거지로 삼은 까닭에 동래를 본관으로 쓰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상신 17명, 대제학 2명, 호당(湖堂) 6명, 공신 4명, 판서 20여명과 문과 급제 1백98명을 배출한 명문이다. 그중에서도 14세손 정난종(鄭蘭宗)에 이르러 동래 정씨는 명문의 반석을 더욱 굳혔다. 성리학자인 그는 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고 세조실록과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의 네 아들 중 정광필(鄭光弼)

은 중종 때 영의정에 오르고 당시에 어진 정승으로 추앙된 인물이다. 그의 손자 정유길은 대제학, 좌의정을 지냈으며 정유길의 자손에서 많은 인물이 나왔다.

안성에 동래정씨들이 입향(入鄕)하여 살아 온지는 오래되었던 것 같다. 조선후기에 정한모(鄭翰謨, 1863~?)를 비롯하여 미양 보체리에 성명의숙(誠明義塾)을 설립하였던 정인헌(鄭寅憲)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1,738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365가구에 1,213명이 살고 있다.

한양 조씨

시조 조지수(趙之壽)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나 연대는 알 수 없고, 고려 중엽에 조순대부 첨의중서사를 지냈다. 그 후 후손들이 조선 개국 때 한성(현 서울)으로 옮겨 가세가 크게 번영하였고,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으므로 본관을 한양으로 하고 있다. 고려 시대에 시조 조지수의 외아들로 쌍성총관부 초대쌍성총관을 지낸 조휘(趙暉), 그의 아들 조양기(趙良琪) 등과 여말에 조인벽(趙仁璧), 조인옥(趙仁沃)과 조온(趙溫), 조연(趙涓)등 많은 관직자를 배출하면서 가문의 기틀을 세웠다.

중종 때에 정암 조광조를 비롯하여 한말에 조병옥, 시인 조지훈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한양 조씨들이 안성에 언제 입향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서운면 신기리 등지에 집성을 이루고 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

계표』에 따르면 1,371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362가구에 1,235명이 살고 있다.

경주 최씨

시조 최치원(崔致遠)은 돌산 고희촌장 소벌도리의 24세손이며, 신라 말기의 대문장가이다.

최씨는 조선시대에 와서는 퇴조를 보여 겨우 문과에 42명을 배출하였을 뿐 상신, 대제학 가운데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 경주 최씨는 26파로 나뉘었는데 그중 6대파가 주축을 이룬다.

안성에 경주최씨들이 언제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1984년에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의하면, 1,862명이 살고 있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763가구에 2,467명이 살고 있다.

청주 한씨

시조 한란(태위공)은 고려 태조가 견훤을 정벌하려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 칼을 차고 나가 종군하여 삼한통합의 공을 세우고 삼중대광 문하태위가 되고 개국벽상공신에 서훈 되었다.

한씨들이 안성에 언제 누가 입향(入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임진왜란 이후 도기서원을 건립하는데 주역을 담당 한여기(韓如琦)와 한말에 한규설 대감의 친형인 한규직(韓圭稷, 1845~1884)을 비롯하여 고종 때 문과급제한 한인호(韓麟鎬) 등의 이름이 보이는 것을 보아 안성에 청주한씨가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전으로 생각된다. 서운면 동촌리와 고삼면 월향

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2,051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717가구에 2,257명이 살고 있다.

남양 홍씨

시조 홍천하는 고구려 27대 왕인 영유왕 때 중국 당나라에서 8학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학과 문화를 혁신시켰다. 신라 27대왕인 선덕여왕 때 유학의 발전에 공을 세워 당성(남양)백에 봉해졌고 태자태사가 되었으며 본관을 당성으로 하였다. 당성이 후에 남양으로 지명이 바뀌어 본관을 남양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개국공신이며 삼중대광태사인 홍은열을 중시조로 1세 조상으로 하여 대를 잇고 있다. 홍은열은 원래 이름이 홍유(儒)이었는데 고려 개국에 공을 세워 태조가 ‘은(殷)나라 부열(傅說 : 중국 은나라 고종 때의 명재상)과 같다’며 이름을 은열로 하사 했다고 한다. 후일에 회인 홍씨도 합본하였다고 한다.

안성에 남양홍씨가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의 일로 생각된다. 안성사에 모셔져 있는 배향인물과 임진왜란 시 크게 무공을 세운 문정공과 홍자수와 홍계남장군을 비롯해 남파 홍우원 등은 안성을 빛낸 인물들이다. 대덕면 소현리에 남파선생의 후손들이 집성을 이루고 있고, 서운면 양촌 인리와 미양 용두리에 안성사를 중심으로 홍자수의 후손들이 집성하고 있고 문호를 넓혀 개정리에도 다수가 살아가고 있다.

안성군 문화공보실에서 1984년에 조사한 『안성군 본관성씨별 집계표』에 따르면, 남양홍씨가 2,062명에 달한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안성시에 530가구에 1,757명이 살고 있다.

8. 외국(外國)의 성씨(姓氏)제도

외국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의 성씨를 따른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브라질 등도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여자는 결혼 전의 성(姓)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남편의 성(姓)을 사용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통례이나, 법률로는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어느 한쪽의 성을 사용하거나 각자의 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부부는 각자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아내는 자기의 성 위에 남편의 성을 합하여 사용하는 복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의 성은 두 글자 성씨가 된다.

또한 지구상에는 성(姓)이 없는 국가들도 있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이 그 예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하거나 취미로 이름 위에 이것저것 덧붙여 사용한다고 한다.

미얀마에서는 이름 위에 ‘우’나 ‘몽’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와 ‘몽’이 우리나라의 김씨나 이씨만큼 많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그러나 ‘우’자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붙이는 경칭이며, ‘몽’자는 미혼의 젊은이에게 붙이는 것으로 영어의 미스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성씨는 매우 복잡하고 그 숫자로도 13만 2천여 성씨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민족 중의 하나다. 일본의 성씨는 두 글자 성씨가 제일 많고 한 글자나 세 글자 성씨도 많다.

9. 외국(外國)의 족보(族譜)연구

외국의 거의 모든 나라에 족보제도가 있다. 서구에서는 Family Tree, 중국에서는 종보(宗譜), 일본에서는 가보(家譜)라 하고 각 가문마다 문장(紋章)이 대대로 전해져서 특별한 예식이나 명절에는 예복, 모자 등에 착용한다. 또한 일본에는 일본가계도학회(日本家系圖學會)가 있어 제한적으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성씨와 가문(家紋)'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씨가문연구회(姓氏家紋研究會)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많은 나라에 족보학회가 있으며, 족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이 있는 국가도 있다. 미국의 족보전문 도서관에는 족보가 마이크로 필름화되어 있으며, 족보학회가 창립된지 80년이 넘어 많은 학자들이 여러가지 세미나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系譜)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하버드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족보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족보들을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보관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계보의 작성법을 학과에 편성해 놓고 연구발표회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일본의 동

경대학과 경도대학, 중국의 남경도서관과 중국과학원, 북경도서관, 프랑스의 극동학원, 베트남의 국립도서관 등에 동양의 족보들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야후의 계보학 분류에도 외국의 많은 성씨와 관련한 사이트가 많이 올라와 있어 외국 성씨의 유래와 족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족보는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10. 외래 귀화성씨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귀화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초엽이며, 그때는 주로 수(隋), 당(唐)의 중국인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송(宋)나라 사람을 비롯하여 여진(女眞), 거란(契丹), 안남(安南:베트남), 몽골, 위구르, 아랍사람들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명(明)나라와 일본인 등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귀화하였다.

이들이 한국에 귀화하게 된 동기는 대체로 정치적 망명, 표착(漂着), 종교홍포(宗教弘布), 투항(投降), 구원(救援), 상사(商事), 전란피란, 범법도피(犯法逃避), 정략결혼(政略結婚), 왕실 시종관계(侍從關係)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귀화인들은 대개 당시의 조정으로부터 융숭한 대우를 받았으며 왕으로부터 성명을 하사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의 외래 귀화 성씨를 크게 나누면 중국계, 몽골계, 여진계, 위구르계, 아랍계, 베트남계, 일본계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계]

가씨(賈)씨	남양 갈(葛)씨	회산 감(甘)씨	신천 강(康)씨	진주 강(姜)씨
강(強)씨	경(景)씨	계(桂)씨	곡(曲)씨	곡부 공(孔)씨
현풍 곽(郭)씨	구(具)씨	구(丘)씨	영양 김(金)씨	남궁(南宮)씨
낭(浪)씨	노(盧)씨	노(魯)씨	노(路)씨	강음 단(段)씨
당(唐)씨	아산 호(胡)씨	성주 도(都)씨	광천 동(董)씨	두(杜)씨
열산 마(麻)씨	만(萬)씨	매(梅)씨	신창 맹(孟)씨	명(明)씨
함평 모(牟)씨	묵(墨)씨	남양 방(房)씨	방(方)씨	방(龐)씨
수원 백(白)씨	금성 범(范)씨	범(凡)씨	초계 변(卞)씨	밀양 변(卞)씨
원주 변(邊)씨	황주 변(邊)씨	면천 복(卜)씨	수성 빈(賓)씨	빙(氷)씨
청주 사(史)씨	진주 사(謝)씨	서문(西門)씨	해주 석(石)씨	보성 선(宣)씨
섭(葉)씨	평산 소(邵)씨	진주 소(蘇)씨	송(宋)씨	승(昇)씨
성주 시(施)씨	거창 신(慎)씨	영산 신(辛)씨	풍산 심(沈)씨	광주 안(安)씨
죽산 안(安)씨	태원 안(安)씨	청주 양(楊)씨	통주 양(楊)씨	어(魚)씨
의령 여(余)씨	여(呂)씨	곡산 연(延)씨	전주 연(連)씨	염(廉)씨
오(吳)씨	회양 후(后)씨	의령 옥(玉)씨	개성, 제남왕(王)씨	휘주 요(姚)씨
단양 우(禹)씨	원주 원(元)씨	위(魏)씨	위(韋)씨	유(劉)씨
유(庾)씨	육(陸)씨	무송 윤(尹)씨	행주 은(殷)씨	교동 인(印)씨
풍천, 장흥임(任)씨	평택 임(林)씨	요양 자(慈)씨	장(張)씨	거창 장(章)씨
아산 장(蔣)씨	문경 전(錢)씨	나주 정(丁)씨	서산 정(鄭)씨	한산 정(程)씨
남양 제갈(諸葛)씨	배천 조(趙)씨	임천 조(趙)씨	평양 조(趙)씨	청주 좌(左)씨
상주 주(周)씨	신안 주(朱)씨	충주 지(池)씨	홍덕 진(陳)씨	영양 천(千)씨
파릉 초(楚)씨	제주 초(肖)씨	추계, 전주추(秋)씨	통천 태(太)씨	용강 팽(彭)씨
풍덕 포(包)씨	임구 풍(馮)씨	달성 하(夏)씨	곡산 한(韓)씨	강릉 함(咸)씨
해(海)씨	진주 형(邢)씨	전주 호(扈)씨	파릉 호(胡)씨	남양홍(洪)씨-당홍
황(黃)씨				

[몽골계]

연안 인씨(延安印氏)

1064 안성향교지

[여진계]

청해 이씨(淸海李氏)

[위구르계]

경주 설씨(慶州 僣氏)

[아랍계]

덕수 장씨(德水張氏)

[베트남계]

화산 이씨(花山李氏)

[일본계]

우록 김씨(友鹿金氏 : 사성 김해 김씨)

2장 안성의 과거급제자

1. 과거제도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중국의 수(隋)나라 문황제(文皇帝) 때인 서기 587년(개황(開皇) 7)의 일이었다. 수나라의 문황제는 당

시 강성했던 귀족 세력을 누르고 천자(天子)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다. 수나라의 과거 제도는 당(唐)나라에 계승되었으나 인재선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송(宋)나라에 와서 발달하게 된다. 중국의 과거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고려 광종(光宗) 9년(958)에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시하였는데, 수(隋)나라와 같이 귀족과 각 지역의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과거시험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788년 통일신라 원성왕(元聖王) 4년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설치되었지만 골품제의 제약으로 과거의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하였다.

고려시대 과거시험은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가 있었다. 제술과는 사장(詞章)을 보았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經典)을, 잡과는 기술과목을 보았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양대업(兩大業)이라하여 강조되었고, 잡과는 의업(醫業)·복업(卜業)·지리업(地理業) 등으로 기술관을 등용하는 시험이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보다 정비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1392년(태조 1)에 조선왕조가 성립되자 곧바로 과거법을 제정하여 제술과와 명경과를 통합하여 문과(文科)로 하고, 서울은 성균관, 지방은 각 도에서 경서(經書)에 정통한 자들을 성균관에서 시험보도록 하였다. 합격자 33명은 이조(吏曹)에 보내져 각각 재능에 따라 등용토록 하였고, 잡과(雜科)로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를 두었는데, 기술직으로 중인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었다.

1393년(태조 2)에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보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식년시(式年試)라 하여 자(子)·오(午)·묘(卯)·유(酉)년이 되는 해에 과거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조 말엽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407년(태종 7)에는 이미 등용된 문신들에게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중시(重試)의 제도를 마련하였고, 1408년(태종 8)에 무과(武科)를 신설(新設)하여 용호방(龍虎榜)이라고 하였다.

이어 1438년(세종 20)에는 소과(小科)인 생원·진사시(生員, 進士試)가 설치되면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크게 소과(小科)·대과(大科)·무과(武科)·잡과(雜科)의 네 종류로 정비되어 체계화되었다.

2. 문과의 설행(設行)

문과는 조선시대 과거의 꽃이라고 할 만큼 중요시되어 문과급제는 가문의 영광이며 사회적으로 인정과 명예를 얻는 지름길이었다.

문과를 흔히 대과(大科) 또는 동당시(東堂試)라고 하는데, 생원·진사 뿐만 아니라 유학(幼學)도 응시할 수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세 차례 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각종 별시(別試)에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만 있었다.

초시는 한성부에서 실시하는 한성시,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관시 및 각 도에서 관찰사가 실시하는 향시의 세 종류가 있었는데, 모두가 가을에 실시하였다. 초시의 선발인원은 식년시의 경우 240명으로 향시가 150인(경기 20, 강원 15, 황해 10, 충청 25, 경상 30, 전라 25, 평안 15, 함경 10), 한성시가 40인, 관시가 50인이다.

이들 초시 합격자 240인을 대상으로 이듬해 봄에 성균관에서 2차 시험을 보아 33인을 뽑았는데, 이것을 복시라고 한다.

초시와 복시는 다같이 삼장(三場)으로 초·중·종장이 있었다. 초시의 초장은 사서오경과 논(論) 중에서 두 편, 중장에서는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중에서 한 편, 종장에서는 대책(對策) 한 편을 시험했다. 복시의 초장에서는 사서삼경의 배강(背講), 중장과 종장은 초시 때의 과목과 같았다.

복시의 합격자 33인은 다시 궁궐 안의 전정(殿庭)에서 임금이 친히 시험을 보았는데, 이를 전시(殿試)라고 했다.

전시에서는 임금이 친히 나와 대책·표·전·잠·송·조(詔) 중에서 한 편을 골라 치르게 했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문과에서는 갑과(甲科) 3명(제1등을 장원이라 하고, 제2등을 방안(榜眼) 또는 아원(亞元)이라 하였으며, 제3등을 탐안(探花)이라고 했다.),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으로 도합 33명을 선발하여 금방(金榜)을 내걸었으며, 이들에게는 홍패(紅牌)를 주었다.

처음에는 을과·병과·동진사(同進士)로 구분하였다가, 태종 14년에 을과 1·2·3등으로 바꾸었고, 세종 때에 동진사를 정과(丁科)¹²⁾로 바꾸었다. 세조 12년에 갑·을·병과로 바꾼 후 그대로 정착되었다. 문과의 응시자격은 법제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죄를 범하여 영구히 관직에 임명될 수 없게 된 사람, 국가 재정을 횡령한 관리의 아들, 재가했거나 실행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 자손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한 문무(文武)과는 정 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 이하, 생원진사시에는 정 5품 통덕랑(通德郎)

12) 세종 20년 식년시부터 을과, 병과, 정과 등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이하가 응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사유는 주로 신분상의 문제이며 1417년(태종 17)에 정해진 과거법에 의하면 문과에 응시하려면 성균관 유생으로 원점(圓點) 300점을 따야 한다. 원점이란 성균관 출석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성균관 식당에 아침, 저녁 두끼를 참석하면 원점 하나로 계산해 주었다. 따라서 원점 300점을 따는 것은 300일을 성균관에서 수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균관에 들어가 약 1년간 수학해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점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아 원점을 줄여주기도 하고 영조 이후에는 아예 원점을 묻지 않았으며 생원·진사가 아니어도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문과에 응시하여 금의환향(錦衣還鄉)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를 녹명(錄名)에서 유가(遊街)까지라고 하는데, 녹명(응시서류의 제출)을 말하는 것이며, 시지(試紙)의 구입, 시험장 입장과 자리 배치, 시험문제 풀기, 답안지 제출과 채점, 급제자 발표(출방, 出榜), 급제자 축하연(은영연, 恩榮宴), 금의환향(유가, 遊街) 등을 말하며, 방목(榜目)의 작성과 반포까지 이루어져야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다.

문과시험의 주관은 예조와 성균관에서 하였는데, 응시자는 시험 전에 녹명을 하여야 한다. 시험 10일 전에 녹명소(錄名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뒤에는 입문(入門)할 때 녹명하는 일이 많았다.

녹명소에 제출하는 응시원서에는 성명, 본관, 거주지와 부·조·증조·외조부의 관직과 이름, 본관을 기록한 사조단자(四祖單子)를 제출하여야 한다.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사조단자 이외에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보단자란 6품 이상의 조관(朝官)이 서압(署押)한 신원보증서이다. 사조(四祖)안에 현관(顯官, 종9품 이상의 관원)이 없는 경우에 지방 응시자는 경재소 관원 3인, 서울의 응시자는 해당 부의 관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만약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관원은 파직하고 응시자는 수군(水軍)에 충정하였다.

녹명관은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통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신분상의 응시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녹명책에 기입한다.

시지(試紙)는 응시자들이 각자 구입하여 그 끝에 본인의 관직, 이름, 본관, 거주지와 부·조·증조부의 관직과 이름, 외조부의 관직과 이름, 본관 등을 다섯줄로 쓰고 관리들이 누구의 시험지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그 위를 종이로 붙여 봉하였는데, 이같이 이름을 가리는 것을 봉미법(封彌法)이라 한다.

시험장 입장과 자리배치는 입문관이 시험보는 날 새벽에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가 녹명책을 보고 호명하여 들여보낸다. 수협관(搜挾官)은 문밖에서 응시자들의 옷과 소지품을 검색한다. 만약 책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발각되면 금란관(禁亂官)에게 넘겨진다. 입장이 끝나면 입문관은 수험생들을 6자 간격으로 떼어 앉히고 금란관은 문을 잠그어 잡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문과는 삼장연권법(三場連券法) 또는 동당삼장(東堂三場)이라 하여 초장(初場)이 끝난 하루 뒤에 중장(中場), 중장이 끝난 하루 뒤에 종장(終場)을 보았다. 시험과목은 초장에는 경학(經學), 중장에는 시(詩)·부(賦)·표(表), 종장에는 시무책(時務策)을 보았다.

초장의 경학시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이다. 강경은 경서를 대상으로 하는 구술시험이고, 제술은 논

문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필답시험이다. 제술은 의의(疑義)라고도 한다. 강경에는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하는 배강(背講)과 책을 보고 답하는 임문고강(臨文考講)이 있다.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의 시험 과목이 조금씩 다르다.

답안 작성이 끝나면 수권소(收券所)에 낸다. 시험지는 낸 순서대로 100장씩 묶어 봉미관(封彌官)에게 넘긴다. 봉미관, 등록관(謄錄官), 사동관(査同官), 교동관(校同官)의 손을 거쳐 시관(試官)에 넘겨지면 시관은 채점을 하여 과차(科次)를 정한다. 채점은 통(通)·약(略)·조(粗)·불(不)의 4등급으로 나누어 통은 2분, 약은 1분, 조는 0.5분으로 계산하여 초·복시를 막론하고 3장의 성적을 통산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였다. 과차는 上·中·下, 二上·二中·二下, 三上·三中·三下の 9등으로 나누고 3下를 一分으로 정한다.

복시에 합격한 33인은 다시 전시를 보았는데, 전시에서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왕이 갑과(甲科) 3인, 을과(乙科) 7인, 병과(丙科) 23인을 성적에 따라 정하였다.

급제자 발표를 출방(出榜)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수를 매겨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출방 때에는 창방의(唱榜儀)가 거행되는데 국왕과 종친, 문무백관이 참석하였다. 주악(奏樂)이 울리고 호명(呼名)에 따라 문과급제자는 오른편에, 무과급제자는 왼편에 늘어서서 국왕에게 사배례(四拜禮)를 한다.

문과급제자에게는 이조정랑이, 무과 급제자에게는 병조정랑이 홍지에 합격한 사람의 '직위, 성명, 합격등급·성적순위·연월일'을 삼행(三行)으로 적고 그 위에 대보를 찍은 홍패(紅牌)를 준다. 그리고 국왕이 어사화(御賜花)와 개(蓋)와 주과(酒果)를 내린다.

이들 급제자는 정부가 별도로 축하연을 베풀어주는데, 이를 은영연

(恩榮宴)이라고 한다. 은영연이 끝난 다음 날, 급제자들은 모두 문과 장원의 집에 모여 예궐(詣闕)하여 국왕에게 사은례(謝恩禮)를 드린다. 그 다음날에는 무과 장원의 집에 모여 문묘에 가서 알성례(謁聖禮)를 올린다. 그리고 나서 친척 친지를 불러 잔치를 하거나 선배의 집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거나 시관을 초대하여 은문연(恩門宴)을 열기도 한다. 이렇게 함께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동방(同榜)이라고 하였다. 동방을 동년(同年)이라고도 불렀는데, 서로 우의가 두터워서 형제처럼 지냈으며, 동년의 아들은 아버지의 동년을 만나면 아무리 연소하더라도 아버지처럼 대하였다. 동방들은 장원을 존칭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장원이라고만 불렀다. 장원을 보면 달려가서 절을 하되 음은 하지 않았으며 나란히 걸지도 않았고, 성균관에서는 장원을 상좌에 앉히는 것이 관례였다.

급제자에게는 유가(遊街)가 허락되었는데, 말을 탄 급제자를 천동(天童)이 앞에서 인도하고,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며, 광대가 춤을 추고, 재인이 잡희(雜戲, 재주)를 부리며 3일 내지 5일간 시가를 행진하였다.

시골 출신이 고향에 내려가면 그곳 수령과 향리들의 환영을 받고 유가를 하였으며, 향교에서 알성례(謁聖禮)를 마치면 수령이 급제자와 그 부모를 불러 주연을 베풀어 주었으므로, 이를 금의환향(錦衣還鄉)이라고 하였다.

예문관(藝文館)에서는 급제자의 성명, 자, 생년간지, 본관, 거주지, 부모의 관직과 성명, 양친 생존여부, 형제의 이름 등을 기록한 방목(榜目)을 작성하여 중외(中外)에 반포하였는데, 이것을 문무과 방목(文武科榜目)이라고 한다.

3. 안성출신의 문과급제자

조선시대에 시행된 문과는 1392년(태조 1)부터 과거가 폐지되는 1894년(고종 31)까지 모두 750회¹³⁾에 달하며, 배출된 15,000여명의 급제자 명부가 단회방목 뿐 아니라 전 시기의 방목이 집성된 종합방목에 들어 있다. 그리고 종합방목은 『국조방목(國朝榜目)』(국회도서관, 1971), 『국조방목(國朝榜目)』(영남문화사, 1987), 『국조방목(國朝榜目)』(태학사, 1988) 등이 영인 출판되었으며, 디지털(digital) 한국학을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들 방목에 오른 15,000여명의 급제자 가운데 61%인 9,150여명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조선시대 안성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10여년전 원창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¹⁴⁾ 조선시대 안성군(安城郡) 출신의 문과 급제자의 수는 7명이라고 하였는데, 필자의 조사로는 놀랍게도 모두 29명¹⁵⁾에 이른다.

13) 조선조 문과시험의 실행 횟수는 연구자들에 따라 각각 다르다. 김영모(『조선지배층연구』, 1977)는 식년시 162회, 증광시 56회, 각종별시 571회로 보았다. 송준호와 Wagner는 식년시 163회, 증광시 68회, 각종별시 513회로 분류하였다. 차장섭(『조선전기 문과급제자 성분』, 『조선사연구』3, 1994, :『조선후기 문과급제자 성분』, 『대구사학』47, 1994)은 식년시 163회, 증광시 59회, 각종별시 523회로 하였다. 원창애(『조선시대 문과급제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은 식년시 162회, 증광시 63회 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종 별시의 경우인데, 중시의 별시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증광시의 횟수 역시 증광시로 보느냐 별시로 보느냐에 따라 횟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4)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15) 이들 29명에 포함된 인물 중에는 『문과방목』에는 거주지가 서울(京) 또는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도 있는데, 이들의 고향이 서울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안성이 고향이거나 부친이 벼슬살이로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나 집을 마련하여 서울에 거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진사나 생원시 입격자 방목인 『사마방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으며, 개인의 문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안성출신의 문과 급제자의 숫자는 더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 열거된 문과 급제자는 명단(名單)은 조선시대 안성에서 배출한 문과급제자의 3분에 2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안성지역의 문과 급제자들이 인근 지역보다 적은 이유로는 우선 시험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식년시의 경우 정해진 시기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급제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지방과의 차이가 적는데 비해, 비정기 시험인 증광시(增廣試)를 비롯한 특별시험인 각종 별시(別試, 외방별시(外方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중시(重試)·발영시(拔英試)·등준시(登俊試)·도과(道科)) 등의 경우 임의적으로 개최되기 쉬우므로 서울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거주자들이 유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안성출신 문과 급제자의 성명과 합격년도, 자와 호를 비롯해 본관과 부의 성명 등의 간략한 신상을 합격연도 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시대 과거급제자 명단

고려시대 과거급제자는 출신지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안성출신의 과거급제자를 찾아내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으로 안성을 본관으로 삼는 씨족의 인물을 대체로 기술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였다.

1) 김돈(金墩, 생몰년 미상)¹⁶⁾

안성김씨 시조로 안성에서 출생하였는데, 그의 선대는 신라시대

16) 본책 인물편 참조

안성군(安城君) 재영(再英)의 후손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설에 돈(敦)자로도 알려지고 있으며, 고려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후 한림 학사를 거쳐 금자광록대부에 올라 상서좌복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들은 김돈의 출신지인 안성을 관향으로 삼고, 그로부터 세계(世系)를 이어왔다고 한다.

《참고문헌》

『고려사』·『고려사절요』·『방목열기(榜目列記)』·『안성김씨대동보』.

2) 김유성(金有成, 1236~1307)¹⁷⁾

본관은 안성으로 상서좌복야 김돈의 아들로 고려 고종 37년에 15세의 나이로 탁감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이에 덕원부서기(德原府書記)를 거쳐 동문원녹사(同文院錄事)를 역임하였다. 1273년(원종 14)에 원나라의 세조가 일본을 선무하고자 비서감 조양필(趙良弼)을 파견할 때 서장관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을 설복시키고 귀국, 그 공으로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되었다. 1292년 원나라에서 홍군상(洪君祥)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앞서 우리나라에서 포로로 잡고 있던 일본인을 돌려보낼 것과 아울러 일본을 설복시켜 원나라에 복속하도록 할 것을 종용해오자, 다시 선위사가 되어 서장관 곽린(郭麟)과 함께 호송과 설복의 임무를 띠고 일본에 건너갔다가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고려사절요』·『방목열기(榜目列記)』·『안성김씨대동보』·일본 청류남명 著, 『조선사 천년사』.

17) 본책 인물편 참조

3) 김우정(金于正, 생몰년 미상)¹⁸⁾

본관은 안성이고, 첩의평리 김유성(金有成)의 둘째 아들이다. 고려 말의 명유 역동 우탁(禹倬)선생의 문집 『상현록(尙賢錄)』에 고려 충렬왕 16년(1290) 5월에 정당문학 설재 정가신(鄭可臣)이 지공거로 과시한 과거에서 역동 우탁선생과 동방급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국학진사 김우정(國學進士金字正)... 우정(于正) 또는 천정(千正)이라고도 부르며, 일명 자정(子正)이라고도 하고 부(父)는 유성(有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고려사』·『고려사절요』·『상현록』·『방목열기(榜目列記)』·『안성김씨대동보』.

(2)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명단.

1) 박심문(朴審問)¹⁹⁾

- 세종(世宗) 18년(병진, 1436년), 친시(親試) 병과(丙科)3
- 인적사항

생년(生年)	1408년(태종 8)
자(字)	신숙(愼叔)
호(號)	청재(淸齋)
본관(本貫)	밀양(密陽)
諡號, 封號	문헌(文憲), 충정(忠貞)
거주지(居住地)	

18) 본책 인물편 참조

19) 본책 인물편 박심문 참조

• 가족사항

부(父)	박강생(朴剛生)
조부(祖父)	박침(朴忱)
증조부(曾祖父)	박사경(朴思敬)
외조부(外祖父)	윤승경(尹承慶)
처부(妻父)	한승순(韓承舜)
형(兄)	박절문(朴切問)
자(子)	박충원(朴忠元)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관직(官職)

2) 윤필상(尹弼商)²⁰⁾

• 문종(文宗) 원년(경오, 1450),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7

• 인적사항

생년(生年)	1427년(丁未, 세종 9)
자(字)	탕좌(湯佐)
호(號)	청봉(晴峯), 청산(淸山)
본관(本貫)	과평(坡平)
거주지(居住地)	
諡號, 封號	적개공신(敵愾功臣) 과평부원군(坡平府院君)

• 가족사항

부(父)	윤경(尹堦)
조부(祖父)	윤희제(尹希齊)

20) 본책 인물편 윤필상 참조

증조부(曾祖父)	윤곤(尹坤)
외조부(外祖父)	이목(李霖)
처부(妻父)	성허(成栩)
숙(叔)	윤배(尹培)

• 이력 및 기타사항

다른문과합격	1457년(丁丑, 세조 3) 중시(重試) 정과(丁科)4
소과(小科)	생원시(生員試)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영의정(領議政)

3) 송극창(宋克昌)²¹⁾

- 단종(端宗) 1년(계유, 1453), 증광시(增廣試) 정과(丁科)13

• 인적사항

생년(生年)	1431년(辛亥, 세종 13)
자(字)	파로(坡老)
호(號)	
본관(本貫)	여산(礪山)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자(子)	송천희(宋千喜)
부(父)	송윤(宋倫)
조부(祖父)	송충손(宋忠孫)

21) 세종 10년 10월 28일 안성(安城) 사람 학생(學生) 송윤(宋倫)은 그 형 세 사람이 있었는데, 윤이 막내아들로서 3년간의 여묘(廬墓)를 마치고는 다시 분묘 곁에 여막(廬幕)을 얹어 세우고 소식(素食)하면서 모시기를 또 4년이나 하였다 하옵니다. 송극창은 송윤의 아들이다.

증조부(曾祖父) 송순(宋珣)
외조부(外祖父) 채이(蔡怡)
처부(妻父) 정극종(鄭克從)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부정(副正)

4) 박원충(朴元忠)²²⁾

- 세조(世祖) 5년(기묘, 1459), 식년시(式年試) 정과(丁科)16

- 인적사항

생년(生年)

자(字)

호(號)

본관(本貫) 밀양(密陽)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박심문(朴審問)

조부(祖父) 박강생(朴剛生)

증조부(曾祖父) 박침(朴忱)

외조부(外祖父) 한승순(韓承舜)

처부(妻父) 최윤용(崔允庸)

제(弟)

22) 본책 인물편 박심문 참조, 원충은 그의 아들.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현감(縣監)

5) 송천희(宋千喜)²³⁾

- 성종(成宗) 20년(기유, 1489),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7

- 인적사항

생년(生年)

자(字) 구부(懼夫)

호(號)

본관(本貫) 여산(礪山)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부(父) 송극창(宋克昌)

조부(祖父) 송윤(宋倫)

증조부(曾祖父) 송충손(宋忠孫)

외조부(外祖父) 정극종(鄭克從)

처부(妻父)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생원시(生員試)

전력(前歷)

관직(官職) 이조판서(吏曹判書)

23) 송천희는 송윤의 손자이자, 송극창의 아들이다.

6) 유운(柳雲)

- 연산군(燕山君) 10년(갑자, 1504),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3
- 인적사항

생년(生年) 1485년(乙巳, 성종 16)

자(字) 종룡(從龍)

호(號) 항재(恒齋)

본관(本貫) 문화(文化)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유공좌(柳公佐)

조부(祖父) 유양손(柳良孫)

증조부(曾祖父) 유효반(柳孝班)

외조부(外祖父)

처부(妻父) 이수손(李守孫)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501년(신유) 진사시

전력(前歷) 진사(進士)

관직(官職) 호당(湖堂)

7) 유인숙(柳仁淑)²⁴⁾

- 중종(中宗) 5년(경오, 1510),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18
- 인적사항

생년(生年) 1485년(乙巳, 성종 16)

24) 본책 인물편 참조.

자(字) 원명(原明)
 호(號) 정수(靜叟)
 본관(本貫) 진주(晉州)
 諡號, 封號 문정(文貞)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유문통(柳文通)
 조부(祖父) 유종식(柳宗植)
 증조부(曾祖父) 유의(柳依)
 외조부(外祖父) 이추(李抽)
 처부(妻父) 이양(李馱)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507(정묘) 생원시·진사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찬성(贊成)

8) 고한정(高漢鼎)

- 중종(中宗) 8년(계유, 1513),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7
- 인적사항

생년(生年)

자(字) 국보(國寶)

호(號)

본관(本貫) 제주(濟州)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외조부(外祖父)

처부(妻父)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510년(경오)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전적(典籍)

9) 곽지선(郭止善)²⁵⁾

• 선조(宣祖) 21년(무자, 1588),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6

• 인적사항

생년(生年) 1553년(癸丑, 명종 8)

자(字) 거이(居易)

호(號)

본관(本貫) 현풍(玄風)

거주지(居住地) 안성(安城)

• 가족사항

부(父) 곽율(郭慄)

조부(祖父) 곽순충(郭純忠)

증조부(曾祖父) 곽계원(郭季元)

25) 박양진, 『방목열기(榜目列記)』, p.319, 2000.10.30.

외조부(外祖父)

처부(妻父) 이언항(李彦恒), 이완(李完)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582년(임오) 진사시

전력(前歷) 진사(進士)

관직(官職) 정랑(正郎)

10) 곽천호(郭天豪)²⁶⁾

- 선조(宣祖) 38년(을사, 1605),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8

- 인적사항

생년(生年) 1568년(戊辰, 선조 1)

자(字) 정부(挺夫)

호(號)

본관(本貫) 현풍(玄風)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부(父) 곽호선(郭好善)

조부(祖父) 곽울(郭慄)

증조부(曾祖父) 곽순충(郭純忠)

외조부(外祖父) 권보(權輔)

처부(妻父) 유공준(柳公準), 홍순검(洪純儉)

숙(叔) 곽지선(郭止善)

26) 『응천일록(凝川日錄)』3에 따르면, 인조 계해(1623 ; 인조 1년) 8월 12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곽천호(郭天豪)는 안성(安城)사람으로 청주(淸州)에 정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곽천호는 앞에 언급된 곽지선의 조카이다.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603년(계묘) 생원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교리(校理)

11) 이정명(李廷明)

- 광해군(光海君) 12년(경신, 1620년), 정시(庭試) 병과(丙科)4
인적사항

- 생년(生年) 1580년(庚辰, 선조 13)

자(字) 회언(晦彦)

호(號)

본관(本貫) 광주(廣州)

-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가족사항

부(父) 이억남(李嶷男)

조부(祖父) 이이관(李以觀)

증조부(曾祖父) 이수함(李守誠)

외조부(外祖父) 김지박(金之璞)

처부(妻父) 이덕남(李德男)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606년(병오) 생원시

전력(前歷) 사정(司正)

관직(官職) 전적(典籍)

12) 곽천성(郭天成)²⁷⁾

- 광해군(光海君) 13년(신유, 1621년), 알성시(謁聖試) 을과(乙科)3
- 인적사항

생년(生年) 1590년(庚寅, 선조 23)

자(字) 혼연(渾朕)

호(號)

본관(本貫) 현풍(玄風)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부(父) 곽지선(郭止善)

조부(祖父) 곽울(郭慄)

증조부(曾祖父) 곽순충(郭純忠)

외조부(外祖父) 이언항(李彦恒)

처부(妻父)

형(兄) 교리를 지낸 천호(天豪)의 종제(從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615년(을묘) 진사시

전력(前歷) 진사(進士)

관직(官職) 원정(院正) 인조반정과 동시 삭출(削黜)

13) 윤익형(尹益亨)

- 인조(仁祖) 20년(임오, 1642년),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19
- 인적사항

생년(生年) 1602년(壬寅, 선조 35)

27) 앞의 곽지선(郭止善)의 아들.

자(字)	중겸(仲謙)
호(號)	
본관(本貫)	과평(坡平)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부(父)	윤정(尹瑄)
조부(祖父)	윤시침(尹時忱)
증조부(曾祖父)	윤화(尹和)
외조부(外祖父)	김선여(金善餘)
처부(妻父)	이희민(李希閔)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진사시
전력(前歷)	진사(進士)
관직(官職)	사예(司藝)

14) 홍우원(洪宇遠)

- 인조(仁祖) 23년(을유, 1645년), 별시(別試) 병과(丙科)9
- 인적사항

생년(生年)	1605(乙巳, 선조 38)
자(字)	군징(君徵)
호(號)	남과(南坡)
본관(本貫)	남양(南陽)
거주지(居住地)	
시호(諡號, 封號)	문간(文簡)

• 가족사항

부(父)	홍영(洪榮)
조부(祖父)	홍가신(洪可臣)
증조부(曾祖父)	홍온(洪溫)
외조부(外祖父)	허성(許箴)
처부(妻父)	이광정(李光庭), 권겸(權謙)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유학(幼學)
관직(官職)	이조판서(吏曹判書)

15) 우규(禹糾)²⁸⁾

- 효종(孝宗) 4년(계사, 1653년), 별시(別試) 병과(丙科)6

• 인적사항

생년(生年)	1619(己未, 광해군 11)
자(字)	이정(而正)
호(號)	
본관(本貫)	단양(丹陽)
거주지(居住地)	안성(安城)

• 가족사항

부(父)	우필량(禹弼亮)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28) 국회사서관, 『국조방목(國朝榜目)』 1971. ; 박양진, 『방목열기(榜目列記)』, 431p. 2000. 10. 30.

외조부(外祖父)

처부(妻父)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650년(경인) 생원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찰방(察訪)

16) 조영복(趙榮福)²⁹⁾

- 숙종(肅宗) 40년(갑오, 1714년),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2

- 인적사항

생년(生年) 1672년(壬子, 현종 13)

자(字) 석오(錫五)

호(號) 이지(二知)

본관(本貫) 함안(咸安)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조해(趙楷)

조부(祖父) 조봉원(趙逢源)

증조부(曾祖父) 조일(趙鎰)

외조부(外祖父) 강유(姜游)

처부(妻父) 여필관(呂必寬), 정찬헌(鄭纘憲)

숙(叔) 조근(趙根)

자(子) 조중회(趙重晦)

29) 본책 인물편 참조.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705년(을유) 진사시
 전력(前歷) 군수(郡守)
 관력(官歷) 유수(留守)

17) 이만동(李萬東)³⁰⁾

- 경종(景宗) 1년(신축, 1721년),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5
- 인적사항

생년(生年) 1681년(辛酉, 숙종 7)
 자(字) 종백(宗伯)
 호(號)
 본관(本貫) 연안(延安)
 거주지(居住地) 안성(安城)

• 가족사항

부(父) 이필(李泌)
 조부(祖父) 이귀징(李龜徵)
 증조부(曾祖父) 이완(李烷)
 외조부(外祖父) 유명하(柳命河)
 처부(妻父) 이만첨(李萬瞻)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유학(幼學)

30) 국회도서관, 『국조방목(國朝榜目)』 197. ; 박양진, 『방목열기(榜目列記)』, 542p, 2000.
 10. 30.

관직(官職) 현감(縣監)

18) 유취기(兪最基)

- 경종(景宗) 3년(계묘, 1723년),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17
- 인적사항

생년(生年) 1689년(己巳, 숙종 15)

자(字) 양보(良甫)

본관(本貫) 기계(杞溪)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유명건(兪命健)

조부(祖父) 유철(兪徹)

증조부(曾祖父) 유성증(兪省曾)

외조부(外祖父) 안후선(安後宣)

처부(妻父) 정형익(鄭亨益)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통덕랑(通德郎)

관직(官職) 참찬(參贊)

19) 서명구(徐命九)

- 숙종(肅宗) 43년(정유, 1717년),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15
- 인적사항

생년(生年) 1692년(壬申, 숙종 18)

자(字) 우경(虞卿)

호(號) 약허(若虛)

본관(本貫)	달성(達城)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서종신(徐宗愼)
조부(祖父)	서문도(徐文道)
증조부(曾祖父)	서형리(徐亨履)
외조부(外祖父)	김회영(金會英)
처부(妻父)	이?신(李?申)
자(子)	서효수(徐孝修)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유학(幼學)
부친관력	대사헌(大司憲)

20) 조중회(趙重晦)³¹⁾

- 영조(英祖) 12년(병진, 1736년), 정시(庭試) 병과(丙科)5
- 인적사항

생년(生年)	1711년(辛卯, 숙종 37)
자(字)	익장(益章)
호(號)	
본관(本貫)	함안(咸安)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조영복(趙榮福)

31) 본책 인물편 조영복의 아들.

조부(祖父)	조해(趙楷)
증조부(曾祖父)	조봉원(趙逢源)
외조부(外祖父)	정찬헌(鄭纘憲)
처부(妻父)	이관명(李觀命)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통덕랑(通德郎)
관력(官歷)	옥당(玉堂)

21) 서효수(徐孝修)

- 영조(英祖) 20년(갑자, 1744년), 정시(庭試) 병과(丙科)1
- 인적사항

생년(生年)	1716년(丙申,)
자(字)	여원(汝源)
호(號)	
본관(本貫)	달성(達城)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서명구(徐命九)
생부(生父)	서명형(徐命珩)
조부(祖父)	서종신(徐宗愼)
증조부(曾祖父)	서문도(徐文道)
외조부(外祖父)	이도명(李道命)
처부(妻父)	이언신(李彦臣)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738년(무오) 진사시

전력(前歷) 진사(進士)

관력(官歷) 교리(校理)

22) 심필(沈鎰)³²⁾

- 영조(英祖) 25년(기사, 1749년), 춘당대시(春塘臺試) 병과(丙科)3

- 인적사항

생년(生年) 1716년(丙申, 숙종 42)

자(字)

호(號)

본관(本貫) 청송(靑松)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심수현(沈壽賢)

조부(祖父) 심유(沈濡)

증조부(曾祖父) 심약한(沈若漢)

외조부(外祖父) 안후진(安後震)

처부(妻父) 윤용(尹容)

형(兄) 육(鎔), 관(鑰)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32) 국회도서관, 『국조방목(國朝榜目)』 1971 ; 박양진, 『방목열기(榜目列記)』, 542p, 2000. 10. 30.

전력(前歷) 유학(幼學)
관직(官職) 후일 급제가 취소되고 유배되다.

23) 이시항(李時沆)³³⁾

- 영조(英祖) 28년(임신, 1752년), 정시(庭試) 병과(丙科)19
- 인적사항

생년(生年) 1678년(戊午, 숙종 4)

자(字) 태초(太初)

호(號)

본관(本貫) 전주(全州)

거주지(居住地) 안성(安城)

- 가족사항

부(父) 이태성(李泰成)

조부(祖父) 이형영(李馨英)

증조부(曾祖父) 이경익(李景益)

외조부(外祖父) 노상의(盧尙義)

처부(妻父) 권병상(權秉常)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1702년(임오) 생원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도사(都事) 판결사(判決事)

33) 국회도서관, 『국조방목(國朝榜目)』 1971 ; 박양진, 『방목열기(榜目列記)』, 542p, 2000 10. 30.

24) 이방린(李芳隣)³⁴⁾

• 영조(英祖) 30년(갑술, 1754년), 함경도도과문과시(咸鏡道道科文科試) 병과(丙科)2

• 인적사항

생년(生年)

자(字)

호(號)

본관(本貫)

거주지(居住地) 안성(安城)

• 가족사항

부(父) 이질(李鎭)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외조부(外祖父)

처부(妻父)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유학(幼學)

관직(官職)

※ 이방린은 안성 출신이나 과제로 급제가 취소되었다. 『영조실록』 영조 30년 갑술(1754, 건륭 19) 2월 15일조에 따르면, 문과에

34) 국회도서관, 『국조방목(國朝榜目)』 1971.; 박양진, 『방목열기(榜目列記)』, 542p, 2000. 10. 30.

뿔힌 이방린(李芳隣)이 남의 손을 빌어 제술(製述)하였기 때문에 방목(榜目)에서 빼냈다. 이방린은 안성(安城) 사람인데, 창명(唱名)한 뒤에 임금이 제술한 것을 외라고 명하였으나 이방린이 한 구절도 외지 못하였고, 또 시권(試券)을 읽으라고 명하였는데 이방린이 미미(麤麤)를 첩첩(疊疊)이라고 읽었다. 승지 홍낙성(洪樂性)이 말하기를, “이방린은 미미를 몰라서 첩첩이라 읽었으니, 학문이 없다는 것을 알만 합니다. 과장을 엄하게 하는 도리로서는 결코 급제를 내릴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도과(道科)가 비록 위로하여 기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과장은 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그 말을 따르고 10년 동안 정거(停擧)하라고 명하였다.

25) 유언호(兪彦鎬)

- 영조(英祖) 37년(신사, 1761년), 정시(庭試) 병과(丙科)

- 인적사항

생년(生年) 1730년(庚戌, 영조 6)

자(字) 사경(士京)

호(號) 칙지헌(則止軒)

본관(本貫) 기계(杞溪)

거주지(居住地) 안성(安城)

- 가족사항

부(父) 유직기(兪直基)

조부(祖父) 유명건(兪命健)

증조부(曾祖父) 유철(兪徹)

외조부(外祖父) 김유경(金有慶)

처부(妻父) 민우수(閔遇洙)
 숙(叔) 우참찬 최기(最基)는 숙(叔)이고, 영의정 척기(拓基)는 종숙(從叔)이다.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통덕랑(通德郎)
 관직(官職) 좌의정(左議政)

26) 강찬(姜蕡)³⁵⁾

- 현종(憲宗) 10년(갑진, 1844년), 증광시(增廣試) 갑과(甲科)3
- 인적사항

생년(生年) 1787년(丁未, 종조 11)

자(字)

호(號)

본관(本貫) 진주(晉州)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강이천(姜彝天)

조부(祖父) 강흔(姜侁)

증조부(曾祖父) 강세황(姜世晃)

외조부(外祖父) 송책(宋策)

처부(妻父)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35) 본책 인물편 강기 참조

소과(小科)

전력(前歷)

현감(縣監)

관직(官職)

중추원일등의관

27) 조병필(趙秉弼)³⁶⁾

- 고종(高宗) 8년 (신미, 1871년), 별시(別試) 병과12(丙科12)

- 인적사항

생년(生年)

을미1835(乙未1835)

자(字)

성필(聖弼)

호(號)

본관(本貫)

풍양(豐壤)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부(父)

조귀영(趙龜永)

조부(祖父)

조운함(趙雲咸)

증조부(曾祖父)

조항진(趙恒鎭)

외조부(外祖父)

홍승연(洪升淵)

처부(妻父)

- 제(弟)

조병익(趙秉翊)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유학(幼學)

관직(官職)

36) 조병필은 조병익과 형제이며, 본책 인물편 참조

28) 조병익(趙秉翊)³⁷⁾

- 고종(高宗) 14년(정축, 1877년), 별시(別試) 병과(丙科)10
- 인적사항

생년(生年) 1844년(甲辰, 헌종 10)

자(字) 성건(聖建)

호(號)

본관(本貫) 풍양(豐壤)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조운성(趙雲成)

조부(祖父) 조귀영(趙龜永)

증조부(曾祖父) 조항진(趙恒鎭)

외조부(外祖父) 홍승연(洪升淵)

처부(妻父)

형(兄) 조병필(趙秉弼)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유학(幼學)

관직(官職)

29) 한인호(韓麟鎬)³⁸⁾

- 고종(高宗) 26년(기축, 1889년),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14
- 인적사항

37) 본책 인물편 참조.

38) 본책 인물편 한규직의 아들.

생년(生年) 1871년(辛未, 고종 8)

자(字)

호(號)

본관(本貫) 청주(淸州)

거주지(居住地)

• 가족사항

부(父) 한규직(韓奎稷)

조부(祖父) 승렬(承烈)

증조부(曾祖父) 의식(義植)

외조부(外祖父) 윤석만(尹錫萬)

처부(妻父) 유길노(柳吉魯)

숙(叔) 한규설(韓圭髙)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유학(幼學)

관력 옥당, 승지(承旨)

(3) 안성을 본관으로 하는 문과급제자 명단

이숙번(李叔蕃)

1393년(계유년, 태조 2) 식년시(式年試)에 병과(丙科)7인으로 합격.

1373년(癸丑) 출생. 본관은 안성(安城). 생원(生員) 합격자. 찬성(贊成)을 지냄.

이숙인(李叔仁)

1492년(임자년, 성종 23) 식년시(式年試)에 병과(丙科)23인으로 합격. 본관은 안성(安城). 자는 중원(仲元). 전력부위(展力副尉) 합격자. 사예(司藝)을 지냄.

이양현(李良鉉)

1477년(정유년, 성종 8) 춘당대시(春塘臺試)에 병과(丙科)23인으로 합격. 본관은 안성(安城). 교수(教授) 합격자. 현령(縣令)을 지냄.

이기남(李期男)

1568년(무진년, 선조 1),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13인으로 합격. 1535년(乙未) 출생. 본관은 안성(安城). 자는 경우(慶遇). 진사(進士) 합격자. 서윤(庶尹)을 지냄.

이석록(李錫祿)

1725년(을사년, 영조 1) 정시(庭試)에 병과(丙科)16인으로 합격. 1687년(丁卯) 출생. 본관은 안성(安城). 자는 대응(大膺). 유학(幼學) 합격자. 군수(郡守)을 지냄.

이석복(李錫福)

1730년(경술년, 영조 6) 정시(庭試)에 병과(丙科)11인으로 합격. 1694년(甲戌) 출생. 본관은 안성(安城). 자는 계옹(季膺). 진사(進士) 합격자. 장령(掌令)을 지냄.

이협심(李協心)

1804년(갑자년, 순조 4) 춘당대시(春塘臺試)에 병과(丙科)4인으로 합격. 1777년(丁酉) 출생. 본관은 **안성(安城)**. 유학(幼學) 합격자.

이형우(李亨宇)

1792년(임자년, 정조 16), 식년시(式年試)에 을과(乙科)3인으로 합격. 1736년(丙辰) 출생. 본관은 **안성(安城)**. 유학(幼學) 합격자.

이취영(李取榮)

1880년(경진년, 고종 17)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33인으로 합격. 1836년(丙申) 출생. 본관은 **안성(安城)**. 자는 성여(誠如). 유학(幼學) 합격자.

4. 무과의 실행

우리나라에서 무과(武科) 시험이 처음 설행된 것은 조선 태종 2년(1402)이다. 조선왕조는 고려(高麗)와 달리 건국 당시부터 문무(文武)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여 태종대에 와서는 무과를 설행(設行)하는데까지 발전하였다. 더욱이 무과는 문과가 정기적으로 설행되는 식년시는 물론이고, 수시로 실시하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외방별시(外方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발영시(拔英試)·등준시(登俊試)·도과(道科) 등에도 모두 무과가 설치되었다. 합격자 발표의식에도 문무백관과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주악(奏樂)이 울리고 호명(呼名)에 따라 문과급제자는 오른편에, 무과급제자는 왼편에 들어서서 국왕에게 4배례(四拜禮)를 하는

창방의(唱榜義)를 거행하였다.

무과 급제자에게는 병조정랑이, 문과 급제자에게는 이조정랑이 홍패(紅牌)를 주고, 국왕이 어사화(御賜花)와 개(蓋)와 주과(酒果)를 내리는 등의 균형(均衡)있는 정책을 펼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회가 양반관료사회로 정착되면서 무인보다는 문인을 더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자연히 무과보다는 문과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모두 800여 회의 무과시험이 실행되었는데, 문과와 달리 종합방목이 만들어진 것이 없으며, 단회방목(單回榜目)도 100여 회분 정도가 국내에 남아있어 이를 통해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다.

무과의 과목은 크게 강서(講書)와 무예(武藝) 두 종류가 있었으며, 강서는 복시에만 있는 시험으로 사서오경(『자치통감』·『역대병요』·『장박감의』·『소학』·『무경』) 중의 하나를 각각 선택하여 『경국대전』과 함께 고강(考講)하였다. 무예는 조선전기에는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격구(擊毬) 등의 여섯 가지가 있었으나, 후기에는 유엽전(柳葉箭)·관혁(貫革)·조총(鳥銃)·편추(鞭芻)를 신설하고, 기사를 기추(騎芻)로 변경하고 격구를 폐지하였다. 식년시와 증광시를 제외한 무과는 무예 10기와 강서를 합한 11기 중에서 3기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렀다.

식년무과도 문과와 같이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세 단계의 시험이 있어 초시는 상식년 가을, 복시·전시는 식년 봄에 각각 거행하였다. 초시에는 원시(院試：訓練院試)와 향시가 있는데, 무예로 고시하였다. 원시는 훈련원이 주관하여 70명을 뽑았고, 향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주관하여 경상도 30명, 충청·전라도 각 25명, 강원·황해·영안·평안도 각 10명으로 총 190명을 뽑았다.

따라서 무과 초시의 합격자는 총 190명이었다. 경기도는 원시를 보도록 하였으므로 안성(安城)출신들은 수원이나 훈련원에 가서 시험을 보았을 것이다.

『속대전』에 의하면, 조선후기에는 초시의 시험장을 두 곳으로 나누고, 각 시험장에는 2품이상 1명, 당하관 문신 1명과 무신 2명을 시관, 감찰을 감시관으로 하였다. 복시는 초시합격자들이 식년 봄에 서울에 모여 병조와 훈련원의 주관 아래 강서와 무예로 시험을 보아 28명을 선발하였다.

전시에서는 복시합격자 28명을 다시 무예로 시험하여 등급을 정하고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 총 28명을 급제시켰다.

그러나 병자호란(丙子胡亂)시에는 산성무과를 실행한 적도 있고, 조선후기로 오면서 별시를 통해서 북쪽 변방과 제주 등지의 특정지역 출신들을 우대 선발하는가 하면 합격자 수가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등 일정치가 않았다.

그리하여 18세기 중반에 함평의 재지사족인 이명룡(李命龍, 1708~1789)은 1760년(영조 36)에 무과의 선발 인원이 300명을 넘어가자 ‘무과는 과거도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지적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각 지방의 사회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무과 제도의 변화나 운영을 비롯해 각 지역의 무과 급제자에 관한 연구도 매우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5. 안성출신의 무과급제자

조선은 문무(文武)를 중심으로 한 양반관료체제(兩班官僚體制)의

사회였다. 이 때문에 무신의 임용시험인 무과(武科) 역시 문과(文科)와 같이 대거(大擧)로서 실시되었지만, 조선의 통치규범(統治規範)이 문치주의(文治主義)를 표방하고 있어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경향이 있었다.

조선시대 무과시험은 모두 800여 회가 설행(設行)되었다고 하는데, 국내에 현전하는 방목은 100여 회분이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의 전모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들 100여 회분 단회방목(單回榜目)마저도 국내 여러 대학 및 도서관, 연구기관, 개인 등에 흩어져 있고, 공개나 열람이 안 되는 곳도 있어, 급제자 명부를 모두 파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정혜은의 연구에 따르면³⁹⁾, ‘광해군에서 고종 연간까지 무과 급제자의 총인원은 무려 1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하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아래에 열거된 무과 급제자 12명의 명단(名單)은 100여 회분 단회방목에서 조선시대 안성(安城)에서 배출된 무과급제자의 이름과 생년(生年), 자(字), 본관(本貫), 부명(父名)과 약간의 활약상을 찾아내어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조선시대 안성출신의 무과 급제자 중 약 10분에 1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1. 萬曆11年(1647년, 인조 25) 癸未 9月 3日 別試榜目

○ 保人 李忠一

字 敬夫 辛酉生

39) 정혜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本 安城 居 安城

父 朝散大夫 行平澤 縣監 贊 具慶下 鴈行

兄 忠恕 忠直

2. 癸未上之即位40年靜慶及上尊號合二慶大増廣別試文武科
殿試榜目(1713년)

○ 閑良 安源

字 善長 辛酉生

本 順興 居 安城

父 幼學 后靜 具慶下 鴈行

3. 上之三年癸卯討討迎廷試別試文武科榜目(1723년)

○ 通德郎 金世元

字 善甫 庚辰生

本 原州 居 安城

父 通政大夫 前行龜城都護府使 鼎夏 具慶下 鴈行

兄 世后

4. 英祖庚午式年文武科榜目(1724~1776, 英祖年間)

○ 閑良 崔宗大

字 仁叟 戊戌生

本 全州 居 安城

父 通德郎 恒祚 生父幼學 鳳祚 嚴侍下 鴈行

兄 宗鼎

5. 甲戌庭試文武榜目(1730년)

○ 副司果 俞彦達

字 義仲 丁丑生 本 杞溪 居 安城

父 學生 夏瞻 慈侍下 鴈行

弟 彦璋

6. 甲戌庭試文武榜目(1730년)

○ 閑良 尹大禧

字 庚辰 本 坡平 居 安城

父 幼學 希奭 下 鴈行

7. 庚午式年文武科榜目(1750년)

○ 閑良 崔宗大

字 仁叟 戊戌生

本 全州 居 安城

父 通德郎 恒祚

生父 幼學 鳳祚 嚴侍下 鴈行

兄 宗鼎

8. 癸未大增廣別試文武科榜目(1763년, 正祖 4)

○ 通德郎 李師徵

字 世胤 己巳生

本 公山 居 安城

父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杓 具慶下 鴈行

兄 恒徵 弟 鼎徵 庶兄 善徵 弟 龜徵

9. 王世子冊封慶龍虎榜(1784년, 正祖 8)

- 閑良 趙雲衢 年31세
本 豊壤 居 安城
父 通德郎 徽鎭

10. 王世子冊封慶龍虎榜(1784년, 正祖 8)

- 閑良 金鼎九 年31세
本 慶州 居 安城
父 幼學 商錫

11. 王世子冊封慶龍虎榜(1784년, 正祖 8)

- 通德郎 崔光浩 年32세
本 全州 居 安城
父 通德郎 弘鎭

12. 王世子冊封慶龍虎榜(1784년, 正祖 8)

- 閑良 金禹鉉 年42세
本 金海 居 安城
父 學生 德相

안성출신의 무과 급제자가 이들 외에도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무과방목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과 급제자들도 문과 급제자와 동일하게 과거에 합격하고 고향에 내려오게 되면 지방관이 배풀어주는 환영연에 참석하였다. 물론 먼

저 알묘(謁廟) 즉, 향교의 대성전에 모셔져 있는 공부자(孔夫子)와 선현들께 봉향(奉香)하는 의식을 치른 뒤에 가족이 참석한 환영연에 가서 그야말로 금의환향(錦衣還鄉)하였다는 칭송을 듣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거의 해마다 과거가 시행되다시피 하였으며, 무과는 문과와 동시에 설행되었다. 여기에서 합격한 인물들은 대개가 고향에 내려가 부모형제와 선산에 모셔져 있는 묘소에 참배를 하게 된다.

조선시대 문무과 급제자들이 고향에 내려오면 당연히 향교의 대성전에 알현하게 되는데, 내삼문을 통과하게 되면 문과 급제자는 오른쪽에 무과 급제자는 왼쪽에 도열하여 향장과 수령이 참여하여 고유와 분향의식을 행하였다.

《참고문헌》

1. 基礎資料：經國大典. 高麗史. 國朝榜目. 大典會通. 司馬榜目. 朝鮮王朝實錄. 榜目列記. 과거등록. 국사편찬위원회,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2. 研究論著

宋俊浩, 『李朝生員進士試의 研究』,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0.

柳浩錫, 「高麗時代 進士의 概念에 對한 檢討」, 『歷史學報』 21輯, 歷史學會, 1989.

李洪烈, 「司馬試의 出身과 榜會의 意義」, 『史學研究』 21號, 1969.

曹佐鎬, 「李朝司馬試考」, 『人文社會論文集』 14輯, 成均館大學校, 1971.

崔珍玉, 「15世紀 司馬榜目 分析」, 『清溪史學』 5號,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清溪史學會, 1988.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 研究』, 一潮閣, 1981.

정혜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2.

6. 잡과(雜科)의 실행과 급제자

조선시대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과거로, 역과(譯科)·의과(醫科)·운과(雲科)·율과(律科) 등 4개의 과목이 있었으며, 초시(初試)·복시(覆試)로 운영되었다. 잡과방목의 편찬연대는 수록된 잡과의 하한선이 1870년이므로 1870년 이후로 추정되고, 편찬자는 알 수 없다. 체제는 연대기순으로 잡과를 증광시와 식년시로 구분하여 합격자를 적고, 이름 아래에 4대조의 이름·관직·본관을 적었다. 일부 잡과는 합격자의 인원수와 시관(試官)을 적은 것도 있다. 제1책과 2책은 『司譯院榜目』으로 1498년(연산군 4)에서 1867년(고종 4)까지의 역과 합격자 명단을 수록하였다. 1568년(선조 1) 이전의 기록은 1498년·1540년의 2건 뿐이고, 4대조의 내용도 모두 부(父)로 한정하여 적었으며, 합격자의 전공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선조대 이후는 역과의 실행회수가 많아지고, 관직에 대한 사항과 4대조 뿐만 아니라 ‘악(岳)’이라고 하여 장인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특히 관직을 통해 한학(漢學)·청학(淸學)·왜학(倭學)·몽학(蒙學) 등 역관의 전공을 파악할 수 있다. 제3책은 『觀象監榜目』·『律科榜目』·『寫字官廳先生案』으로 1713년(숙종 39)에서 1867년(고종 4)까지의 율과(律科) 합격자 명단과 1609년(광해군 1)부터 1827년(순조 27)까지의 율과(律科) 합격자 명단을 수록하였다. 특히 율과의 경우, 율과년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88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역과(譯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략한 내용이 적혀 있고, 일부는 율과실행 연도와 명단만 적혀 있는 것도 있다.

『사자관청선생안』은 약 520명의 사자관청 관원을 적은 것으로, 잡과방목에 수록된 것은 특이하다. 제4책은 의과방목으로 1498년(연산군 4)에서 1870년(고종 7)까지의 의과(醫科) 합격자 명단을 수록하였다. ‘公山人李宗永士振印’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용지는 활자본으로 된 ‘西漢演義評’을 이면지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잡과 합격자를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중인층이 대부분이었던 잡과 합격자를 배출한 집안을 알 수 있어 신분사와 사회사연구에 참고가 된다. 이 방목에 기록된 안성출신의 인물은 설방보 1인 뿐이다.

1) 잡과의 설행

▶ 설방보(薛邦輔)⁴⁰⁾

- 명종(明宗) 4년(1549년) 기유식(己酉式) 4-0136
- 인적사항

생년(生年)

자(字) 백훈(伯勳)

호(號)

본관(本貫) 순창(淳昌)

거주지(居住地) 안성(安城)

- 가족사항

부(父) 설원경(薛元卿)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외조부(外祖父)

처부(妻父)

40) 최진욱, 『조선시대 잡과입격자 총람』(공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제(弟)

- 이력 및 기타사항

소과(小科)

전력(前歷)

부친관력 : 내수사별좌(內需司別坐)

《참고문헌》

1. 基礎資料：經國大典. 高麗史. 國朝榜目. 大典會通. 司馬榜目. 朝鮮王朝實錄. 榜目列記. 과거등록. 국사편찬위원회,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2. 研究論著

宋俊浩, 『李朝生員進士試의 研究』,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0.

柳浩錫, 「高麗時代 進士의 概念에 對한 檢討」, 『歷史學報』 21輯, 歷史學會, 1989.

李洪烈, 「司馬試의 出身과 榜會의 意義」, 『史學研究』 21號, 1969.

曹佐鎬, 「李朝司馬試考」, 『人文社會論文集』 14輯, 成均館大學校, 1971.

崔珍玉, 「15世紀 司馬榜目 分析」, 『清溪史學』 5號,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清溪史學會, 1988.

許興植, 『高麗科擧制度史 研究』, 一潮閣, 1981.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의 출신 배경과 진출에 관한 연구』, 일조각, 1999년.

최옥환, 『조선초기 별시문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1983, p.30.

3장 안성의 인물

안성의 인물은 고려시대 이전의 기록이 별반 없기 때문에 주로 고려말 조선초 이후부터 1910년 이전에 안성군(安城郡)에서 출생하였거나 성장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안성 출신은 아니나 깊은 관련이 있는 예컨대 군수로 부임하여 안성의 선비들에게 사상과 학문 진작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정수홍(鄭守弘)과 도기서원에 배향된 사계 김장생, 매향리 사당에 임금이 안성군수를 대신 보내 지체를 올린 정희계(鄭熙啓) 같은 인물을 선정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나 역모와 관련된 큰 사건으로 인하여 안성사람들에게 각인된 인물과 영조 때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토벌한 오명항과 같은 사람들을 선정하여 연대순으로 기술하였다.

안성군수를 지낸 인물은 별도의 장(章)을 마련하였으며, 안성출신의 과거급제자 역시 별도의 장에 기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인물은 기술하지 않았다. 라말 여초에 우리나라 중부권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기훤(箕萱)과 양길(梁吉)이 있었으며, 궁예(弓裔)는 기훤에게 몸을 의탁했다가 독자적인 세력을 길렀던 인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일본군(日本軍)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지낸 인물로, 60년 전인 1946년 필리핀 연합국 전범재판에서 교수형을 당한 홍사익(洪思翊, 1889.3.4.~1946.9.26.) 중장은 인물 편에 기술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본 장에 기술하지 못한 다소의 인물

이 있으나, 지면이 부족한 이유로 기술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심나(沈那, 생물년 미상)

신라 선덕여왕 때의 장수이다. 심나(沈那, 또는 식천(熄川))는 소나(素那, 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하였다)의 아버지로 백성군(白城郡, 현 경기도 안성시) 사산(蛇山, 현 천안시 직산면) 사람이었다. 그는 팔 힘이 남보다 세었고 몸이 가볍고도 민첩하였다. 사산현의 경계가 백제의 땅과 엇물려 있었으므로 거의 매달 서로의 침입과 공격이 벌어졌는데, 심나가 출전할 때마다 그를 대항할 강한 군사가 없었다.

인평(仁平, 632~646년) 년간에 백성군에서 군사를 내어 백제의 변방 고을을 빼앗았는데 백제에서 정예부대를 내어 급히 치니 우리 군대가 어지러이 물러났다. 심나 만이 홀로 서서 칼을 빼들고 눈을 부릅뜨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수십여 명을 목베어 죽이니 적(賊)이 두려워하여 감히 당해내지 못하고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다. 백제인들이 심나를 가리켜 ‘신라의 날으는 장수[飛將]’라고 불렀고 서로 말하기를 “심나가 아직 살아 있으니 백성(白城)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였다.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其父沈那或云熄川 膂力過人 身輕且捷 蛇山境與百濟相錯 故互相寇擊無虛月 沈那每出戰 所向無堅陣 仁平中 白城郡出兵 往抄百濟邊邑 百濟出精兵急擊之 我士卒亂退 沈那獨立拔劍 怒目大叱 斬殺數十餘人 賊懼不敢當 遂引兵而走 百濟人 指沈那曰 “新羅飛將” 因相謂曰 “沈那尙生 莫近白城”

* 출전 : 『삼국사기』권47(열전 제7) 소나편

소나(素那, ? ~ 675)

신라 문무왕 때의 장수이다. 소나는 일명 금천(金川)이라고도 한다. 소나는 심나(沈那, 또는 식천(熄川))의 아들로 용감하고 호걸스러워 아버지의 풍채를 닮았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 한주도독(漢州都督) 도유(都儒)공이 대왕에게 청하여 소나를 아달성으로 옮기어 북쪽 변방을 막도록 하였다.

상원(上元) 2년 을해(문무왕 15, 675) 봄에 아달성(阿達城) 태수 급찬 한선(漢宣)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어느 날 모두 나가 삼을 심으려 하니 명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말갈의 첩자가 이를 알고 돌아가 자기 추장에게 보고하니 그 날 백성이 모두 함께 성을 나가 밭에 있는 틈을 타서 말갈이 군사를 숨겼다가 갑자기 성에 들어가 온 성을 겁탈하니 노인과 어린이가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랐다. 소나가 칼을 휘두르며 적을 향하여 크게 외쳤다.

“너희들은 신라에 심나의 아들 소나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진실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고자 도모하지 않을 것이니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찌 나오지 않겠는가!”

드디어 분노하여 적에 돌진하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단지 화살을 쏘 뿐이었다. 소나 또한 화살을 쏘니 날으는 화살이 별때가 나는 것 같았다. 아침나절부터 저녁 때까지 싸우니 소나의 온몸에 박힌 화살이 마치 고슴도치 같았으므로, 결국 꺼꾸러져 장열하게

죽었다.

소나의 아내는 가림군(加林郡, 현 부여군 임천면)의 양가집 딸로서 전에 소나가 아달성이 적국에 가깝다는 이유로 홀로 가고 아내를 집에 남겨두었는데 그 군(郡) 사람들이 소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하니, 그의 아내가 곡하면서 대답하기를, “나의 남편이 항상 말하기를 ‘장부는 진실로 마땅히 싸우다 죽어야지 어찌 병상에 누워서 집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하여 평소의 말이 이와 같았는데 그의 죽음은 자신의 뜻과 같이 된 것이다.”

그가 전사한 소식을 들은 대왕이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라의 일에 용감하였으니 대대로 충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에게 잠찬을 추증하였다.

素那雄豪有父風 百濟滅後 漢州都督都儒公請大王遷素那於阿達城 俾禦北鄙 上元二年乙亥春 阿達城太守級餐漢宣 教民以某日齊出種麻 不得違令 靺鞨諜者認之 歸告其酋長 至其日 百姓皆出城在田 靺鞨潛師猝入城 剽掠一城 老幼狼狽 不知所爲 素那奮刃向賊 大呼曰 “爾等知新羅有沈那之子素那乎 固不畏死以圖生 欲鬪者曷不來耶” 遂憤怒突賊 賊不敢迫 但向射之 素那亦射 飛矢如蜂 自辰至酉 素那身矢如猬 遂倒而死 素那妻 加林郡良家女子 初素那以阿達城鄰敵國 獨行 留其妻而在家 郡人聞素那死 弔之 其妻哭而對曰 “吾夫常曰 ‘丈夫固當兵死 豈可臥牀席 死家人之手乎’ 其平昔之言如此 今死如其志也” 大王聞之 涕泣沾襟曰 “父子勇於國事 可謂世濟忠義矣” 贈官逆餐

* 출처 : 『삼국사기』권47(열전 제7) 소나편.

이영(李永, ? ~ 1123)

고려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성(安城)이고 자는 대년(大年)이며, 안성의 호장(戶長)으로 경군(京軍)이 된 중선(仲宣)의 아들이다.

부친이 죽은 뒤 영업전(永業田)을 물려받아 서리(胥吏)가 되고자 하였으나 정조주사(政曹主事)가 허락하지 않자 숙종 때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이어 직사관이 되었는데, 1104년(숙종 9) 내시 임언(林彦)이 동여진(東女眞)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니 “병기는 흉한 물건이고 전쟁은 위태로운 짓이다(兵凶器戰危事)”라고 하여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장사(平章事) 임간(林幹)을 따라 종군하였으나 여진에게 패하자 연좌되어 과면되었다. 이어 지경산부(知京山府)가 되어 청렴하고 부지런하였다고 한다. 예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한안인(韓安仁), 이여림(李汝霖)과 더불어 시학(侍學)하였다.

1113년(예종 8) 예부시랑으로 요나라에 가서 천흥절(天興節)을 축하하였고, 1116년에는 이자겸(李資謙)과 함께 송나라에 가서 대성악(大晟樂)을 보내준 데에 사례하였다. 이듬해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가 되고, 1118년 보문각학사로서 청연각(淸燕閣)에서 『서경』의 열명편(說命篇)을 강론하였다. 1122년 인종이 즉위하여 지어사대사보문각학사(知御史臺事寶文閣學士)로 삼았으나, 이자겸이 이해 12월에 한안인을 죽이자 매서(妹壻)인 연유로 문공미(文公美)·정극영(鄭克永) 등의 배척과 더불어 진도에 유배되었다. 이어 모자(母子)를 적몰하여 노비로 삼는다는 풍문을 듣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였다. 이자

겸이 술사(術士)를 시켜 매장하니 우마가 밟지 않았고 병학자(病瘡者)가 빌면 나왔다고 한다. 이자겸이 몰락한 뒤 아들이 개장(改葬)하고, 조정에서는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를 추증함과 동시에 이부(吏部)의 죄안(罪案)에서 삭제하였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바르고 곧아 권귀(權貴)에게 아부하지 않았으나, 벼를 사귀는데 단정하지 못하여 척준경(拓俊京)이 이여림을 모해하고 지녹연(智祿延)이 박경승(朴景升)을 배척할 때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방목열기(榜目列記)』.

김돈(金墩, 생물년 미상)

고려 중기의 문신이다. 안성김씨 시조로 안성에서 출생하였는데, 그의 선대는 신라시대 안성군(安城君) 재영(再英)의 후손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설에 돈(敦)자로도 알려지고 있으며, 고려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한 후 한림학사를 거쳐 금자광록대부에 올라 상서좌복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들은 김돈의 출신지인 안성을 관향으로 삼고, 그로부터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방목열기(榜目列記)』 · 『안성김씨대동보(安城金氏大同譜)』.

김유성(金有成, 1236~1307)

고려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성으로 상서좌복야 김돈의 아들로 고려 고종 37년에 15세의 나이로 탁감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이에 덕원부서기(德原府書記)를 거쳐 동문원녹사(同文院錄事)를 역임하였다. 1273년(원종 14)에 원나라의 세조가 일본을 선무하고자 비서감(祕書監) 조양필(趙良弼)을 파견할 때 서장관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을 설복시키고 귀국, 그 공으로 감찰어사(監察御史)가 되었다.

1292년 원나라에서 홍군상(洪君祥)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앞서 우리나라에서 포로로 잡고 있던 일본인을 돌려보낼 것과 아울러 일본을 설복시켜 원나라에 복속하도록 할 것을 종용해오자, 다시 선위사(宣慰使)가 되어 서장관 곽린(郭麟)과 함께 호송과 설복의 임무를 띠고 일본에 건너갔다가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 뒤 조정에서는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그의 집에 세록을 주었으며, 그에게는 첨의평리(僉議評理)의 직첩을 내려주었다.

그 뒤로 그의 생사를 몰랐으나 후일 일본 중 겐코(鉗公)가 와서 정미년 7월 5일 병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아들 우일(于鎰)은 판전교시사이다. 현재 일본 가마쿠라(鎌倉)의 한 신사(神社)에 봉(封)해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호는 충도공(忠悼公)이다.

근세 일본인 청류남명이 저술한 『조선사 천년사』에는 “일본 후자다(後字多) 천황 4년 초에서 18년 초까지 도원수 범문호훈도홍차구가 병졸 십만을 이끌고 고려장수 김방경이 병졸 일만오천을 데리고 일본과 전쟁을 하여 태재부원(현 일본 규슈의 하카다)까지 갔으나 대패하였다”고 전한다. 『일본사』에서 말하기를 “홍안역 원세조는 원

수를 갚을 욕심으로 고려 왕에게 전함을 수리하고 죄수들을 풀어 수전을 연습 시키라고 누차 명하고,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고려왕을 독려왕으로 삼으므로 이에 혼이 난 고려왕은 그 신하 김유성을 선유사로 하여 일본을 초유하려 하카다(태원부)에 도착하여 원의 말을 듣고 화친할 것을 봉서로 설명할 때 구류 당하여 돌아가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방목열기(榜目列記)』·『안성김씨대동보(安城金氏大同譜)』·청류남명, 『조선사 천년사』.

김우일(金于鑑, 생몰년 미상)

고려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성으로 첨의평리(僉議評理) 김유성(金有成)의 장자로 『고려사(高麗史)』에는 천일(千鑑)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자는 우감(宇鑑), 우감(于監) 이라고도 한다. 고려 원종년간(1260~1274)에 동진사에 급제하였다. 고려 충렬왕 때 중정대부 행사재감령(中正大夫行司宰監令) 이후 여러 차례 사정부집의 감찰어사(司政附執義監察御史), 도첨의평리 감찰어사(都僉議評理監察御史) 등을 역임하고, 1317년(충숙왕 4)에 사헌부집의로서 경상도·전라도·충청도를 순방하면서 백성들의 질고를 탐문하도록 명을 받자, 이것을 기회로 모든 일을 사사로이 처리하고 사복을 채웠으므로 장형을 받고 파면당했다.

1328년 심양왕 고(瀋陽王 暲)에게 아부하여, 충숙왕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정사를 살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나라를 배반한다고 무

고하다가 유배되었다. 묘는 백성현(白城縣) 보개산(寶蓋山)에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방목열기(榜目列記)』·
『안성김씨대동보(安城金氏大同譜)』.

김우정(金于正, 생몰년 미상)

고려말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성이고, 첨의평리(僉議評理) 김유성(金有成)의 둘째 아들이며, 우일의 아우이다.

고려 말의 명유 역동 우탁(禹倬)의 문집 『상현록(尙賢錄)』에 “고려 충렬왕 16년(1290) 5월 과거 등과 기록에는 정당문학 설재 정가신(鄭可臣)이 지공거로 과시한 과거에서 역동 우탁선생과 동방급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국학진사 김우정(國學進士金字正)…… 우정(于正) 또는 천정(千正)이라고도 부르며, 일명 자정(子正)이라고도 하고 부(父)는 유성(有成)”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상현록(尙賢錄)』·『방목열기(榜目列記)』·『안성김씨대동보(安城金氏大同譜)』.

김용(金鏞, ? ~1363)

고려 말기의 무신(武臣)으로 정치가이다. 그의 본관은 안성으로 공민왕이 원자(元子)로서 원나라에 들어가 숙위할 때, 시종한 공로

로 여러 차례 승진하여 대호군이 되었다. 공민왕이 즉위하자 응양군 상호군이 되었으며, 원나라로부터 행성원외랑(行省員外郎)의 관직을 받았다. 권신 조일신(趙日新)과는 반목했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1352년(공민왕 1) 연저수종공신(燕邸隨從功臣) 1등에 봉해졌고, 밀직부사가 된 뒤 수충분의공신의 호를 받았다. 조일신의 난이 일어났을 때 궁중에서 숙직하면서도 적을 막지 않고 홀로 무사하였다고 하여 마침내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1354년 원나라의 요청으로 장사성(張士誠)을 토벌할 군대를 조직할 때 안성군(安城君)에 봉해져 이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돌아와서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에 제수되었고, 그 뒤 홍의(洪義)·정세운(鄭世雲) 등과 함께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다.

한편, 이들과 권행(權幸)을 다투던 김보(金普)가 어머니상을 당하자 비밀리에 행성도사(行省都事) 최개(崔介)를 설득하여 왕에게 백관들로 하여금 삼년상을 행하도록 청하여 김보를 견제하려고 왕지(王旨)를 고친 사건이 발각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다.

1356년 기철(奇轍) 일당을 제거한 뒤 다시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었으며, 1358년에는 중서문하시랑평장사(中書門下侍郎平章事)가 되었다. 순군만호(巡軍萬戶)가 되어서는 무뢰배들을 모아 순군에 두고 항상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1361년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총병관(摠兵官)으로 임명되어 이를 방어하였다.

1362년 평소 사이가 나쁜 정세운이 홍건적과의 전투에서 공을 크

게 세우자 이를 시기하여 음모를 꾸며 안우(安祐)·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芳實)로 하여금 죽이게 한 다음, 안우 등이 주장(主將)인 정세운을 살해하였다는 죄목으로 이들 또한 참살하였다.

그 뒤 찬성사에 올랐으며, 흥건적이 침입하였을 때 쉽게 항복하여 군(郡)으로 강등된 수원부(水原府)에 대하여 주민들의 뇌물을 받고 다시 부로 승격시켜 주었다.

1363년 순군제조(巡軍提調)가 되어 흥왕사(興王寺)의 행궁에 머무르고 있던 왕을 시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우정승 홍언박(洪彦博) 등을 살해하였다. 이 음모가 실패하자 도리어 난병을 토벌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잡힌 자는 모두 죽여 난이 진압된 뒤에는 오히려 일등공신에 봉하여졌다.

그러나 마침내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밀성군(密城郡,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에 유배되었다가 계림부(鷄林府, 경주)로 옮겨진 뒤 처형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방목열기(榜目列記)』·『안성김씨대동보(安城金氏大同譜)』.

김림(金琳, ? ~ 1362)

고려 말기의 문신이다. 그의 본관은 안성이고, 김용의 조카이다. 1358년(공민왕 7)에 원나라 황실과 인척관계를 맺고 권력을 휘두른 기철(奇徹) 일파를 제거한 공로로 공부상서에 제수되고 2등공신이 되었다.

1362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도원수 안우(安祐), 원수 김득배(金得培), 이방실(李芳實) 등이 총병관(摠兵官) 정세운(鄭世雲)과 함께 홍건적을 물리쳐 난을 평정함으로써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이때 평소 정세운과 권력을 다투어오던 삼촌인 평장사(平章事) 김용(金鏞)의 간계에 넘어가 안우를 비롯한 김득배·이방실 등을 설득하여 정세운을 죽게 하였으나, 사실의 누설을 두려워한 김용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방목열기(榜目列記)』·『안성김씨대동보(安城金氏大同譜)』.

홍서(洪恕, ?~1418)

고려말 조선초의 무신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문하시중 언박(彦博)의 손자이며,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남양군 사범(南陽君師範)의 아들로 태어났다. 고려 말에 대호군을 역임하고, 1399년(정종 1)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1400년(태종 즉위년) 12월 시위에 소홀한 일로 파직되었으나 이듬해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면서 남성군(南城君)에 봉해졌다.

1402년 전라도병마도절제사로 파견되어 왜구를 소탕하여 궁온(宮溫)과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1407년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전년의 사행시에 사물을 매대한 죄로 수원부에 안치되었으나 그 해 남성군에 복직되었다. 1412년 개천도감제

조(開川都監提調), 곧 남양군(南陽君)에 개봉(改封)되었다. 그는 무재(武才)가 있었는데, 세종 즉위년에 병으로 졸하자 3일간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시호를 강양(康襄)이라 하니, 시법(諡法)에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악(樂)을 좋아함을 강(康)이라 하고, 전쟁에 공로가 있는 것을 양(襄)이라 한다고 하였다. 안성 미양면 용두리의 안성사에서 향사가 받들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태조실록(太祖實錄)』·『정종실록(定宗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안성기략(安城記略)』.

정희계(鄭熙啓, ?~1396)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호는 양성헌(養性軒)이며, 문하평리(門下評理) 월성군(月城君) 휘(暉)의 아들이다. 그의 부인은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질녀이다. 공민왕이 그의 용모를 보고 근시(近侍)로 뽑아서 여러 번 누진하여 대호군에 이르렀고, 우왕 때 최영(崔瑩)의 막하에 들어가서 서북면도순문사를 거쳐 밀직사(密直司)에 이르렀다.

최영이 패한 뒤 이성계(李成桂)가 실권을 잡자 그의 인친(姻親)임을 고려하여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에 등용하였으나, 1390년(공양왕 2) 이성계를 해치려는 이른바 이초(李初)의 옥(獄)에 연루되어 안변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392년 이성계 장군의 도움으로 판개성부사에 이어 문하평리로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을 겸임하였다. 이 해 이성계를 태조로 추

대하는 데 참여하여 좌명개국공신 1등으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팔위상장군(八衛上將軍)에 올라 계림군(鷄林君)에 봉하여졌다. 이어 판팔위사(判八衛事), 좌참찬 등을 거쳐 판한성부사로 있을 때 등창이 나서 죽었다.

그는 학식이 부족하여 사람됨이 가볍다는 세인들의 평을 받았다. 임금이 조회를 정지하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고, 시호(諡號)를 주게 하매, 봉상시(奉常寺)에서 안황(安荒)으로 시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특명으로 고치라고 하여 양경(良景)이라 시호하였다. 아들은 정길상(鄭吉祥)이다. 1800년경인 순조 때에 안성 서운면 송정리에 사우를 건립하자 순조 12년에 임금이 안성군수를 보내어 치제를 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태조실록(太祖實錄)』·『정종실록(定宗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성종실록(成宗實錄)』·『순조실록(純祖實錄)』·『안성군지』·『안성향토사료집』.

정수홍(鄭守弘, 생몰년 미상)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동래(東萊)이고, 자는 의백(毅伯), 호는 풍천(楓川)이며 예의판서 가종(可宗)의 아들이다.

생원시를 거쳐 1390년(공양왕 2) 예부시(禮部試)에 합격, 권근(權近)·하륜(河崙)·성석린(成石璘) 등과 교류하였다. 1398년(태조 8)에 지안성군사로 있으면서 극적루를 중수하고 그 기문을 벗인 양촌

권근에게 부탁하여 공민왕 때 안성인이 홍건적의 무리를 물리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게 하여 안성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인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안성군편 명환조에 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1408년(태종 8) 사헌부집의로 재직 중에 민무질(閔無疾)의 당여로 지목된 하륜을 탄핵하고 무단히 하륜의 집에 사헌부관리를 보내어 수직(守直)한 사건으로 나주에 유배되고, 1409년 외방종편(外方從便), 이듬해 복직되었다. 1418년(세종 즉위년) 사간원우사간·좌사간, 이듬해 8월 예조참의, 같은해 12월 판나주목사로 부임하여 임기를 마친 뒤 퇴직하였다. 세종 13년(1431) 1월까지 활동한 기록이 보이나 이후는 알 수 없으며, 덕행과 문장으로 명망이 있었다. 전주의 학천사(鶴川祠)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태조실록(太祖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양촌집(陽村集)』·『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윤조(尹槩, 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 안성의 학장(學長)을 지냈다. 그의 대한 기록은 『태종실록(太宗實錄)』 권2, 태조 1년 7월 18일조에, “안성의 학장 윤조 등의 상언으로 등문고(登聞鼓, 신문고)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안성 학장 윤조와 전 좌랑(前佐郎) 박전(朴甸)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송 태조(宋太祖)가 등문고를 설치하여 하정(下情)

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아름답게 여기오니, 원컨대 고사(古事)에 의하여 설치하소서”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종검(李宗儉, 생몰년 미상)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영천(永川)이고 호는 쌍계(雙溪)로 고려말의 문장가 남곡 이석지의 손자이다. 부친은 집현전직제학 안직(安直)이며, 어머니는 문화유씨(文化柳氏)로 판의금 호(滄)의 딸이다.

1429년(세종 11) 종제인 이보흠(李甫欽)과 동방급제(同榜及第)하여 한림·직제학·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효성이 지극하고 아우인 종겸(宗謙)과 우애가 독실하여 문종이 효우당(孝友堂)이라는 당호를 내려주었다. 세조 1년 12월에 원종공신 2등에 봉해졌으며, 다음해 7월 대사헌 신석조와 함께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로 난신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 후 이보흠과 내중인 유성원(柳誠源)이 화를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용인 남곡(南谷)으로 돌아가 이맹전(李孟專)·김시습(金時習) 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고 여생을 마쳤다.

1786년(정조 10)에 광주(廣州) 대치사(大峙祠)에 봉향되었고, 1804년(순조 4) 안성 서운면 덕곡(德谷)에 정려문이 세워졌으며, 공주 숙묘전(肅慕殿)에 추배되었다.

김겸(金謙, 1375~1425)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익보(益甫), 월성군

(月城君) 수(需)의 아들이고, 판돈녕(判敦寧) 세민(世敏)의 아버지이며, 정종비 정안왕후(定安王后)의 종질이다.

1396년(태조 5) 생원시를 거쳐 진사시에 합격하고 군기시직장에 제수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군기시직장으로서 정안군(靖安君)의 군사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공을 세워 교서감승(校書監丞)에 초천(超遷)되었다. 이후 지안성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안성군편 명환조에 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1401년(태종 1)에는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서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을 지내고, 이듬해 형조전서(刑曹典書)에 승진한 뒤 12월 병조전서로 옮겼다. 1405년 개성유후사부유후(開城留後司副留後)에 승진, 곧 한성부윤으로 체직되고, 이듬해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거쳐 풍海道감사(豐海道監司)로 나갔다가 1407년 공안부윤(恭安府尹)으로 들어왔다.

이듬해 중군총제(中軍摠制)로서 사은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다시 한성부윤이 되었다. 1413년에 하정부사(賀正副使)로 재차 명나라에 다녀오고, 다음해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에 발탁되었다.

1418년(세종 즉위년) 전주부윤으로 파견되고, 이듬해 전주부윤 재직 중에 정종이 죽자 임지를 무단히 떠나 분상(奔喪)하였으나, 용서를 받고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가 되어 치상(治喪)에 참여하였다. 1420년 좌군총제(左軍摠制)에 이어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면서 개성유후사유후로 나갔고, 이듬해 우군도총제로서 입조(立朝)하였다. 1422년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소환되어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으며, 곧이어 경기감사에 개수(改授)되었다.

1425년 명나라 인종이 죽자 진향사(進香使)로 또다시 중국에 갔

다가 거기서 죽었다. 성품이 관순근후(寬醇謹厚)하고 직무에 충실하였으며, 성적(聲績)이 있었다. 시호는 평원(平原)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태조실록(太祖實錄)』·『정종실록(定宗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

이숙번(李叔蕃, 1373~1440)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성(安城)이고, 경(垆)의 아들로, 자는 백응(伯膺), 호는 운정(芸亭)이다. 태조 2년(1393) 춘장방에서 10등으로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쳤고 태조 7년(1398)에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로 있으면서 이방원(李芳遠:뒤의 태종)을 도와 사병을 출동시켜 세자 방석(芳碩)과 정도전(鄭道傳)·남은(南閻)·심효생(沈孝生) 등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안성군(安城君)에 봉해졌으며,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다.

그 뒤 이방원의 측근이 되어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방원에게 “공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1399년(정종 1)에 좌부승지가 되고, 이듬해 초에 박포(朴苞)가 방원과 반목 중이던 방간(芳幹)을 충동하여 거병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이들을 제거하였다. 이어 좌군총제(左軍總制)가 되고, 이방원이 즉위하자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이 되었다.

1402년(태종 2) 새로 설치한 내갑사(內甲士)의 좌번(左番)책임자가 되고 지승추부사(知承樞府事)가 되었다. 같은 해 말 안변부사 조사의(趙思義)의 난이 일어나자 도진무(都鎭撫)가 되어 좌도도통사와

함께 출정하여 진압하였다. 이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가 되고, 1405년 지공거(知貢舉)에 선임되었다.

1406년에 겸중군총제(兼中軍摠制)·겸판의용순금사사(兼判義勇巡禁司事)가 되고, 이듬해 겸충좌시위사상호군(兼忠佐侍衛司上護軍)·겸의흥시위사상호군(兼義興侍衛司上護軍) 등을 역임하였다.

1408년 십사상호군(十司上護軍)이 폐지되면서 겸중군도총제(兼中軍都摠制)가 되고, 이듬해에 동북면절제사가 되었다. 이어 참찬의정부사·겸지의흥부사(兼知義興府事)를 거쳐, 1412년 말에는 종1품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승진하였다. 1413년에 병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의정부찬성사가 되었는데, 뒤에 의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동판의정부사(同判議政府事)·좌참찬·찬성이 되었다. 한편, 1414년에는 지춘추관사로서 영춘추관사 하륜(河崙) 등과 함께 『고려사(高麗史)』 중 공민왕 이후의 사실을 바로잡도록 명을 받았다.

세종 때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게 되자 선왕 때의 일을 상세히 알고 있다 하여 서울에 불러와서 편찬을 도왔으나 편찬이 끝난 뒤 다시 유배지에 보내져 그곳에서 죽었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묘는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현 시흥시 산현동)에 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정종실록(定宗實錄)』·『태종실록(太宗實錄)』·『세종실록(世宗實錄)』·『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국조방목(國朝榜目)』.

윤삼산(尹三山, 1406~1457)

조선 초기의 훈구파 척신(戚臣)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수옹(壽翁)이다. 1401년(태종 1) 제2차 왕자의 난에 가담하여 좌명2등공신(佐命二等功臣) 파평군(坡平君)에 봉해진 이조판서 곤(坤)의 아들이다. 세조의 비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尹氏)의 친족이며, 성종비 정현왕후(貞顯王后)의 할아버지이고,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 우의정 윤호(尹壕)의 아버지이다.

그는 좌의정 이원(李原)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하연(河演)과 황보인(皇甫仁) 등과도 사돈이 되는 등 가문의 배경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음사로 종묘령(宗廟令)에 출사하여 한성소윤·사헌부장령·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1442년(세종 24) 청탁운동 끝에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었으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야기시키고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파면되었다. 1455년(세조 1) 세조의 왕위찬탈에 협조하여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이 되었다.

그는 그림과 글씨, 문장에 능하여 삼절(三節)로 칭하여지기도 하였으나 이를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 성격이 포악하여 정원에 뽕잎을 훔치러 들어온 사람을 잡아 묶어놓고 머리와 몸에 화살을 쏘아 죽이기도 하였다.

사후인 성종 11년(1480)에 증 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 영천부원군(鈴川府院君)에 추봉되었고, 부인도 정경부인에 봉해졌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세조실록(世祖實錄)』·사가 서거정이 지은

『윤삼산신도비명』·『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

박심문(朴審問, 1408~1456)

조선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밀양이고, 자는 신숙(愼叔), 호는 청재(淸齋)로, 강생(剛生)의 아들이다. 약관의 나이에 학자로서 명성을 얻어 천거되어 사온서직장(司醞署直長)이 되었고, 1436년(세종 18)에 친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기주관(記注官)으로 있다가 함길도절도사 김종서(金宗瑞)가 북방에 육진을 개척할 때 그 종사관(從事官)이 되었으며, 야인(野人)에 대한 안무책(安撫策)으로 남쪽지방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할 것을 절도사에게 건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평안도 관관으로 승진하였고, 이듬해인 1448년에 도체찰사(道體察使)의 종사관 등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일으킨 계유정난 때 김종서 등이 살해되자, 크게 분개하여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은밀히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 등과 내왕하면서 단종복위를 도모하였다. 세조 1년 12월에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으며, 1456년(세조 2)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다가, 의주에 이르러 성삼문 등 육신이 참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독 자살하였다. 일찍이 세종과 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삼문 등과 함께 단종을 보살피 달라는 문종의 고명(顧命)을 받았다.

정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공주 숙모전(肅慕殿)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세조실록(世祖實錄)』·『정조실록(正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이계집(耳溪集)』.

박원형(朴元亨, 1411~1469)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는 지구(之衢), 호는 만절당(晩節堂)이다. 병조참의 고(髡)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양성이씨로 판사복시사 한(瀚)의 딸이다. 그는 안성에서 태어나 1432년(세종 14)에 생원시에 오르고 2년 후에 알성문과 3등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444년 사복시판관이 되었고,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사복시윤이 되고, 이듬해 지사간원사·지제교를 거쳐 1453년(단종 1) 판사복시사가 되었다. 정인지의 추천으로 호당에 뽑혔으며, 계유정난에 수양대군을 도와 좌부승지·우승지를 지내고, 1455년(세조 1) 세조의 즉위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도승지에 오르고 좌익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이듬해 이조참판으로 연성군(延城君)에 봉해지고, 1457년 호조판서로서 명나라 사신 진감(陳鑑)의 원접사(遠接使)가 되었다. 이어 형조·이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함길도도순찰사로 나가서는 부령진(富寧鎭)을 설치하여 관방(關防)을 튼튼히 하였다. 145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야인(野人)에게 관작을 준 데 대하여 힐책하러 나온 명나라 사신 진가유(陳嘉猷)의 원접사가 되었으며, 이어 주문 겸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우찬성을 거쳐 1466년 우의정에 승진되었다.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반란이 일어나자 함길도준무사가 되어 함길도에 가서 본도의 백성을 준무하고, 이듬해 좌의정이 되어 예조판서를 겸하였다. 이 해에 예종이 즉

위하자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과 함께 원상(院相)이 되어 승정원에 나가서 서무(庶務)를 의결하였으며 익대공신 2등에 책록되고 연성부원군에 봉해졌으며, 같은 해 영의정이 되었다. 성품이 청렴하였고, 시문에 능하였으며, 과문(科文)에 특히 뛰어났다. 명과의 외교관계에서 자신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그 명성은 류구국(琉球國)까지 떨쳤다. 그리하여 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외교사는 대부분 그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사후에 예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단종실록(端宗實錄)』·『세조실록(世祖實錄)』·『숙종실록(肅宗實錄)』·『국조방목(國朝榜目)』·『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윤필상(尹弼商, 1427~1504)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안성 보개면에서 출생·성장하였다.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자(字)는 탕좌(湯佐)이다. 호(號)는 청봉(晴峯)·청산(淸山)이다. 삼한공신 신달(莘達)의 후예로 부친은 경(垆)이며, 어머니는 이목(李霖)의 딸이다.

1447년(세종 29) 사마시를 거쳐 1450년 추장문과(秋場文科)에 급제하여 1453년(단종 1)에 저작이 되었고, 1455년(세조 1)에 호조좌랑으로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된 뒤 서연관(書筵官)이 되었다.

1457년에 중시에 급제하였으며, 1463년 동부승지가 된 뒤 형방승지·도승지 등을 역임하면서 세조의 측근에서 신임과 총애를 받았

다. 특히 형방승지로 있을 때 날씨가 매우 춥자 경향에 있는 죄수들을 날날이 상고하여 작은 책자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세조가 죄수 현황을 묻자 즉시 답함으로써 신임이 두터워지게 되었다. 이후 그의 관직은 계속 승진되었으며,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도승지로서 왕명을 신속히 처리하여 우참찬에 특배되고, 적개공신1등에 녹훈되어 과평군(坡平君)에 봉해졌다. 같은 해 강순(康純) 등이 파저강(婆猪江) 주위의 야인을 토벌할 때 왕명을 받고 진군에 가서 개신군들을 위유(慰諭)하였고, 이듬해는 원접사(遠接使)인 안주선위사(安州宣慰使)로 명나라 사신을 맞았다. 이해에 세조가 죽자 수묘관(守墓官)으로 능을 3년간이나 지켰고, 좌리공신이 되었다.

1471년(성종 2) 우찬성으로 재직시 경상도에 가뭄이 들어 기근이 심하자 진휼사(賑恤使)가 되어 기민을 구제하였고, 다시 경상도관찰사를 겸하여 이듬해까지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한 공으로 모의(毛衣)·녹비화[鹿皮靴]를 하사받았다.

그 뒤 1474년에는 이조판서·의금부당상을 겸직하다가 한명회(韓明澮)·노사신(盧思愼) 등 권신들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이조의 권한인 인사권까지 침해하므로 이를 분개하여 사직하였으나 곧 복직되었으며, 1477년에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사복을 채웠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다.

이 해 다시 풀려나와 좌찬성이 되고, 주청사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건주위(建州衛)의 야인들을 자세히 탐지·보고하였으며, 이듬해는 영중추부사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479년 명나라에서 야인을 치려고 조선에 군사를 요청하자 어유소(魚有沼)를 도원수로 하여 정벌군을 보냈으나, 어유소의 군대가

얼음이 녹아 강을 건널 수 없음을 들어 되돌아왔다. 일이 급박하여 지자 한명회 등이 정벌군을 다시 뽑아 보낼 것을 강력히 주장하자 그는 우의정으로 서정도원수(西征都元帥)로 뽑혀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건주위를 토벌, 큰 전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1481년 사은사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84년에는 영의정이 되어 부원군(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그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1496년(연산군 2)에는 궤장(几杖)을 하사받는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 때, 지난 성종 때에 연산군의 생모인 윤비(尹妃)의 폐위를 막지 않았다고 추죄(追罪)되어 진원(珍原)의 유배지에서 사사(賜死)의 명을 받았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뒤 중종반정 때에 신원되었다. 그의 묘소는 보개면 구사리에 있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성종실록(成宗實錄)』·『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국조방목(國朝榜目)』·『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국조보감(國祖寶鑑)』·『청선고(淸選考)』.

송천희(宋千禧, ?~1520)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구부(懼夫), 극창(克昌)의 아들이다. 조부는 안성(安城)사람으로 세종 때 “안성(安城)사람 학생(學生) 송윤(宋倫)은 그 형 세 사람이 있었는데, 윤이 막내아들로서 3년간의 여묘(廬墓)를 마치고는 다시 분묘 곁에 여막(廬

幕)을 엮어 세우고 소식(素食)하면서 모시기를 또 4년이나 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는 인물이다.

1489년(성종 20)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491년 한림·주서를 거쳐, 1495년(연산군 1)에 병조좌랑이 되었으나 왕의 친행시 예의에 벗어난 일을 했다 하여 파직 당하였다.

그 뒤 1497년 검열이 된 뒤 헌납·병조참지를 거쳐, 1506년(중종 1)에 공조참의를 지냈다. 이후 황해도관찰사·동부승지·부제학·경상도관찰사·우윤·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512년에 하성절사(賀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개성부유수를 거쳐 1515년에 대사헌이 되었으며, 1519년에 신진유사(新進儒士)들에 의하여 배척받은 뒤 지중추부사로 1520년에 죽었다.

유인숙(柳仁淑, 1485~1545)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는 원명(原明), 호는 정수(靜叟)로 사간(司諫) 문통(文通)의 아들로 금광면 오산리(梧山里)에서 성장하였다.

1507년(중종 2)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10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검열·이조좌랑·직제학 등을 역임하였고, 1515년 홍문관부수찬·전환이 되었다. 이때 사림파의 일원인 박상(朴祥)·김정(金淨) 등이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복위를 주장하다가 유배되었는데, 이들의 치죄를 둘러싸고 찬반의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씨복위문제를 넘어서 친구세력의 대립으로까지 발전하였는데, 사림파를 대표하여 이들의 치죄를 적극

반대하였다. 이어서 동부승지를 거쳐 1518년 11월 김정(金鼎)의 후임으로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나 반대세력인 박호(朴壕) 등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다음해 좌승지를 거쳐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이때 대간은 경연에서 그가 책임자가 아니라고 반대하고, 동지사(同知事) 조광조(趙光祖)도 불가하다고 하자 공은 학식이 없음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당시 사림파의 핵심인물이었던 조광조·김정·김구(金絳)·김식(金湜) 등은 성균관과 홍문관을 번갈아가면서 장악하여 그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하였는데, 그의 부제학 임명에 조광조 등이 적극 반대한 것은 사림파 내의 세력다툼 때문이었다. 이어서 도승지에 승진하였으나, 같은 해 11월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일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때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등과 함께 조광조 등을 위하여 적극 변명하였다. 그 뒤 호조참의가 되었으나 기묘당인(己卯黨人)으로 대간의 탄핵을 계속 받다가, 2년 뒤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경주부윤으로 좌천되었고 다시 파면되었다. 이후 17년간 재야에서 학문을 논하며 후진을 양성하다가 1537년 재서용되어 병조참의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한성부우윤·호조참판·대사헌·한성부좌윤·대사간, 형조·호조·이조·공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545년 우찬성에 올랐다가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면서 이기(李芑)·정순붕(鄭順朋) 등의 모함으로 일어난 을사사화에서 윤임(尹任)·유관(柳灌) 등과 함께 중사를 모위하였다는 죄목으로 무장으로 귀양가던 도중 진위 갈원(振威葛院)에 이르러 사사되었다. 같은 해 9월 김명윤(金明胤)의 밀고로 윤임·유관 등과 계림군(桂林君) 유(瑠), 봉성군(鳳城君) 완(峴)의 추대를 모의하였다는 죄목으로 능지처사에 처해졌다.

네 아들도 모두 교살되었고 재산도 몰수되었다.

1570년(선조 3) 성균관 유생과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을 비롯한 대신들의 상소로 신원되었고, 1577년(선조 10) 관직이 회복되었으며, 그를 모함하였던 이기·정순봉 등은 위훈이 삭제되었다. 일찍이, 김정과 함께 김정국(金正國) 등의 사림파를 조정에 추천하는 데 적극 앞장서기도 하였다. 재서용 된 후에 사림의 기대를 받았으며 경연에 입시하여 사화로 부진해진 성리학의 진흥에 노력할 것을 추구하였고, 궁중세력과 결탁한 간신배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여 후대에 추앙을 받게 되었다. 그의 학덕을 기려 1819년 만돈사(晩豚祠)에 제향되었으나, 지금은 사지만 남아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묘소(墓所)는 안성 금광면(金光面) 오산리(梧山里)에 있으며, 공을 배향한 만돈사지(晩豚祠址)가 안성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인종실록(仁宗實錄)』·『명종실록(明宗實錄)』·『선조실록(宣祖實錄)』·『수정선조실록(修正宣祖實錄)』·『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숙종실록(肅宗實錄)』·『영조실록(英祖實錄)』·『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국조보감(國祖寶鑑)』·『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국조방목(國朝榜目)』·『해동잡록(海東雜錄)』·『사재집(思齋集)』·『중재집(仲齋集)』·『해동야언(海東野言)』

유운(柳雲, 1485~1528)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자는 종룡(從龍),

호는 항재(恒齋) 또는 성재(醒齋)로 사지(司紙) 공좌(公佐)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 진사가 되고, 1504년 식년문과에 급제, 1514년(중종 9) 헌납으로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 하였다.

정랑을 지내고 교리와 시독관, 장령, 검상, 집의, 대사간, 성균관 대사성, 승지 등 청요직을 거쳐 1518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정사를 돌보지 않고 기생들과 술만 마신다고 하여 탄핵을 받아 동지중추부사로 전직되었다. 이어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남곤(南袞)에 의하여 대사헌이 되었다.

그러나 남곤 일당에게 협력하지 않고 도리어 대간들을 거느리고 청하기를 “전하께서 다시 광조(光祖)를 쓰시어 임금과 신하가 옛날과 같으면 신등이 마땅히 직에 나아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청컨대 신들을 죽여서 간인(奸人)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라고 하여 조광조(趙光祖)를 구원하고자 하다가 파직되었다. 그 뒤 향리에 묻혀 술과 시로 율분을 달래다 죽었다.

20세에 문과(文科)에 오르고 35세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참판 등을 지냈으나 끝내 크게 쓰이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아까워 하였다. 성품이 영호(英豪)하고 시가(詩歌)를 잘 읊었는데, 시풍이 호탕하여 한때 명성이 높았다. 대사헌이었을 때에 ‘한 번 신의 머리를 베어 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버림받아 살 때에는 집에 저장한 물건이 없고 시(詩)와 술로 스스로 즐겼다. 편저로는 『진수해범(進修楷範)』 2권 2책이 있는데, 이 책은 1514년(중종 14) 옛 경전과 사첩(史牒) 및 구류제가(九流諸家)의 설을 섭렵하고 진덕수업(進德修業)에 필요한 문구를 뽑아 간행한 것

이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국조방목(國朝榜目)』.

홍자수(洪自修, ? ~1592)

조선시대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이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충의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난이 발생하자 아들 진(震), 제(齊), 전(電), 계남, 생질 이덕남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 지휘하였다. 개전초 진천의 엽둔고개에 진을 치고 있다가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어 매복전과 유격전을 감행하여 왜군의 보급로 차단과 연합전선의 결성을 방해하는 등 많은 타격을 주었다. 특히 안성의 목촌에 성루를 쌓고 진을 쳐 큰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생질 이덕남과 함께 왜적의 대군에 의해 격파 당해 전사하였다. 임진왜란이 평정된 후 조정에서는 승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판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되고 정려(旌閭)를 하사받았다.

묘소는 미양면 갈전리에 있으며, 그 아래 정문이 있는데 향토유적 제31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난중잡록(亂中雜錄)』·『도암집(陶菴輯)』·『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안성군지』·『안성향토사자료집』.

곽천호(郭天豪, 1568~162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안성⁴¹⁾사람이다.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정부(挺夫), 초계군수를 지낸 곽율(郭慄)의 손이자 아버지는 호선(好善)이다. 생원시에 합격한 뒤 1605년(선조 38)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607년 함경도평사(咸鏡道評事)로 나아갔다. 1617년(광해군 9) 장령·부교리를 거쳐 필선이 되었으며, 이듬해 교리에 임명되었다. 이후 광해군 말년까지 장령·겸필선·교리 등의 관직을 번갈아 맡았다.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한 폐모논의가 일어나자 수의에 참여하여 찬성하였고, 폐모단행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또,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당한 뒤에도 그 궁의 규모를 줄이라고 건의하는 등, 대북세력의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광해군 초년에 예조정랑으로서 『선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619년에는 민생의 어려움을 적절히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 1623년 인조반정 직후 이이첨(李爾瞻)의 무리로 지목되어 파직된 뒤 중도부처(中道付處)되었다. 1628년 대북세력의 잔당이 유효립(柳孝立)을 중심으로 역모를 꾀한 것에 연루되어 죽었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선생은 1560년 송익필(宋翼弼)로부터 사서(四書)와 『근사록(近思錄)』 등을 배웠고, 20세 무렵에 이이(李珥)의 문하에 들어갔다. 1578

41) 『응천일록(凝川日錄)』3에 따르면, 인조 계해(1623, 인조 1년) 8월 12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곽천호(郭天豪)는 안성(安城)사람으로 청주(淸州)에 정배되었다”고 한다.

년(선조 11)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창릉참봉(昌陵參奉)이 되고, 1581년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로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와서 돈녕부참봉이 되었다. 그 뒤 순릉참봉(順陵參奉)과 평시서봉사(平市署奉事)를 거쳐 활인서(活人署)·사포서(司圃署)·사옹원(司饗院) 등의 별제(別提)와 봉사가 내렸으나 모두 병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 뒤에 동몽교관(童蒙教官)·인의(引儀)의 직을 거쳐 정산현감(定山縣監)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호조정랑이 된 뒤, 명나라 군사의 군량조달에 공이 커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로 승진하고, 1596년에 한때 연산으로 낙향했는데, 단양·양근 등지의 군수와 첨정(僉正)·익위(翼衛)의 직이 거듭 내려졌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1597년) 봄에 호남지방에서 군량을 모으라는 명을 받고 이를 행함으로써 군자감첨정이 되었다가 1599년 6월 11일 안성군수가 되었다.

1601년 10월 1일에 조정에서 『주역구결(周易口訣)』의 교정에 참가하도록 불렀으나 병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청백리로 올려졌으나, 복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1605년 관직을 버리고 연산으로 다시 내려갔다.

그 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75세의 나이에 장령(掌令)으로 조정에 나갔으나, 곧이어 사업(司業)으로 옮겨 원자보도(元子輔導)의 임무를 겸하다가 병으로 다시 낙향했다.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으로 왕이 공주로 파천해오자 길에 나와 어가를 맞이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왕을 따라 서울에 와서 원자보도의 임무를 다시 맡고 상의원정으로 사업을 겸하고, 집의의 직을

거친 뒤 낙향하려고 사직하면서 중요한 정사(政事) 13가지를 논하는 소를 올렸다.

그 뒤 좌의정 윤방(尹昉), 이조판서 이정구(李廷龜) 등의 발의로 공조참의에 제수되어 원자의 강학을 겸하는 한편, 왕의 시강과 경연에 초치(招致)되기도 하였다.

1625년에 동지중추부사를 임명받았으나 이듬해 다시 사직하여 행호군(行護軍)의 산직(散職)으로 낙향하여, 이이·성혼(成渾)을 제향하는 황산서원(黃山書院)을 세웠다

늦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였을 뿐더러 과거를 거치지 않아 요직이 많지는 않았지만, 인조반정 이후로는 서인의 영수격으로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인조 즉위 뒤에도 향리에서 보낸 날이 더 많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같은 이이의 문인으로 줄곧 조정에서 활약한 이귀(李貴)와 함께 인조 초반의 정국을 서인 중심으로 안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학문과 교육으로 보낸 향리생활에서는 줄곧 곁을 떠나지 않은 아들 김집(金集)의 보필을 크게 받았다. 그의 문인은 많은데,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강석기(姜碩期)·장유(張維)·정홍명(鄭弘溟)·최명룡(崔命龍)·김경여(金慶餘)·이후원(李厚源)·조익(趙翼)·이시직(李時稷)·윤순거(尹舜舉)·이목(李槩)·윤원거(尹元舉)·최명길(崔鳴吉)·이상형(李尙馨)·송시영(宋時榮)·송국택(宋國澤)·이덕수(李德洙)·이경직(李景稷)·임의백(任義伯) 등 당대의 비중 높은 명사가 즐비하게 배출되었다.

기의 아들 집도 문하이지만, 문인들 사이에는 그를 '선생', 그리고 사계선생을 '노선생'으로 불렀다고 한다. 학문적으로 송익필·이이·

성혼 등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었지만, 예학(禮學)분야는 송익필로부터의 영향이 컸으며, 예학을 깊이 연구하여 아들 집에게 계승시켜 조선예학의 태두로 예학과의 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같은 해 용양위부사직으로 옮기고, 1627년 정묘호란 때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서 의병을 모아 공주로 온 세자를 호위하고, 곧 화의가 이루어지자 모은 군사를 해산하고 강화도의 행궁(行宮)으로 가서 왕을 배알하고, 그해 다시 형조참판이 되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사직하여 용양위부호군으로 낙향한 뒤 1630년에 가의대부로 올랐으나,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줄곧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인조 즉위 뒤 서얼출신이었던 송익필이 그의 아버지 사련(祀連)의 일로 환천(還賤)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같은 문하의 서성·정엽(鄭曄) 등과 신변사원소(伸辨師冤疏)를 올렸다. 또한, 이이와 성혼을 위하여 서원을 세웠을 뿐더러 1만8천여자에 달하는 이이의 행장을 짓기도 했다. 스승 이이가 시작한 『소학집주』를 1601년에 완성시켜 발문을 붙였는데, 『소학(小學)』에 대한 관심은 예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저술은 『상례비요(喪禮備要)』 4권을 비롯, 『가례집람(家禮輯覽)』·『전례문답(典禮問答)』·『의례문해(疑禮問解)』 등 예(禮)에 관한 것이 있고,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경서변의(經書辨疑)』와 시문(詩文)집을 모은 『사계선생전서』가 전한다.

1688년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며, 연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과 안성 도기서원(道基書院) 등 10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諡號)는 문원(文元)이다.

《참고문헌》

『宣祖實錄』·『仁祖實錄』·『燃藜室記述』·『沙溪先生全書』·張志淵, 『儒教

淵源』·玄相允, 『朝鮮儒學史』.

김충수(金忠守, 1549~1592)

조선 중엽에 효자로 본관은 서흥이고, 고삼면 월향리에서 출생했다. 6세에 서당에서 글을 깨우쳤으며 재주가 뛰어났다. 9세 때 부친상을 당하였고 이후 모친 한씨가 종창을 앓았는데 의원이 입으로 고름을 훔아내는 것이 즉효라고 하자 이를 시행하여 효험을 보았다. 이후에도 모친의 봉양에 열과 성을 다해 효자로서의 칭송이 자자했다.

45세에 의병진을 조직하여 왜장(倭將) 복도정칙(福島正則)이 죽주 산성에 주둔하자 죽주성으로 달려가 왜적과 격전을 벌였다. 수차례에 걸친 진퇴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적병 100여 명을 통쾌히 살해했다. 하지만 노도처럼 밀려드는 적들에 대항하기에는 중과부적이였다. 이에 그의 아들 함(涵)은 적전을 뚫고 부자가 합세하였으나 10월 말경 최후를 맞이하였다. 1740년(영조 16)에 삼강정려(三綱旌閭)가 하사되었고, 사헌부장령에 추증되었고, 아들 함은 사헌부지평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안성군지』·『안성문화유적총람』·『안성향토사료집』.

이덕남(李德男, ?~1592)

조선 중기의 의병장이다. 본관은 영천(永川)이고, 자는 윤보(潤甫)이며, 참봉 수인(守認)의 아들이다. 서운면 양촌리에서 태어났으

나, 조실부모한 후 외삼촌 홍자수(洪自修)에게서 자랐다. 무예에 뛰어나 약관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훈련원부정이 되었다.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양으로 달려가 임금을 호종하려 했으나 이미 의주로 피난을 떠난 뒤였다. 안성으로 돌아와 외삼촌인 홍자수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웠다. 외사촌 동생인 홍계남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하고 농기구를 녹여 무기를 만들며 군사를 조련시켰다. 왜병이 지나가는 모령(毛嶺)에 매복하고 있다가 적병이 이르자 크게 무찔러 이겼다. 왜적이 죽산부로 결집을 시도하자 죽산의 좌찬령으로 달려가 연전연승으로 이를 격퇴시켰다. 이 전투에서 홍계남이 중상을 입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구출하였다. 이어 기호·호서의 의병진과 연합하여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적들의 연합군에 의해 외삼촌 홍자수와 함께 장렬히 전사했다. 뒤에 병조참의에 증직되고,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정문이 세워졌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인조실록(仁祖實錄)』·『병계집(屏溪集)』·『안성군지』·『안성문화유적총람』.

홍계남(洪季男, 1564~1597)

조선 중기의 의병장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에서 홍자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단정하고 위용과 용력이 뛰어나 무술에도 특출하였고 높은 것을 뛰어 넘는 재주가 있어 홍나비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말달리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금군(禁軍)에 소속되었다.

1590년(선조 23) 일본에 파견되는 통신사의 군관으로 선발되어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 일행을 따라가서 왜인들에게 그가 말타고 활쏘는 것을 보여주어 그들이 장군의 이름을 기억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순변사 이일의 휘하로 상주에서 신립장군과 합세하여 충주 탄금대에서 혈전을 벌였으나 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의병을 규합하여 목촌에서 성을 쌓고 왜군과 대치하였다. 죽주성에서 왜적들이 그를 사로잡고자 부친의 시신을 성 밖에 달아 놓고 유인작전을 펼쳤다. 그는 왜진(倭陣)으로 달려 들어가 아버지의 시체를 거두어 돌아왔는데, 왜적들이 흥계남인 줄 알고 감히 서로 대항하지 못하였다. 흥장군이 부친의 군사를 거두고 높은 산꼭대기에 보루를 쌓고 양천(陽川)·안산(安山) 두어 고을의 지역을 굽어보며 군사를 주둔시키고 적의 헛점을 틈타 동서로 습격하여 많이 참살(斬殺)하였다. 그래서 적이 감히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경기지역과 호서의 여러 고을이 그를 의지하게 되었다. 특별히 수원 판관 겸 조방장에 제수하였으며 절충장군 칭호를 하사받았다.

선조 29년(1593)에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전라·경상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왜군에게 포로로 잡힌 중국군사 70여명을 구해주었으며, 이빈(李贄)·선거이(宣居怡)·송대빈(宋大斌) 등과 함께 운봉·남원·진주·구례·경주 등지로 전전하며 전공을 세웠다.

이 해에 이몽학(李夢鶴)이 난을 일으켜 흥계남 장군이 자기편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에 하옥되어 많은 고초를 당했으나 무고함이 밝혀져 석방되어 복직되었다. 이듬해 34세를 일기로 영천에서 사망하였다. 선조는 그의 부음을 듣고 처자와 노모의 부양을 적극 지원

하도록 하는 한편 이조판서에 추증했다. 그리고 그의 충효를 널리 후세에 전하고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기록토록 했다. 장군의 고향인 안성에 1653년(선조 30)에 정문을 세웠다고 하나 현재는 그 자취를 찾아볼 길이 없으며, 안성군민들이 1745년(영조 21)에 장군의 공적을 추모하여 미양면 구수리에 고루비를 세웠다. 비문은 도암 이재가 지었고, 전자(篆字)는 지수재 유척기가 썼으며, 비문은 정암(貞庵) 민우수(閔遇洙)가 썼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인조실록(仁祖實錄)』·『영조실록(英祖實錄)』·『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난중잡록(亂中雜錄)』·『도암집(陶菴集)』·『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안성군지』·『안성문화유적총람』.

경순수(慶舜壽, 1582~1645)

조선 중기의 인물이다. 『안성군지』와 『안성의 얼과 맥』, 『안성향토사료집』 등에 안성의 인물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는 “선조 22년(1589)에 문과에 급제하여 헌납, 교서관 등을 역임하면서 왕을 보필했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선조 33년(1600)에 문과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전자의 기록으로 볼 때 그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나이가 겨우 7세가 되므로 이는 잘못된 기록이다. 후자의 기록은 그가 18세에 과거에 합격했다고 하나, 조선시대 문과방목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그리고 “이괄의 난이 발생하여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공주의 쌍수산성으로 임금을 호종하여 2등 공신에 책록(策錄)되었다”고 하나, 왕조실록에는 그 같은 기록이 없다. 또한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인조를 호가하여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후에 조정대신들 사이에 주전·주화론이 대립하고 있을 때, 그는 현실의 타개책으로 주화론을 지지했다고 하며, 또한 청나라와 강화가 체결된 후 1등 공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왕조실록이나 당시 공신록권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그리고 춘천부사, 풍천부사로 재임하여 전란의 피해복구에 노력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가 문과급제자이고, 호종공신 2등과 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고 한다면, 문과방목이나 왕조실록, 또는 공신록권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인조 15년(1637) 2월 14일에 그가 춘천부사로 있다가 탄핵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병화(兵火)를 입어 거민(居民)들이 탕잔(蕩殘)되었음에도 안집책(安集策)을 마련치 않은 경순수를 체차(遞差)”하라는 사헌부의 계(啓)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인조 13년(1635) 10월 20일에 경순수의 죄에 대해 고쳐 조율하기를 청하는 계(政院啓曰, 以義禁府慶舜壽照目)가 있었다. 그는 이후 인조 15년(1637) 12월에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되었으며, 인조 18년 5월 10일 동지중추부사로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전부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그는 문신이라기보다 무신에 가까운 인물이다.

《참고문헌》

『국조방목(國朝榜目)』·『안성군지』·『안성문화유적총람』·『안성의 얼과 맥』·『안성향토사료집』·『승정원일기』·CD 조선왕조실록.

심기원(沈器遠, ?~1644)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수지(遂之)이며, 부친은 청풍군수 간(諫)이다. 그는 권필(權鞞)의 문인으로 안성에 살았으며, 이귀(李貴) 등과 협력하여 1623년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동부승지를 거쳐 병조참판에 특진되고,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한남도원수(漢南都元帥)가 되어 난을 막았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경기·충청·전라·경상도의 도검찰사(都檢察使)가 되어 종사관 이상급(李尙岾)·나만갑(羅萬甲) 등과 함께 세자를 모시고 피란하였다.

그 뒤 풍정연(豊呈宴)을 빨리 중지하고 분위사(奔慰使)를 보낼 것, 왕이 정전(正殿)에서 거처하는 것을 피할 것, 음악을 철폐할 것 등의 소를 올렸다.

1628년 강화부유수를 거쳐, 1634년 공조판서에 승진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서울의 방어책임을 맡았고, 1642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승진되었다.

이듬해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1644년 좌의정으로 남한산성 수어사(守禦使)를 겸임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심복의 장사들을 호위대(扈衛隊)에 두고 전 지사(前知事) 이일원(李一元), 광주부윤(廣州府尹) 권억 등과 모의하여 회은군(懷恩君) 덕인(德仁)을 추대하려는 반란을 꾀하였다.

이 모의는 왕이 믿고 의지하는 장상(將相)을 먼저 없앤 뒤 거사하려고 잔치를 벌여 술에 취하게 한 뒤에 여러 재상들을 죽이려 한 것

인데, 부하 황헌(黃濼)·이원로(李元老) 등이 훈련대장 구인후(具仁后)에게 밀고함으로써 탄로되어 거사 전에 죽음을 당하였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국조보감(國朝寶鑑)』·『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소대기년(昭代紀年)』·『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안성군지』·『안성문화유적총람』.

홍우원(洪宇遠, 1605~1687)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남양(南陽, 토홍), 자는 군징(君徵), 호는 남파(南坡)이다. 조부는 형조판서 만전당(晩全堂) 가신(可臣)이며, 부친은 한성서윤 영(榮)이다.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647년 검열이 되고, 이듬해 봉교로 태백산 사고와 오대산 사고를 살피고 돌아왔다. 정언을 거쳐 1651년(효종 2) 예안현감이 되어 시폐(時弊)를 논하는 장문의 소를 올렸다.

1654년 수찬이 되었는데, 강빈(姜嬪, 昭顯世子 嬪)옥사의 허위임을 직언하다 장살(杖殺) 당한 황해도관찰사 김홍욱(金弘郁)의 신원(伸冤)을 주장하다 파직당하였다. 1659년(현종 즉위년) 부수찬에 복직되어 공주목사·사인·장령을 거쳐, 1663년 다시 수찬이 되어 조대비(趙大妃, 仁祖繼妃 慈懿王后)의 복상문제로 유배된 윤선도(尹善道)의 석방을 주장하다 파직당하였다.

숙종 즉위초 2차예송논쟁(禮訟論爭)에서 승리한 남인이 집권하자 응교로 복직되고, 이어서 승지·부제학·이조참의·대사헌·공조참판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고, 1676년(숙종 2) 대사성·예조판서·지

중추부사, 이듬해 우참찬이 되어 흉년임을 들어 대동미(大同米)를 감량할 것, 납물교생(納物校生)의 면역(免役)을 중지할 것, 납속자(納粟子)에 대한 불신을 없앨 것 등을 진언하였다.

이어서 강화유수·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678년 공조판서가 되어 각 아문(衙門)의 둔전을 혁파하고 훈련도감·총융청·수어청·어영청 등 4군영의 재정은 은포(銀布)로 징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몰락하자 허적(許積)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명천으로 유배되었다가 나이가 많다고 하여 문천으로 이배, 현지에서 죽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복작(復爵)되었다.

학문이 고명(高明)하고 성품이 직절(直節)하다 하여 파직되었을 때마다 조정에서는 서용할 것을 국왕에게 진언하였다. 안성의 백봉서원(白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남파집』 13권이 있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청선고(淸選考)』·『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국조방목(國朝榜目)』·『남파집』·『안성군지』·『안성향토사료』·CD 조선왕조실록.

조해(趙楷, 1639~1699)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함안(咸安)이고, 자는 군범(君範)이다. 부친은 동지중추부사 봉원(逢源)이며, 어머니는 초계정씨(草溪鄭氏)로 판관 시혁(時赫)의 딸이다. 우암 송시열의 제자로 1664년(현종 5) 유학의 신분으로 유생을 이끌고 상소를 올려, 청나라에 북

수하려는 뜻을 피력한 송시열(宋時烈)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서필원(徐必遠)을 윤리를 더럽히고 성현을 모독하였다고 공격하고, 아울러 이 일을 논하지 않은 삼사를 비판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야에서 논의가 비등하여 서필원의 처리문제를 놓고, 송시열을 숭봉하고 청론(淸論)으로 자처하는 준론(峻論)과 이를 견제하려는 완론(緩論)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지혜와 사려가 깊었으며, 성품이 질박 강직하고 자애로우며 관대하였다.

1681년(숙종 7) 천거로 공릉참봉이 되었으나 고과(考課)에서 하고(下考)를 받아 파직되었다. 1683년 경안도찰방을 거쳐 1686년 예빈시직장이 되었고, 이듬해 통례원인(通禮院引儀)로 승진하였다가 장흥고주부(長興庫主簿)가 되었다. 1688년 홍천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대간의 탄핵으로 이듬해 파직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 뒤 장악원주부·의금부도사를 지내고 금구현령이 되었는데, 진휼을 잘하여 칭송을 들었다. 1697년 순창군수가 되어 3년간 재임하였으며, 참판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현종실록(顯宗實錄)』·『경종실록(景宗實錄)』·『국조방목(國朝榜目)』·『전고대방(典攷大方)』·『지촌집(芝村集)』·권상하 찬, 『군수공 휘 해 묘갈명』·CD 조선왕조실록.

유명건(兪命建, 1664~1724)

자는 윤중(允中)이고, 본관은 기계로 사헌부대사헌 철(徹)과 종묘

부봉사 한전(韓甸)의 딸사이에서 태어났다. 1702년 생원시에 입격하여 전설사별검(典設司別檢)을 지내고 사재감주부를 거쳐 감찰이 되었다. 1706년(숙종 32) 양성현감으로 재임하면서 선정(善政)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으며, 그 후 종부시주부를 거쳐 한산군수로 나갔다. 안악군수 시절 선정을 베풀어 암행어사로부터 도내의 가장 우수한 수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담양부사로 승진되고, 나주목사(羅州牧使)에 이르렀으나 임인년에 사화(士禍, 노론 4대신賜死)가 일어나자 관직을 사퇴하고 남포(藍浦)에 은거하였다.

그가 양성현감으로 3년여 있었을 때, 안성지방과 인연이 되어 그의 아들 최기와 직기가 모두 안성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연고로 사후에 기계유씨 자산공파 집성촌(集姓村)인 양주 선영에 안장되었다가, 1744년(영조 20) 고삼면 삼은리로 이장(移葬)하게 되었다. 이때 세워진 묘갈(墓碣)은 조카 지수재 유척기(兪拓基)가 영의정으로 있을 때 전액(篆額)을 써서 세운 것으로, 도암(陶菴) 이재(李緯)가 비문을 짓고, 장인(丈人)인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의 글씨를 집자해서 썼다.

유명건의 묘갈은 1983년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되었으며, 4각 기단(四角基壇) 위에 대리석으로 비신(碑身)을 세우고, 이수(이수)는 한옥의 지붕을 모조하여 다포(多包)의 형태를 나타내고, 서까래와 부연(副椽)도 양각하여 처마를 아주 섬세하게 나타냈으며, 지붕의 용머리에는 서로 얽힌 두 마리의 용을 큼직하게 표현한 용신(龍身)을 꽃아 올렸다. 이 묘갈의 예술적 아름다움은 저녁노을이 피면서 호수의 물결과 어우러져 보일 때가 가장 멋들어진다.

조영복(趙榮福, 1672~1728)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함안(咸安)이고,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으로, 군수 해(楷)의 아들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1705년(숙종 31) 사마시에 합격, 전설사별검(典設司別檢)을 지내고 1712년 김천군수를 역임하였다.

1714년 예천군수로 있으면서 증광문과에 급제, 다음해에 지평이 되어 예천군의 주원(廚院) 수세(收稅)를 감해줄 것을 청하였으며, 다음해 장령으로서 조성복(趙聖復)과 소론의 영수 윤선거(尹宣舉)의 선정(先正)칭호를 금할 것을 청하였으며, 이어 정언·헌납을 지냈다.

1717년 전라우도어사로 임명되고, 이듬해 동래부사를 거쳐 1719년 승지가 되었고, 그 해에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0년 경종 즉위 후 충청감사를 지내고 승지가 되었으나 신임사화 때 소론에 배척당하여 파직되고, 선산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영춘(永春)에 이배되었다.

1725년 노론의 집권으로 풀려나 공조참의·참찬관·승지·경상도감사·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727년 개성유수로 있을 때 정미환국이 일어나자, 네 번이나 소를 올려 전일의 죄인들을 이제 등용시켜서는 아니되며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극언하다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한성부우윤이 되었다가 난이 평정된 뒤 사직하였다. 서예에도 뛰어나 필원(筆苑)에 이름이 끼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경종실록(景宗實錄)』·『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전고대방(典攷大方)』·『지수재집(知守齋集)』·
『안성군지』·『안성문화유적총람』·CD 조선왕조실록.

오명항(吳命恒, 1673~1728)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사상(士常)이며, 호는 모암(慕菴)·영모당(永慕堂)이다. 영의정 윤겸(允謙)의 현손이며, 아버지는 수량(遂良)이다.

1705년(숙종 31)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1709년 교리를 거쳐 설서·사서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부수찬, 1713년에 겸필선(兼弼善), 1715년 부응교(副應敎)·이조좌랑을 지냈다. 1716년 승지에 이어 경상도와 강원도·평안도의 관찰사 등을 거쳐 사직으로 있다가 1724년(영조 즉위년)에 소론이 실각하자 사직하였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등용될 때, 지중추부사로 기용되어 이조와 병조판서를 역임하고,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판의금부사로 4도도순무사를 겸하여 난을 토평하여 분무공신(奮武功臣) 1등이 되고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어 우찬성에 승진되었으나, 자신이 이인좌와 같은 소론이라는 것을 자책하고 상소하여 사퇴를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고 우의정으로 발탁되었다.

이인좌의 난을 토평한 내용을 담은 토적송공비가 안성 낙원공원에 세워져 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효자정문이 용인에 세워졌다. 시호는 충효(忠孝)이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경종실록(景宗實錄)』·『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귀녹집(歸鹿集)』·
『안성군지』·『안성문화유적총람』.

김중만(金重萬, 1681~1755)⁴²⁾

조선 영조 때 무신으로 본관은 언양, 한성부판윤 석창(碩昌)의 아들이다. 이지현 토현리(현 대덕면 토현리)에서 출생하여 성장했다.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에 남다른 비범함을 보였다. 1712년(숙종 38)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벼슬을 버리고 귀향했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 협박으로 거사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고 청주에서 반란군이 북상하자 거짓으로 그들의 거사에 따랐다.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이인좌의 반란군과 연합하기 위해 거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간파하고는 곧바로 상경하여 3월 27일에 고변하자 오명항을 도순무사로 파견하여 난을 평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 공로로 수충갈성결기분무공신 2등에 녹선되었으며, 언성군(彦城君)에 봉해졌다.

그 해 12월에 조사위장으로 있다가 영조 6년(1729) 희천군수에 임명되었다. 영조 13년(1737)에 울산첨사, 영조 16년(1740)에 성

42)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3월 19일(기사). 諭京畿監司李廷濟曰, 陽智古西面葛山村居出身金重萬, 上變有大功, 特授同知中樞府事, 三代追贈, 以示褒嘉之意. 重萬家屬, 訪問于竹山西三道楓井里, 重萬兄重元, 在安城南面道基里, 弟重呂·重鳴, 同居楓井里, 以此意, 各別存問, 而賊徒之侵害, 亦甚可慮, 另加顧護, 俾免意外之事. 卿其秘密分付于當其邑事, 有旨. 上曰, 親鞠姑罷, 明日親鞠殿坐正時, 以辰初初刻爲之. 榻前下教. 上還宮, 諸臣退出.

진첨사, 영조 20년(1744)에 단천부사와 칠곡부사를 거쳐 영조 27년(1751)에 오위장, 영조 28년(1752)에 충청도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다. 75세에 사망하자 조정에서 자헌대부 공조판서로 추증하였으며, 왕명으로 도화원에서 공의 영정을 그려 하사하도록 했다.

그의 6세손 갑걸(甲傑)이 직산에 있던 묘소를 이장하였으며, 토현리에 영당각(影堂閣)을 건립하였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정조실록(正祖實錄)』·『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안성군지』·『안성문화유적총람』.

심육(沈鎔, 1685~1753)

그의 자는 화보(和甫)·언화(彦和)이고, 호는 저촌(樛村)·저현(樛軒)이며, 본관은 청송이다. 부친은 영의정 심수현(沈壽賢)이고 모친은 전의 이만겸(李萬謙)의 딸이다. 1705년(숙종 31) 진사시에 합격한 뒤 유봉으로 명재(明齋) 윤증(尹拯)을 처음 찾아갔다. 의주 부윤인 부친을 따라 관서록과 일기 『만관록』을 남겼다. 후에 양양부사인 부친을 따라 관동일대를 유람하고 『관동록』을 남기고, 금강산을 유람한 『풍악록』을 남기었다. 1715년 30세 때 처자를 데리고 안성(安城)으로 이거하였다. 부친이 경상좌도 군전사로 부임하자 이후 영남일대를 유람하고, 스승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와 강화 진강(鎭江)에서 문답한 것을 『鎭江問答』으로 남겼다. 영조가 즉위하자 왕자사부에 제수되고 익위사 부술(副率)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시장원자의에 제수되어 소명을 받고 상경하여 소대(召對)에 입시했다.

사은겸진주사로 가는 부친을 따라 연경에 갔을 때 숙부 유현이 이인좌의 난으로 논죄되자 지평, 승지, 유선, 찬선 등으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부친이 돌아간 뒤에 형조와 호조참의, 성균관좌주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였다. 송인명의 주달로 이재, 박필주와 함께 별유소명이 내리고, 형조참판, 좌주, 대사헌, 찬선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직하였다. 그는 안성읍 서리에 살면서 동리에 사는 임사경(任思敬)과 교유하며 안성에 관한 수많은 시문을 남겼다. 저술은 『저촌유고』가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심육(沈鎭), 『저촌유고』.

홍양호(洪良浩), 『이계집(耳溪集)』, 권31, 副率任公墓碣銘并序.

청송심씨대종회, 『청송심씨대동보』, 2002.

조영석(趙榮祐, 1689~1761)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이다. 본관은 함안(咸安)으로, 자는 종보(宗甫)이고, 호는 관아재(觀我齋) 또는 석계산인(石溪山人)이다. 군수를 지낸 해(楷)의 아들이며, 한성부우윤을 지낸 영복(榮福)의 형이다. 이희조(李禧朝)의 문인으로, 171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천거로 장릉참봉으로 등용되어 연기와 제천현감을 거쳐 여러 번 누진하여 배천군수,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을 지내고, 뒤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1742년 선조이며 생육신의 한 사람인 조려(趙旅)의 문집, 『어계집(漁溪集)』을 개간하였으며, 1748년에는 『숙종어진도사(肅宗御眞圖

寫)』의 감동(監董)으로 참여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기술로 임금을 섬기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 하여 사양하였다.

노년에 저술한 문집 『관아재고』가 전하고 있다. 홍의영(洪儀泳)의 『관아재화첩』 발문에 의하면 “본래 인물에 뛰어났으며, 겸하여 산수도 잘하였고, 금강산을 다녀온 뒤 화경(畵境)이 더욱 진보되어 명작을 많이 냈으며, 또한 고화(古畵)에 대한 논평을 좋아하였으나 간혹 지나친 점이 있어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며, “백악산(白岳山) 아래에 살면서 정선(鄭愼), 시인인 이병연(李秉淵)과 이웃이 되어 교류하면서 시화(詩畵)를 논하고는 하였다”고 한다. 또한, 영의정까지 지낸 유척기(兪拓基)와 그 형제들과도 절친하게 지냈다. 인물화 뿐 아니라 산수와 영모(翎毛)에도 능하였다.

그의 그림들은 다소 경직되고 까칠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대체로 윤두서(尹斗緒)의 경우처럼 조선 중기의 전통화법을 계승하면서 남종화법(南宗畵法)을 약간 가미한 화풍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그의 회화세계는 이인상(李麟祥) 등에게 얼마간 영향을 미치는 등 조선 후기 문인화의 전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일상적 풍물을 소묘한 작품들을 모은 『사제첩(麤臍帖)』(趙東濟, 소장)과 선비들이 소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장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장기도(將碁圖)』(간송미술관 소장)는 뒤에 김홍도(金弘道) 등에 의하여 전개될 풍속화의 유행을 예시하는 작품들로서 주목된다. 이밖에 『어선도(漁船圖)』와 『청유도(淸遊圖)』 등 다수의 작품이 전하며, 대표작으로 서강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유음납량도(柳陰納涼圖)』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강상조어도(江上釣魚圖)』·『방당인필어선도(倣唐人筆漁船圖)』 등이 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매산집』·『관아재고(觀我齋稿)』·『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안성향토사료집』
 안휘준, 『한국회화사(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산수화(山水畫)』 下, 中央日報社, 1980.

임사경(任思敬, 1686~1757)⁴³⁾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안성읍 동리 사람으로,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여직(汝直), 아버지는 통덕랑 진영(震英)이며, 어머니는 윤증(尹拯)의 딸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학문을 익히기 시작하여 윤동원(尹東源)·이행태(李行泰) 등과 더불어 교유하며 점차 크게 학문을 떨쳤다. 1716년(숙종 42) 그의 스승이자 외할아버지인 윤증이 화를 입게 되면서 관직에 뜻을 버리고 학문에만 진력, 한때 경명행수(經明行修)의 인재로 발탁되어 광릉참봉이 주어졌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745년(영조 21)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부수(副率)로 임명되어 서연(書筵)에서 장헌세자의 학문을 깨우치며, 빈객 정우량(鄭羽良)이 그 진강(進講)의 독실함에 탄복하였다. 경전(經傳)에 통달하였음은 물론 특히 사지(史志)에도 밝아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단군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치란흥망(治亂興亡)과 산천도리(山川道里)의 형세 등 조선의 역사에도 정통

43) 『耳溪集』 권31. 副率任公墓碣銘并序. 副率任公 余少侍伯舅沈先生於安城之樛村. 樛村之友曰副率任公. 任公有婿曰李文祐昌之. 從任公居安城. 昌之雖未嘗挾冊受業於樛門. 而先生嘗稱其器局. 余遂與之交善. 如同門之契. 旣而先生棄後學. 及門之士散歸四方. 昌之時或來漢京訪余. 語及往時事. 相與愀然歎吒. 及昌之歿. 其胤在川兄弟修舊好. 一日. 齋家狀來. 屬表阡之辭. 余何忍辭. 謹按李氏. 貫龍仁.

하였다. 안성읍 동리에 살면서 서리에 사는 저촌(樛村) 심육(沈鎔)과 교유하면서 말년을 지냈다.

《참고문헌》

심육(沈鎔), 『저촌유고』.

홍양호(洪良浩), 『이계집(耳溪集)』, 권31, 『부솔임공묘갈명병서(副率任公墓碣銘并序)』.

유취기(兪最基, 1689~1768)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기계, 자는 양보(良甫), 호는 자락헌(自樂軒)·무수옹(無愁翁), 대사헌 철(徹)의 손자이며, 목사 명건(命健)의 아들이다.

1715년(숙종 41) 사마시를 거쳐 1723년(경종 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당시 당쟁이 치열하여 세상이 어지러우므로 벼슬길에 나가지 않다가, 1726년(영조 2)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가 되었으나, 이듬해 정미환국 때 소론의 거두 이광좌(李光佐)의 횡포에 분개하여 소를 올려 탄핵하다가 삭출 당하였다.

3년 후 지평으로 다시 등용되자, 신임사화로 죽은 노론의 거두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의 신원(伸冤)과 소론의 음모사실을 논박하다가 다시 삭출 당하였으나 곧 등용되어 부교리·부수찬을 거쳐 수찬·시독관(侍讀官) 등을 역임하고, 1747년 병조참의에 올랐다.

그는 또 노론의 여러 언관들과 함께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고 소론의 거두인 이광좌의 관작추탈을 강력히 주장하다가, 탕평책에 역행하는 자라고 지목되어 웅천현감으로 좌천되었다.

영조가 그의 강직함을 가상히 여겨 다시 기용함으로써 그 뒤 동부승지·대사성·대사헌·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763년 노인직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뒤에 판의금부사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그는 시문(詩文)에 능했으며, 시문으로 문명(文名)을 떨쳤던 언술(彦述)과 더불어 기계유씨의 가문을 중흥시킨 인물이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청선고(淸選考)』·『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국조방목(國朝榜目)』·『승정원일기』.

서명구(徐命九, 1694~1754)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달성(達城)이고, 자는 우경(虞卿), 호는 약허(若虛),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 종신(宗愼)의 아들이다.

1717년(숙종 43)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로 보임(補任)되었다.

1722년(경종 2) 영조가 왕세자로 있을 때 소론(少論)의 과격파인 김일경(金一鏡) 등이 환관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 등을 시켜 세자를 죽이려 하자 이를 탄핵하여 음모를 막았다.

영조가 즉위한 뒤 강원도도사(江原道都事)로 나갔고, 1725년(영조 1) 사서(司書)·필선(弼善)·보덕(輔德)·집의·헌납(獻納)을 지내고, 1731년 사간·부응교·승지를 거쳐 1741년 개성유수가 되었다.

이듬해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로 갔다가 귀국한 뒤 한성부 좌윤을 지내고 대사헌·경기관찰사·한성부우윤·공조참판·동지의금부사를 역임하였다.

1752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과중한 조세부담을 삭감하게 하고 관하 지방관들의 부정을 엄격히 처벌하는 등 치적을 올렸다.

영조가 죽자 거듭 왕계(王系)의 정통을 지키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묘소는 안성 보개면 이전리에 있으며, 본래 양평군에서 2003년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청선고(淸選考)』·『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국조방목(國朝榜目)』·『강한집(江漢集)』·『안성향토사료집』.

유직기(兪直基, 1694~1768)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공의 자(字)는 청보(淸甫)요,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강원도관찰사 유성증(兪省曾)의 증손이요, 사헌부 대사헌 유철(兪徹)의 손자이며, 나주목사 유명건(兪命健)의 아들이고, 사인 안후선(安後宣)의 외손이다.

부인은 의정부 참찬 김유경(金有慶)의 딸으로 아들 언집과 언호를 두었다. 1721년(경종 1) 진사시에 합격하고, 1736년(영조 12) 음직으로 목릉참봉을 거쳐 장흥고 봉사를 역임했으며, 1739년 사섬시직장·사옹원 주부·사헌부 감찰 등을 거쳐 1741년(영조 17) 이조좌랑을 역임하고, 이어 신계현감으로 나아가 기민구제(饑民救濟)에 힘썼다. 1746년 형조정랑·사도시첨정이 되고, 1747년 청송부사를

거쳐, 1756년 익위사 사어·한성부 서윤을 지냈으며, 이후 선공감 부정·평양부사를 거쳐 1758년에 능주목사를 역임하고, 1759년 군자감정을 거쳐 1762년 익위사 익위를 지냈다. 1763년 나이 70세가 됨에 통정으로 품계가 오르는 추은을 받았다.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이 되고, 1764년 동지돈녕부사를 거쳐 1766년 한성부 좌윤을 지내고, 1767년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1768년 도총부부총관에 이르렀다. 이후 안성에 은거하면서 후학양성에 전념했으며, 공이 편집한 『해동가언선행(海東嘉言善行)』은 『소학』을 공부할 때 옆에 놓고 보는 날개로, 모범이 될만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행을 모아 엮은 책이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가 안성대감이라 불리는 막내아들 언호가 좌의정에까지 올라 다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소(墓所)는 보개면 신안리 동안강당 건너편에 안장되었다.

그는 안성에서 아들 넷을 두었는데, 은일로 이조참판이 된 언집(彦鑣), 생원으로 금성현령을 지낸 언준(彦鑾), 통덕랑 언횡(彦鉉), 좌의정을 지낸 언호(彦鎬)이다. 묘비는 1787년(정조 11년)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에 건립된 유직기 묘갈(兪直基墓碣)로 유언현(兪彦鉉)이 비문을 지었고, 글씨를 썼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승정원일기』·『호보(號譜)』·『기계유씨대동보』·『내고장 경기도의 인물』·CD 조선왕조실록.

유언집(兪彦鑣, 1714~1783)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기계(杞溪)이고, 자는 사호(士鎬)·

사집(士集)이며, 호는 대재(大齋)이다. 아버지는 한성부우윤 직기(直基)이며, 어머니는 좌참찬 김유경(金有慶)의 딸이다. 정조 때 영돈녕 부사에 오르고 정조 묘정에 배향된 언호(彦鎬)는 그의 동생이다. 젊어서부터 권상하(權尙夏)와 문정공(文正公) 이재(李縉)의 문하에서 노닐었고, 과거를 보았으나 급제하지 못했다. 초복(初服)에 당하여 경학에 통달하고 덕행이 있음으로써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세자시강원자의(世子侍講院諮議)가 되고, 1777년(정조 즉위년)에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다음해에 경연관, 장령이 되었다가 1783년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어 원자를 보도(輔導)하였다.

그 뒤 형조와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이르렀으나 이때 치사(致仕)하였다. 여러 차례 불러도 나오지 않았고, 몸이 고되도록 학문 연구를 늙어서도 그만두지 않다가 이에 졸하였다. 부음이 들리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이 유신(儒臣)은 내가 모양(慕仰)하는 바이었으나 내 성의가 부족한 것 때문에 마침내 한 번도 조정으로 불러내어 함께 국가 일을 하게 되지 못했다. 매양 그의 아우가 고감에 따라 그때마다 쓸리고 있는 이 마음을 표해 왔었는데, 어찌 오늘 그가 장서(長逝)하였음을 듣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당면한 지금 세상의 도의가 풀려버리고 민생에 대한 근심이 몹시 다급하므로, 이런 때를 바로잡아 구제해 가는 방책에 있어서 그옥이 임하(林下)에서 독서(讀書)하는 선비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물며 이 유신은 나이와 덕이 다같이 높아 조야(朝野)가 의지하며 중시했었으니, 내가 기대하며 바라게 되는 바가 더욱 어떠했겠느냐? 이제는 그만이게 되어버렸으니 다시 말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성복(成服)한 뒤에는 마땅히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겠는데, 제문(祭文)도 마땅히 친

히 짓겠다. 무릇 은졸(隱卒)에 관한 범절을 한결같이 고 장령(掌令) 김중후(金鍾厚)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편서(編書)로는 『오복명의(五服名義)』가 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정조실록(正祖實錄)』·『승정원일기』·『호보(號譜)』·『기계유씨대동보』·『안성향토사료집』·CD 조선왕조실록.

유언호(兪彦鎬, 1730~1796)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사경(士京), 호는 척지헌(則止軒), 우윤 직기(直基)의 막내아들이다. 1761년(영조 37)에 정시문과에 급제, 다음해에 한림회권(翰林會圈)에 선발되었다. 이후 주로 사간원 및 홍문관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771년에는 영조가 산림세력을 당론의 온상이라 공격하여, 이를 배척하는 『엄제방유곤록(儼堤防裕昆錄)』을 만들자, 권진응(權震應)·김문순(金文淳) 등과 함께 항소함으로써 경상도 남해현에 유배되었다.

다음해에는 홍봉한(洪鳳漢) 중심의 척신정치를 제거하는 것이 청의(淸議)와 명분을 살리는 사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 정치적 동지들의 모임인 이른바 청명류(淸名流)사건에 연루되어, 봉당의 타파를 탕평으로 생각한 영조의 엄명으로 흑산도로 정배의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를 춘궁관(春宮官)으로서 열심히 보호하였으므로 정조 등극 후에는 홍국영(洪國榮)·김중수(金鍾秀)와 함께 지극한 예우를 받았고, 『명의록(名義錄)』 편찬의 주역을 담

당하였다. 그의 이름이 이 책에 올라 있기도 하다. 그 뒤 이조참의·개성유수·규장각직제학으로 있다가 벗 연암 박지원이 벽파로 몰려 금천 연암리로 낙향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개성유수를 자원하여 박지원을 적극 돌보아주었다. 대사헌과 홍문관제학, 판서와 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1787년(정조 11)에는 우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경종과 희빈장씨(禧嬪張氏)를 옹호하고 영조를 비판한 남인 조덕린(趙德隣)이 복관되자 이를 신임의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격하여, 정조의 탕평을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가 3년 뒤에 방면되었다. 이후 향리에 칩거하였으며, 안성 신안리에 동안강당을 지어 후학들을 지도하여 안성대감으로 불렸으며, 1795년 잠시 좌의정으로 있다가 다음해 타계하였다.

어려서부터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으며, 외유내강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저서로 『칙지헌집(則止軒集)』이 있으며,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1789년에 대덕면 건지리에 세운 묘갈에는 정조의 어사제문(御賜祭文)이 새겨져 있다. 1802년(순조 2)에 김종수와 함께 정조묘(正祖廟)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정조실록(正祖實錄)』·『순조실록(純祖實錄)』·『국조방목(國朝榜目)』·『명의록(明義錄)』·『은파산고(恩坡散稿)』·『칙지헌집(則止軒集)』·『안성향토사료집』.

조병익(趙秉翼, 1844~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성건(聖健), 구영

(龜永)의 아들이다. 유학으로서 1877년(고종 14) 정시문과에 급제, 1883년 장령·교리를 거쳐 이듬해 옥당에서 갑신정변의 주모자 김옥균(金玉均) 등을 처단하기를 청하는 연차(聯筭)를 올렸을 때 부응교로 참여하였다. 1888년 종묘하향대제친행(宗廟夏享大祭親行)때 대축(大祝)을 한 공으로 가자(加資)되었다. 문학, 병조참의, 동부승지, 참찬관, 좌우부승지, 돈녕부도정,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대사간 등 청요직에 임명되었다.

고종이 능원(陵園)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899년에는 좌승선 겸장례 봉상사부제조(奉常司副提調)로서 유지상태를 조사하고 능원을 범하는 자를 적간하기 위하여 이용구(李容九)와 함께 파견되었다. 이듬해 비서승을 거쳐 시강원첨사(侍講院詹事)가 되었고, 이어 궁내부특진관으로 칙임관 4등이 주어졌다. 사성, 병조·호조·형조참의를 역임한 뒤 종2품 경효전(景孝殿)·종묘서(宗廟署)의 제조를 거쳐, 사직서(社稷署)·봉상사제조가 되는 등 주로 왕실의 의례를 담당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21년(1884) 12월 3일조에 의하면 시강원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사서 조병익(趙秉翊)은 현재 경기 안성(安城)에 있고, 동년 12월 18일에 “조병익(趙秉翊)이 고향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그가 안성사람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국조방목(國朝榜目)』·CD 조선왕조실록.

한규직(韓圭稷, 1845~1884)

안성⁴⁴⁾사람으로, 한말의 무신이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순좌

(舜佐), 호는 다옥(茶玉), 부친은 부사 승렬(承烈)이다. 동생이 참정 대신 규설(圭髙)이다. 19세인 1864년(고종 1)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중추부경력(中樞府經歷)·함안군수·금위영천총(禁衛營千總)·길주목사·경상좌수사·전라도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1881년 전라도병마절도사가 된 뒤 곧이어 좌변포도대장에 임명되었다. 1882년 초에는 잡아들인 용의자 5인을 혹독하게 다스려 치사하게 한 죄로 한때 순안에 천배 되었으나 때마침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국왕의 특명으로 풀려나 탕척(蕩滌)되고 다시 좌포도대장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우포도대장에 개임되었다가 곧이어 총융사(摠戎使)가 되어 용단(戎壇)에 오른 뒤, 다시 어영대장에 임명되어 사대당 내각의 중진으로 그 자리를 굳혀갔다. 같은 해 9월 권지협판(權知協辦)이 되고 다시 공조판서·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 군무사(軍務司)를 거쳐 신설 교련소인 친군전영(親軍前營)의 감독까지 겸임하였다.

1884년 초 기기국총판(機器局總辦)·혜상공국총판(惠商公局總辦)을 겸했으며, 8월에는 전영사(前營使)가 되어 이전에 별도 설치된 연용대(鍊戎臺)를 통하여 모든 군사훈련을 통할, 민영익(閔泳翊)·이조연(李祖淵)·윤태준(尹泰駿) 등과 함께 중앙군대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박영효(朴泳孝)가 양성해오던 신식군대를 친군전영에 편입시킴으로써 개화파로부터 군권을 빼앗으니 이후로부터 개화당과 반

44)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병술(1886) 10월 7일에,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한규설(韓圭髙)이 상소하기를, “신의 형을 종상(終祥)하는 기일이 단지 열흘 남았고, 집이 안성(安城)에 있으니 궤연(几筵)을 치우기 전에 한번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0월 9일에 “충숙공(忠肅公)으로 시호(諡號)를 추증한 한규직(韓圭稷)의 연시(延諡)를 이달 12일로 정하여 경기 안성(安城)의 본가에서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히 아쉽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따라서 한규직의 본가 즉 고향을 비롯한 고택(古宅)이 안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한규설 역시 안성사람으로 생각된다.

목하게 되면서 원한을 사게 되었다. 그해 12월 개화당이 우정국(郵政局) 낙성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피신하여 병졸로 변복하고 창덕궁으로 갔다가 국왕을 만나려고 다시 경우궁(景祐宮)에 이르러 이조연·유재현(柳在賢) 등과 함께 정변을 진압할 계책을 논의하다가 김옥균의 방해로 경우궁 밖으로 쫓겨나 황용택(黃龍澤)·이규완(李圭完) 등에게 살해되었다.

갑신정변 이후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청·일 양군의 대항기세는 날로 격화되고 있어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급박한 순간이었다. 만일의 경우 청·일 양국이 개전하게 된다면 가장 난처하며 피해를 보는 것은 조선이므로, 고종과 척신들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신중한 논의 끝에 제3국인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하고자 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청과 조선으로 인하여 반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고종과 척신들이 친로노선을 채택한 것은 러시아만이 조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뮐렌도르프의 주장과 친로파인 친군전영사(親軍前營使) 한규직의 설득이 주효하였던 것 같다. 1885년의 친로밀약사건도 친로수호조약체결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신정변이 진압된 뒤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라고 했다가 충숙(忠肅)으로 고쳤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국조방목(國朝榜目)』·CD 조선왕조실록.

강찬(姜蕡, 1849~ ?)

조선 고종 때의 문신으로 안성 출신⁴⁵⁾이다. 본관은 진주로 표암 세

황(世晃)의 5세손으로, 기의 손자이며, 준수(駿秀)의 아들이다. 1871년(고종 8) 정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871년 홍문관부교리와 수찬(修撰)을 거쳐 1872년에는 규장각직각이 되었다. 1874년에는 진하사(進賀使) 이승응(李昇應)을 수행하는 서장관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에도 진위 겸 진향정사(陳慰兼進香正使) 강난형(姜蘭馨)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82년에는 검교직각(檢校直閣)으로 고종의 자문에 수시로 응하였다.

1883년 이후에는 예조·이조·병조참의를 역임하였으며, 1887년에는 태인(泰仁)으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으나 바로 풀려나 우부승지·사헌부대사헌·이조참판이 되었다. 그리고 1897년 종2품인 중추원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및 칙임관삼등(勅任官三等)에 이르렀으며, 이듬해에는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가 되어 전주 자만동비문(滋滿洞碑文)의 서사관(書寫官)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국조방목(國朝榜目)』·CD 조선왕조실록.

김동식(金東植, 1854~1910)

조선말기의 의병대장으로 안성군 읍내면 석정리(石井里)에서 1월

45) 『승정원일기』 고종 22년(1885) 3월 11일에 “동부승지 강찬(姜贊)은 지금 경기 안성에 있으니, 모두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고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 24년(1873) 윤4월 18일 “원임 직각 강찬(姜贊)을 진라도 태인현(泰仁縣)에 찬배해야 하는데, 현재 경기 안성에 있다고 합니다. ; 고종 25년(1888) 4월 22일 공조참의 강찬(姜贊)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니, 신의 집이 안성(安城)에 있는데, 작년 여름 사이에 어미의 병이 더욱 위중해지면서 전갈이 날마다 이르렀습니다. 신은 애가 타고 절박한 나머지 간호하기에 급급하여 미처 성상께 아뢰지 못하였으니, 의리와 분수로 헤아려 보건대 참으로 크게 황송할 따름입니다.”

14일에 태어났다. 자(字)는 천식(千植)이요 이명은 수신(修臣)이며, 아호가 석정(石井)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인데 태사공파(太師公派)로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의 18대손이다. 조부의 휘(諱)는 상준(尙俊)이요 부친은 윤제(允濟)이며 일찍이 집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고 서당(書堂)을 열어 제자(弟子)를 가르쳤으니 산림학자(山林學者)로 이름이 높았다.

1907년 8월 20일 안성에서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밝혀 대일항전을 선포하고 의병(義兵)을 일으킨 김동식장군은 아들 김봉환(金鳳煥)과 50여명의 제자와 함께 즉각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을 선언하고 호영양남민군(湖嶺兩南民軍)을 일으켜 일본군을 토벌하여 왜적을 완전히 소탕하고 민족자치지구를 확보하였으니 그 탁월한 전략전술에 일본군도 경탄하여 그를 “호남민군(湖南民軍)의 선구자(先驅者)”, “그 기세가 충천하여 상대하기가 여의치 않다”, “출몰은현(出沒隱現)이 대단히 교묘하여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고 실토하고 마침내 일본군은 패전을 자인하여 말하기를, “순사주재소는 거의 전부가 습격을 당했고 양민(良民)을 위협하여 조세(租稅)를 횡령하고 재류 일본인 및 그 사역(使役) 하에 있는 조선인은 대개 폭도의 독수(毒手)에 목숨을 잃어 다년간의 사업경영을 포기하고 그 근거지로 퇴각하여야 하게끔 되었으므로 농업이 번성하던 전라양도(全羅兩道)는 이제 바야흐로 황무지화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호영양남(湖嶺兩南)의 산림학자 양반과 전체민중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룩한 영웅적 승리는 김동식 장군의 덕의(德義)와 지략(智略)과 신망(信望)으로 얻은 결정체였다.

그 후 1909년 9~10월에 일본군의 소위 남한대토벌작전으로 무려

120여명의 의병장과 1만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고 또한 호남 주민이 거의 반으로 줄었기에 우리 민군의 전력도 격감하였다. 이때 아들 김봉환(金鳳煥) 의병장도 포로가 되었으며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천황이 합방조서를 발표하여 대한독립의 희망을 무참히 꺾어버리니 많은 의병장이 피폐할 대로 피폐한 우리 강토를 떠나 만주 등의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의 기회를 기다렸으며 양심적 지식인들은 실망하여 삶을 포기하고 방랑객이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에서 오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독립전쟁을 계속하는 의로운 투쟁뿐이었다. 김동식장군은 흰눈이 내리는 겨울에 독립전쟁을 지키다가 의기가 꺾인 장병을 독려하고 절망에 빠진 인민을 격려하기 위하여 1910년 12월 27일 마지막으로 『주역(周易)』 곤복(坤復)의 논리를 설파하고 자결(自決)하였다.

광복을 맞아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그의 위대한 공적을 기려서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1990년 12월 26일에는 그 아들 김봉환(金鳳煥) 의병장에게도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1992년 6월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에 김동식 장군의 유해를 이장하였고 그 다음해 6월 1일에 정부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수여하였으며 또 1999년 12월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광복회에 의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 서정기, 『항일독립전쟁의 영웅 김동식 장군』, 2001년, 살림터.
 서정기, 『항일독립전쟁의 영웅 石井 金東植 將軍』, 2002년, 석정 김동식장군기념사업회.

신낙균(申樂均, 1889.~1955)

19세기 마지막 해인 1899년 4월 13일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해서 57세의 생애를 살다가 4월 4일 수원에서 작고하였다. 그의 짧은 생애와는 달리 만학이었는데, 생전에 여섯 곳의 학교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도쿄사진전문학교도 늦은 27세에 졸업하고 귀국 후에 사진활동과 저술활동을 계속했는데, 이 정신은 말년까지 이어졌다. 안성에서 공립보통학교(1912년 졸업)를 다닌 후 인천공립상업학교(1915년)를 다니다가 오숙근(吳淑根)여사와 결혼 후(1916년) 다시 진학해 경성관립공업학교를 졸업(1918년)하였다. 그 후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 정칙(正則)영어학교와 동양대학 문화학과를 거쳐, 1924년 일본 유일의 사진전문학교인 동경사진전문학교(東京寫眞專門學校)에 입학했다. 동경사진전문학교는 현 도쿄공예대학교 전신으로, 일본 대표적인 사진 산업체인 코니시로쿠의 창설자 杉浦六右衛門이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사진전문학교이다. 이 학교는 1926년에 도쿄사진전문으로 개칭해 많은 일본사진계의 지도자를 배출했는데, 선생은 1927년에 제2회로 졸업했다. 그가 이 학교에서 수학하던 시기는 니엡스의 사진발명 백년제가 개최되어 사진발명의 과정과 백년간의 사진변천사 등 많은 연구발표와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일본사진계는 메카니즘의 개발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사진공업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사진재료와 사진기까지도 자급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 사진술의 수입과 병행해 독자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도쿄사진전문학교의 학과목도 이러한 사진계의 분위기를 크게 반영해 편성되었다.

그는 짧은 생애에 두 번의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그 하나는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다. 당시 20세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지 10년, 압제에서 허덕이던 민중은 3·1독립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항해 일어섰다. 만세소리는 방방곡곡을 노도처럼 뒤덮으며, 서울에 인접한 안성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은 파급되어 경기도내에서는 수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안성3·1독립만세운동에는 거사준비에서부터 시위까지 생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참가했는데, 1970년대 말, 그의 친구인 이건춘(李建春, 전 『청년』지 편집장) 옹은 필자에게 “3월 29일 안성군 원곡면 독립만세시위에 가담했는데, 이를 앞두고 비밀리에 만세운동에 참가할 군중들에게 나눠줄 선언문을 복사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사전 거사준비를 했었다. 신낙균을 비롯한 우리 친구 몇 사람이 주동자와 함께 사랑방에서 시위에 필요한 물건들을 밤을 새워 만들고, 이것을 장터까지 들고 나가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그 후 신낙균은 이 사건 때문에 도피생활을 해야 했는데, 밤에 변장을 하고 안성을 빠져나가 서울에 피신해, 매부 정욱진(鄭旭鎭) 집에 은신해 8개월 동안을 숨어 살았다. 그리고 이 도피 생활 속에서 아마추어사진가이던 매부 정욱진으로부터 사진술을 접할 수 있었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사진과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올림픽대회의 마라톤 경주에서 손기정(孫基禎) 선수가 세계의 강호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우승하자 동아일보(東亞日報)의 사진부장으로 있던 그는 이 감격적인 민족적 쾌거를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손기정선수의 가슴에 단 일장기(日章旗)를 지우고 사

진을 게재하였다. 이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신낙균을 비롯하여 백운선(白雲善)·이상범(李象範)·서영호(徐永浩)·이길용(李吉用)·장용서(張龍瑞)·현진건(玄鎭建)·임병철(林炳喆)·최승만(崔承萬)·송덕수(宋德洙) 등의 동아일보 사원들이 일제 경찰에 구속되어 40여일에 걸친 문초를 받았으며, 동아일보도 네 번째의 무기정간을 당하였다. 그는 일제에 의해 언론계에서 추방당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77년 대통령포장과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권8 p.168.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권9 p.679.

박평중, 『신낙균의 사진관 연구』, 한국사진학회, 2005.

신낙균, 『1920년대에 쓴 최초의 사진학』, 2005. 5.

임근수(林根洙, 1859~1907)

안성읍 구포동에서 태어났다. 1907년 7월 일제가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양위시키고, 매국단체 일진회(一進會)가 고종의 헤이그 밀사 파견을 일본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고종의 일본행을 요청하여 고종이 일본으로 사과하러 가게 된다는 신문보도를 읽고 크게 분개하여 강태영(姜泰榮), 김명기(金明起) 등 동지들과 함께 민중을 동원하여 일진회 안성사무소를 습격하여 파괴했으며, 평택(平澤)역에서 고종황제가 승차한 열차를 저지시킬 계획을 진행 중에 안성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수원(水原) 서문밖에서 1907년

음력 7월 24일 총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표창을 하였으며,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독립문화사, 1955, p.247.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권1, 1971, p.389.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권3, 1971, p.512.

정한모(鄭翰謨, 1863~ ?)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그는 안성(安城)⁴⁶출신으로 본관은 동래(東萊), 영의정 태화(太和)의 사손(祀孫)이며, 인학(寅學, 사헌부대사헌, 이조참판, 궁내부특진관으로 칙임관 3등을 지냈다)의 아들이다.

1885년(고종 22) 유학(幼學)으로 증광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887년에 홍문관부정자가 되었다. 그 다음해에 교리가 되었으며, 헌납, 전적, 남학교수, 장령, 부응교, 집의, 수찬, 사간, 1891년 증광문과 초시(初試)의 시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해 동지사행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장악원정, 사헌부집의를 지내고, 이듬해 예조참의에 임명되었다가

46) 『승정원일기』 고종 25년(1888, 광서 14) 1월 29일에 “교리 정한모(鄭翰謨)가 현재 경기 안성(安城)에 있습니다. 경연에 입번(入番)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라고 하니 체차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신 겸 선전관으로 삼았으며, 2월 12일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부교리 정한모(鄭翰謨)가 현재 경기 안성(安城)에 있습니다. 경연(經筵)에 입번(入番)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下諭)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종 27년(1890, 광서 16) 또 “부수찬 정한모가 현재 경기 안성(安城)에 있으니,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등의 기록으로 보아 안성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돈녕부도정이 되었다. 우부승지, 사간원대사간이 되었고, 다시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뒤에 중추원의관이 되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국조방목(國朝榜目)』

김상천(金相天, 1863~1936)

대한제국기 언론인(言論人)이다. 1863년 안성에서 출생하여 1898년 남궁억(南宮億) 등 유학자들에 의하여 황성신문이 간행되자 황성신문(皇城新聞) 주필(主筆)로 활약하였다.

일제가 황성신문을 정간하여 재정난에 직면하자, 1907년 제4대 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정난 해소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후 유근(柳瑾)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후원에 앞장섰다.

이어 근대사립학교(近代私立學校) 설립(設立)에 앞장서 국민계몽(國民啓蒙)과 신교육(新教育)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에 투신하였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자, 실력에 의한 독립운동론(獨立運動論)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1923년 민족 지도자 양성을 위한 민립대학설립운동(民立大學設立運動)이 일어나자 중앙 위원(中央委員)에 선임되었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 국민의 지원 속에서 성취시키고자 전국 각지의 순회단을 결성하여 지방으로 내려가 지방인의 호응을 얻었다.

일제(日帝)는 온갖 방해와 책동으로 이를 저지시켰고, 1924년 경

성제국대학설치령(京城帝國大學設置令)을 발표하여 무산시키고 말았다. 이에 문맹퇴치와 생활개선을 위한 야학운동과 농촌계몽운동(農村啓蒙運動)에 활약하다가 73세로 사망하였다.

강태영(姜泰榮, 1871~1907)

유학자이자 의병운동가였다. 화성군 오산읍(烏山邑) 장지리에서 출생하였으나 곧 안성군 보개면 가현리(加峴里)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부친이 병으로 일찍 타계하여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안성향교에서 수학(修學)하였다. 일제의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와 단발령 강제에 격분하여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1895년 안승우(安承禹), 이춘영(李春永) 등과 함께 거의(舉義)하자, 강태영은 충주(忠州)에서 안승우 의진(義陣)에 군량미를 제공하며 의병활동을 도왔다.

1905년 일제에 의하여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고,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이 발생하자, 일제는 이것을 구실로 삼아 고종황제(高宗皇帝)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일본에 보내어 일왕에게 사죄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한 강태영은 안성청년회장으로서 동지였던 임근수(林根洙, 일명 楊洙)·김명기(金命基) 등과 함께 일진회(一進會) 안성사무소를 파괴하고, 결사대를 조직하여 군중들을 이끌고 고종의 일본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부선 철로 위에서 연좌시위를 계획하고 평택역으로 달려가려다가 피체되었다.

수원 주둔 헌병대(水原駐屯憲兵隊)에서는 수비대를 동원하여 군중을 해산시키고 의병들을 살해하였으며, 주동자인 강태영·임근수·김명기 등 3인이 체포되었으나 친일권고에 불응하며 항일의지를 굽

히지 않았다. 수원 헌병대에서 갖은 혹독한 고문과 악형을 당하다가 끝내 1907년 7월 24일 수원의 서문 밖에서 일제의 총살로 순국하였다. 1977년 대통령 표창과 함께 의사로 추서되었으며,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권, 독립문화사, 1955, p.74.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권1, 1971, p.389,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권3, 1971, p.512,

안국선(安國善, 1878~1926)

소설가로 호는 천강(天江)이며, 안성 고삼면 봉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저술로는 『외교통의(外交通義)』·『정치원론(政治原論)』·『연설법방(演說法方)』 등이 있으며, 신소설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과 『공진회(共進會)』가 있다.

일본유학을 한 개화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1895년(고종 32)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전문학교(東京專門學校)에서 정치학을 수학하였으며, 귀국 후 독립협회에 가담하여 국민계몽운동에 헌신하다가 1898년 독립협회 해산과 함께 체포, 투옥되어 참형의 선고를 받았다가 진도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1907년부터 강단에서 정치·경제 등을 강의한 그는 교재로 『외교통의』·『정치원론』 등을 저술하였으며, 『연설법방』은 당시 유행하던 사회계몽 수단인 연설 토론의 교본으로 저술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야뢰(夜雷)』·『대한협회보(大韓協會報)』·『기호홍

학회월보(畿湖興學會月報)』 등에 정치·경제·시사 등의 시사적인 논설도 발표하였으며, 대한협회의 평의원도 역임하였다. 그가 관계에 몸을 담게 된 것은 1908년 탁지부(度支部) 서기관에 임명되면서부터이다.

1911년부터 약 2년간 청도군수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형무소에 수감 중 기독교에 귀의하였고 계명구락부의 회원이기도 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금광·개간·미두·증권 등에 손을 대었으나 실패하고 일시 낙향하여 생활하였으나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다시 상경하였다. 그의 소설로는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과 『공진회(共進會)』 외에 필사본으로 『발섭기(跋涉記)』(상·하) 2권과 『도엽전』이 있다 하나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 그의 소설과 저술물의 기저를 이루는 사상으로 유교적 윤리와 기독교적 윤리사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당대의 혼란한 국가와 사회를 바로잡고자 한 그의 현실관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개조를 통한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을 이루려는 그의 태도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개화파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全光鏞, 「韓國小說發達史」下, 『韓國文化史大系』V,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7.

尹明求, 「安國善研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4.

權寧珉, 「安國善의 生涯와 作品世界」, 『冠嶽語文研究』2, 1977.

尹明求, 『開化期小說의 理解』, 仁荷大學校出版部, 1986.

김태영(金台榮, 1895~1977)

언론인으로 교육사업에 헌신하며,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곡동에서 유학자 김자성(金子聲)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청도(淸道)이고 호(號)는 추수(秋水)이다. 1910년 청도군 신원동에 설립된 사립 문명학교(文明學校)를 졸업한 후, 1913년 상경하여 보성중학교에 입학해 1917년 고학으로 졸업하였고 3·1운동 이후 안성 낙원동(樂園洞)으로 이주하여 1920년 4월부터 동아일보 안성분국 기자로 활약하다가 1921년 2월 안성분국장, 1923년 8월 안성지국장에 취임하여 1940년 8월까지 재임하였다.

1923년 5월 민립대학기성회(民立大學既成會) 안성지부 상임위원이 되었다. 1925년 5월 안성청년회 회장에 추대되어 청년운동을 지도했다. 1925년 『안성기략(安城紀略)』을 저술·간행하였고, 1927년 5월 신간회(新幹會) 안성지회 총무간사로 민족운동에 공헌했다. 1928년 동아인쇄주식회사 상무 취제역, 안성 유기제조주식회사 취제역을 역임했고, 1913년 성남전등주식회사 취제역 등을 겸임하였다. 1930년 5월 안청학원(安靑學園)을 설립하여 4년제 초등교육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1944년에 6년제 초등교육 과정으로 승격시킨 후 교장(校長)에 취임하였다. 1946년 안청공민학교(安靑公民學校)를 설립하였고, 1948년 2월 안청고등공민학교(安靑高等公民學校)로 개교하여 교장에 취임하였다.

《참고문헌》

金台榮, 『안성기략(安城紀略)』, 1925.

유일준(兪日濬, 1895~1932)

한말 의학자이다. 안성 출생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병리학교실에서 연구하였다. 조선총독부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다가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에 유학하였다.

그 곳 미생물학교실에서 장티푸스·파라티푸스 및 이질 균족의 변이성, 폐렴균, 특이성 침강반응, 결핵진단, 장기단백질의 특수성 등을 연구하여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26년 모교인 경성의학전문학교 미생물학 교수에 임명되어 의학미생물학의 기초를 확립하고 후배를 양성하는 데 진력하였는데, 세균학교실을 이끈 초기 3년 동안 『저온 응집소의 혈청학적 연구』, 『키닌 용혈작용과 유지방의 관계 연구』 등의 업적을 남겨 면역학의 개척자가 되었다. 1927년부터는 발진티푸스에 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외에서 크게 평가받았다.

《참고문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과 기술』, 1984.

안회남(安懷南, 1910~ ?)

개화기 신소설작가로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을 쓴 고삼면 봉산리 출신 안국선(安國善)의 아들이다. 본관은 죽산, 본명은 필승(必承)으로, 소설가·평론가로 활동하였다. 1924년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 3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으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후 개벽(開闢)지의 사원으로 입사 후, 약 10여 년간 창작생활에 전념하였다.

193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발(髮)』이 3등으로 입선되면서 작가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예술과의 작가로 평판되었고, 당대 일본 문단의 신흥예술가를 신동아(新東亞, 1932. 11.)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전기에는 주로 신변, 가정사를 소재로 한 심리 추구가 주조를 이

룬 『연기(煙氣)』(1933년), 『명상(冥想)』(1937년) 등을, 후기에는 거의 개인적인 주변사를 다룬 작품으로, 『소년과 기생』(1937년), 『온실(溫室)』(1939년) 등이 거론된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악마(惡魔)』(1935년), 『우울』(1935년), 『향기(香氣)』(1936년) 『그날 밤에 생긴 일』(1938년), 『겸허(謙虛) 김유정전』(1939년), 『탁류(濁流)를 헤치고』(1940년) 등이 있다.

이들 소설들은 그의 평론(본격소설론-진실과 통속성에 관한 제언, 1937)에서 소설의 목표를 인생의 묘사, 특히 ‘인생의 단면’ 묘사에 있다고 한 말과 ‘나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애와 결혼과 문학’이라고 한 논리와 상통한다. 1944년 9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북구주 탄광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귀국하였다.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소설부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다가 월북하였다. 이 무렵 발표한 작품으로는 『폭풍(暴風)의 역사』(1947년)와 『농민의 비애(悲哀)』(1948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작가적 변신을 시도한 바 있었다. 이 해에 월북한 후, 별로 뚜렷한 작품 활동이 없었고, 문학인의 빛을 잃고 말았던 것 같다. 본래 프로문학작가가 아니었던 그로서는 북한의 문학이념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 채 문필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임화(林和), 「安懷南氏에게」, 『文學評論』, 1947. 4.
 김남천(金南天), 「世態, 風俗, 描寫, 其他」, 『批判』, 1938. 5.
 신형기, 「신변소설에서 사회적 소설까지-안희남론-」, 『文學思想』, 1988. 11.
 박신현, 「안희남론-허무와 애착, 그 야누스적 고뇌-」, 『文學精神』, 1989. 10.

끝으로 안성의 인물을 서술함에 있어 유관(有關)인물이 많고, 참고자료가 인물에 따라서 지나치게 번다(繁多)하기도 하고 간략하기도 하여 서술에 평형을 잃은 감이 없지 않다. 또 조사가 미치지 못해 누락된 인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독자, 특히 그의 후손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너그러운 촌탁(忖度)으로 이해있으시길 바란다.

4장 안성의 역대선생안(歷代先生案)

선생안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아에서 전임 관원의 성명(姓名)·관직명(官職名)·생년(生年)·본적(本籍) 등을 기록한 책으로 여기에는 관직 제수 일시·부임 일시·퇴임 일시 및 퇴임하게 된 사유 등이 전국의 300여의 읍지(邑誌)나 별도의 선생안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안성에서도 선생안이 기록되어 내려왔을 것이나, 언제 어떤 이유로 해서 전해지지 않게 되었는지, 예컨대 선생안이 병화(兵火)에 의해 소실되었는지, 도난을 당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말에 발간된 두 권의 『안성읍지』에도 선생안이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경기일원의 각 읍지(邑誌)에 보면 그 지역을 이끌었던 주목군현의 ‘선생안(先生案)’이 읍지에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는 읍지(邑誌)와 별도로 기록한 ‘선생안(先生

案)’이 전해지고 있어, 그 고을 수령의 임면(任免)에 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안성읍지는 두 차례 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선생안이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기록된 선생안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당시 안성을 다스렸던 감무나 군수들의 부임·이임시기 등 임면의 면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후 발간된 군지(郡誌)와 향토지를 비롯해 안성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서적들이 출간되어 왔으나 안성에 부임한 군수들의 명단은 고작 50~6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향교지를 출판하는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문헌을 통해서 파악된 역대군수들의 숫자는 330여명에 이른다. 650여 년 동안 안성을 이끌었던 군수들을 추산해 볼 때 그 절반밖에 못 미치는 숫자이며 그 전모를 파악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안성은 신라 경덕왕이 본래 고구려 내혜홀(奈兮忽)을 백성군(白城郡)이라 고쳐 부르게 하였다. 이후 고려초기부터 현(縣)이 설치되었으나 명종 2년(1172)에 와서야 비로소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인 감무(監務)를 두게 되었다.

안성은 이렇듯 고려전기에는 감무가 파견되던 일개 현(縣)에 불과하였으나, 공민왕 10년(1361)에 홍건적들이 10만 명을 이끌고 2차 침입하여 크고 작은 고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공민왕은 다급한 나머지 도성을 버리고 안동으로 피신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고장의 선현들은 침착하면서도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저들의 선봉을 맞아 겉으로 항복하는 체하면서 술과 음식을 내어 취하게 한 뒤에 야밤에 저들을 도륙하여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게 하였

다. 이러한 전과를 통하여 중앙군이 전열을 정비하여 반격할 수 있는 시간과 사기를 진작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 공으로 현(縣)이 군(郡)으로 승격되어 지군사가 다스리는 고을로 승격되었으며, 조선 전기까지 지군사로 내려오다가 연산군 이후에 군수가 파견되기 시작하여 20세기 말까지 약 640여 년 동안 군수가 부임하여 안성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조선시대 수령의 재임기간이 평균 1년여 정도에도 못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고려 공민왕 11년(1362) 이후 안성을 다스렸던 목민관의 숫자는 약 6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성을 이끌었던 수령들은 조선 전기에는 문인이 많았으나 후기로 내려오면서 무관이나 음직으로 출사한 인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리고 교체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이직(移職)이나 승진(昇進)·파직(罷職)·사직(辭職)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왕조실록이나 기타 관찬서에 안성군수로 임명받고도 부임하지 않은 것도 안성군수를 지냈다고 보아야 할지, 현지에 부임하여 하루라도 임무를 수행하면 군수로 보아야 할지, 모호한 구석이 없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군수나 기타 지방직에 임명은 받았지만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고 있다가 해임되거나 임지에 부임하기 전에 파면되거나 병으로 죽어 실제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서에는 관찬(官撰)이나 사찬(私撰)에 등장하는 기록을 준용하여 수령의 역대선생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안성군수 선생안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번에 정리가 가능한데까지 작업을 해두었다가 차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은 참고만 할 뿐 실제 부임하여 임무를 수행한 수령의 명단으로 단정하기 곤란함을 미리 밝혀둔다.

1. 고려시대(高麗時代) 안성의 수령

고려 전기에는 지방을 향호(鄉豪)세력인 호장들이 다스려 왔으나 명종 2년(1172)에 들어와 조정에서 임명한 중앙의 관리가 안성에 내려와 지방민을 이끌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는 감무(監務)로서 고을의 수령으로 내려와 정무(政務)를 보게 되었다. 이후 공민왕 11년(1362)까지 190여 년 동안 안성을 이끌었던 감무의 임면(任免)에 관한 주요상황들이 기록된 '선생안(先生案)'이 전하지 않고 있어 그 면모를 찾아볼 길이 없다. 하지만 공민왕 11년(1362)에 안성현이 군(郡)으로 승격되어 지군사(知郡事)가 정무를 보기 시작하여 공양왕 4년(1392)까지 30년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에도 안성을 이끌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으나, 그 중 겨우 일곱 명밖에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知郡事	신인도(愼仁道)	居昌	1363. ~ ?	부임하여 극적루를 세웠다. 이 누각은 흥건적에게 분발한 공로와 지관(知官)으로 승격된 영화를 정표(旌表)한 것이다.
지군사	송소(宋瑠)	鎭川	? ~ ?	고려시대 문화찬성사를 지낸 지백(之伯)의 둘째 아들로 지안성군사를 지냈으며, 송광보는 셋째 아들이다.
지군사	허주(許周)	河陽	? ~ 1384.	아들 허성(許誠)은 예조와 이조의 관서를 역임하고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다. 동생 허조는 세종 때 좌의정이다.
지군사	김겸(金謙)		1388.2.1. ~ 1388.	양촌선생문집 제16권 무관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지군사	허주(許周, 1358~1440)	河陽	1388.~1389.	또 지안성군사가 되니, 아전과 백성들이 외복(畏服)하여 쫓았다. 임기가 차서 개성소윤에 제수되었으며, 뒤에 공주목사가 되었다.
지군사	송광보(宋匡輔)	鎭川	? ~1391.	지안성군사를 지낸 송소(宋瑫)의 아들이다.
지군사	윤충보(尹忠輔)	茂松	1391.~1392.7.17.	여주사람으로 고려가 망하자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일생을 마쳤다.

2. 조선시대(朝鮮時代) 안성의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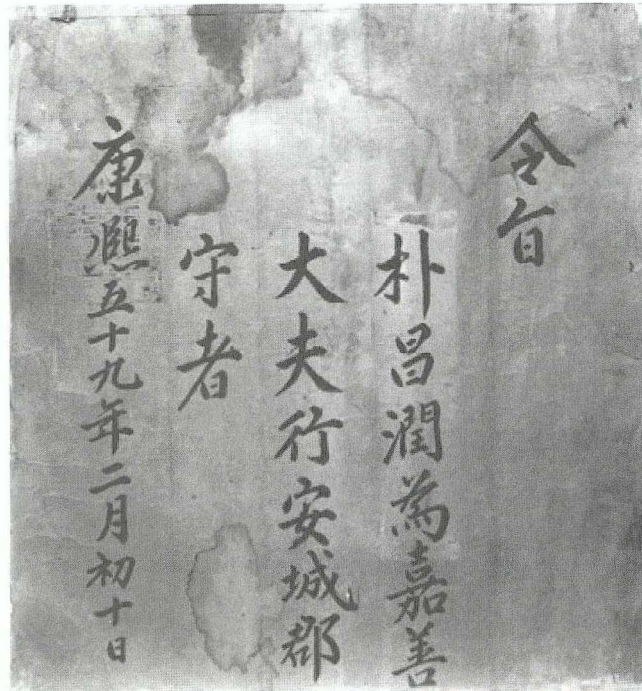
이번 향교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헌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중종이후부터 안성에 부임한 수령의 면모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목민관들의 전력도 아울러 확보하여 당시 안성을 다스렸던 수령들의 이력과 활동상을 통해서 당시 안성의 실정을 어느 정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성의 수령으로 내려와 군민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조선 전기에는 지군사의 직함으로, 중기에는 군수(郡守)의 직함으로 부임하였다.

조선 전기의 선생안 기록안이 남아 있지 않은데 비해, 조선 후기에는 그 기록이 상당부분 읍지 속에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조선 후기에는 전국 각 지방에서 자기 고을의 연혁(沿革)·방리(坊里)·호구(戶口)·풍속(風俗)·고적(古蹟)·토산(土産)·인물(人物)·능묘(陵墓)·사찰(寺刹)·봉수(烽燧)·산천명승(山川名勝)·제영(題詠)을 기록하고, 전임 관원의 성명(姓名)을 기록한 선생안(先生案) 등을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성읍지는 두 차례나 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장의 인물에 대한 기술이 타 지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고, 전임 수령들의 기록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선생안은 그 지역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사료가 되리라 본다. 이번 향교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안성군수를 지낸 인물들을 찾아내고 이를 아래에 기록으로 남겨둔다. 이와 같은 조사 작업 중에 조선시대 안성군수를 지낸 인물의 교지(教旨)와 묘비(墓碑)를 발견하게 된 것은 부수적인 성과물이라 할 것이다. 먼저 숙종 46년(1720. 2. 9.~1720. 8. 5.)에 6개월간 안성군수를 지낸 밀양박씨 박창윤(朴昌潤) 교지의 발견이다. 강희 59년(1720년)에 국왕이 박창윤을 가선대부 안성군수로 임명하는 교지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진에 실린 묘비는 숙종 24년(1698) 4월에 부임한 전주이씨 이규수(李奎壽) 군수의 묘비로 안성 일죽면에 있다.



朴昌潤의 안성군수 임명교지



李奎壽군수의 묘비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知郡事	이상원(李上垣)	新平	? ~ ? 1401년 출함	自著 권14 家傳 및 신평이씨대동보
지군사	이염(李稔)	遂安	? ~ ? 1403년 출함	『세종실록』 64권 16년 6월 20일조, “죽은 지안성군사 이염(李稔)이 아들이 없어서.....”
지군사	정수홍(鄭守弘)	東萊	1398(태조7).윤5.15.	본책 인물편 참조
지군사	김기(金芑)			반남 박상충의 시위 박언의 매부 『소고집(嘯臯集)』 박승임(朴承任)
지군사	김점(金漸)		? ~ ?	전주목사로 감
지군사	오을재(吳乙濟)		1412(태종 12년)이전	1427년 1월 7일 장60대를 치다.
지군사	권상온(權尙溫)	安東	? ~ ?(태종년간)	1418년 1월 12일 “사헌부탄핵 일찍이 안성의 수령이었을 때.....”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지군사	유순도(庾順道)	茂松	? ~ 1417.6.21.	사헌부에서 죄를 핵청(劾請)하였다.
지군사	이중만(李仲蔓)		1426.12.3. ~ ?	지안성군사 이중만이 사조하다.
지군사	박취신(朴就新)	固城	1425년경	충주관관 세종3년 신축(1421) 1월 27일. 무과(武科)
지군사	이백충(李伯忠)		1433.2.5. ~ ?	지안성군사 이백충이 사조하다
지군사	신윤(辛昫)	靈山	? ~ ?	1473년 1월 27일 졸하니, 나이가 79세, 지중추부사 신윤의 졸기
지군사	신균(申均)		1439.7.28. ~ ?	신균이 하직하니 왕이 면대하였다.
지군사	이중손(李仲孫)	陽山	1451.~1452(문종2) 사이	문종조에 안성군수와 사헌부 집의를 지냄
지군사	김상강(金相强)	光山	1463.10.26. ~ ?	광산김씨 양간공후 24세 진사
군수	이영희(李永禧)	全義	? ~1478.11.	상피로 체직. 尹壕의 사촌 동생
군수	최옥순(崔玉筍)		? ~1484.12.21.	곡물납부와 관련 국문을 받음
군수	유경(劉璟)	金城	1494.4월초~1497.10.28.	문과. 천안군수로 감.
군수	박승환(朴承煥)		1497.10.28. ~ ?	
군수	이전(李詮)	星州	1500.1.13. 이전	실록
군수	심빈(沈濱)	靑松	1501.~1502	1502년 군수로 재임 중 병사함
군수	홍언필(洪彦弼)	南陽	? ~1507.11. 문과 重試	1507년 11월 이전
군수	김습(金習)	慶州	? ~1507.11.2.	“대간이 정사를 서슴지 않고 말해 준다 하여 가장히 여겨 술을 내리다. 전에 안성에 재임할 때.....”
군수	이은(李闇)	廣州	? ~1510년경	고원군수에 전임되었다. 중종14년 기묘 사화에 연좌되어 영광으로 유배되었다가 3년 만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군수	장중손(張終孫)		? ~1515.12.25.	노비 간음으로 체차
군수	박준(朴僞)	固城	? ~ ? (중종년간)	

1196 안성향교지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안처명(安處明)	順興	? ~1523.	1529.4.16일자 “전에 안성군수를 맡았을 때 탐장질을 일삼았으므로.....”
군수	유의(柳依)	晉州	? ~1529.1.7.	遞差
군수	심광언(沈光彦)	靑松	1536.~1537.	
군수	권소(權劬)		? ~1537	1538.1.28일 전안성군수 탐학 추고.
군수	남세평(南世秤)	宜寧	1538.~?	아들 연경이 명종(明宗) 3년 (1548) 별시에 급제
군수	정공징(鄭公徵)		? ~?	1543.10.26자 실록에, “안성군수를 지낼 때에 물의를 중하게 받아서 체직되었는데.....”
군수	유수천(柳壽千)	文化	? ~1543.9.15.	개차(改差)
군수	이홍석(李弘錫)	延安	? ~?	이의현(李宜顯) 조부(祖父)
군수	홍춘년(洪春年)	南陽	? ~?	선정비. “1550년 9월에 통훈대부행장악원 첨정으로 있었으므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안성군수를 지냈다고 추정됨..
군수	이수전(李守全)	陽山	? ~?	명종 때 음사(蔭仕)로 한성참군을 거쳐 안성군수가 되었다.
군수	김위(金偉)	慶州	1569.2.~?	
군수	정돈복(鄭敦復)	東萊	1569.~?	1567년 무과급제
군수	서엄(徐崦)	大邱	1572.12.12.~?	고봉집 선정비
군수	송숙경(宋叔璟)		1576.8.7.~?	
군수	서진지(徐鎭之)		1576.~1586. 사이에 군수를 지냄	
군수	여위(余爲)	宜寧	? ~?	
군수	조대곤(曹大坤)		1582.9.1.~?	선정비
군수	정염(丁焰)	昌原	1582.~1584.	光州목사로 감. 저서로 만헌집(晩軒集)이 있다.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고성후(高成厚)	長興	1592.~1592	
군수	이몽대(李夢台)		1592.~1593.	삭령의 표절사(表節祠)에 배향됨. 임란 때 이곳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군수	송취주(宋揮塵)	楊州	1593.~?	송의랑군지주부로 임란시 전사
군수	이대수(李大秀)	韓山	?~1596.11.	체차. 군무에 어두움
군수	기훈(奇薰)	행주	1596.11.20.~?	서산군수로 감. 무과급제.
군수	유몽경(柳夢經)		?~1598.1.13. 이날 사형됨.	사형. 임란시 왜적이 안성에 침입하기 전 도망침.
군수	조광익(趙光翼)	昌寧	?~1598.4.28	『선조실록』
군수	이대이(李大頤)	杞溪	?~1599.6.6.	파직. 下吏에게 정사를 맡긴 일로
군수	김장생(金長生)	光山	1599.6.11.~1601.10.1.(2년 4개월)	사계선생을 모신 도기서원이 건립되었으나 대원군 때에 철폐됨.
군수	정종명(鄭宗溟)	驪興	1601.12.1. 의망에 올랐으나	“종명을 안성군수로 의망하니 상이 불운하였다. 송강 정철의 아들이라 하여”
군수	민여신(閔汝信)	延日	1601.12.1.~1602.8.(8월)	
군수	정영국(鄭榮國)	盈德	?~1609.11.	下吏에게 정사를 맡긴 일로 탄핵
군수	이창후(李昌後)	농서	?~1611.4.5.	이이첨의 인척으로, 가솔(家率)을 데리고 있으므로 파직됨
군수	이언좌(李彦佐)	全州	?~1615.8.17.	8월(도독체포) 포상 받음
군수	심대복(沈大復)		?~?(광해군 연간)	『息山先生文集』 권20
군수	송유조(宋裕祚)	恩津	?~?(광해군 연간)	고산(高山)·청양(靑陽)군수를 지냈다. 청양을 떠난 지 1년 후인 1629년에 졸하였다.
군수	허휘(許徽)	陽川	1623.~?	예천군수로 감.
군수	정호서(丁好恕)	押海	1623.~1624.1.	선정비
군수	김근(金瑾)	安東	1624.8.31.~1624.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허수(許綏)	陽川	1625.3.24.~1626.5.	애민비
군수	이수일(李守一)	慶州	? ~ ?	인조반정공신
군수	이현(李現)	延安	? ~1629.4.6. 병조참의	罷職을 청하는 京畿監司의 서목
군수	이후배(李厚培)	全州	1629.4.6. ~ 1629.7.25. 昭武原從功臣	6월 20일 遞職을 청하는 허적(許積)의 두 번째 상소
군수	정승택(鄭承澤)		1629.7.25.~1629.12.22. (5개월)	鄭承澤의 罷職 등을 청하는 兪省曾의 啓
군수	김수렴(金守廉)	慶州	1629.4.10. ~ ?	
군수	김만기(金萬基)		1630. ? ~ ?	平山府使李公行狀『息庵先生遺稿』 권 22.
군수	이종(李宗)	慶州	? ~1632.5.26.	章陵에 堂上 이하가 上來할 때 이유없이 支待하지 않은 罷職에 관한 京畿監司의 서목
군수	윤취지(尹就之)		1632.6.12.~1634.12.20. (1년 6개월)	
군수	이경인(李敬仁)	全州	1634.12.27.~1637.4.12. (3년 4개월)	官穀의 보존에 공이 있는 이경인의 褒獎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선정비 1642.4.
군수	한자구(韓子耆)	靑松	1638.~1639.9.4	皆其所歷也。安城時。有挾左道以惑人者。公杖殺之
군수	이공익(李公益)		1639.9.4.~1640.10.21	
군수	□종길(□從吉)		1640.10.21.~1641.12.1. (1년 2개월)	혹 安成吉이 아닌가 생각함. 1642.4. 청덕비가 있음.
군수	이시재(李時材)		1641.12.1.~1643.6.16. (2년 6개월)	1642년 1월 19일 서경하라함.
군수	남명익(南溟翼)	宜寧	1643.6.16.~1644.4.21. (10개월)	1644.12. 영세불망비
군수	진극일(陳克一)	驪陽	1644.4.22.~1645.6.26. (1년 2개월)	정난공신. 거제도 동부면 학동에 影禎을 모신 靖忠祠가 있음.
군수	한익명(韓翼明)		1645.6.26.~ ?	
군수	권경근(權敬近)	安東	1648.6.17.~1650.10.11.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이성징(李星徵)	延安	1650.10.11.~1650.12.9(2개월)	1652.2.애민비
군수	한수원(韓壽遠)	淸州	1650.12.9.~1651.10.15.(10개월)	자는 子騫. 생진시 합격. 김장생과 정엽의 문인
군수	서택리(徐擇履)	大丘	1651.10.15.~1652.4.(6개월)	자는 汝精. 생원시. 1651.5.불망비. 10월경선과후추 간음사선 음폐
군수	김홍석(金弘錫)	延安	1652.~1653.1.17.	
군수	이광필(李光弼)		1651.~1652.1.28.	무관(武官)
군수	이민화(李敏華)	全州	1652.1.28.~1653.1.17	선정비 1653년 1월
군수	신량(申亮)	高靈	1653.1.17.~1654.6.6.(1년 5개월)	호는 湖隱. 사마시에 합격. 『호은문집』이 전한다.
군수	이장영(李長英)	全州	1654.6.6.~1654.6	경기감사장계에 병중과출청
군수	홍명하(洪命夏)	南陽	1654.6.~1654.6.13.	문과. 호 沂川. 영의정을 지냈으며, 청백리에 녹선됨
군수	김우석(金禹錫)	商山	? ~1659.2.8.	聖廟 근처에 校奴輩들의 神祀 설립을 금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罷職을 청한다고 刑曹가 아뢰.
군수	홍처준(洪處濬)		1659.2.9.~1659.11.8.(1년)	
군수	이준악(李峻岳)	龍仁	1660.11.13.~1661.9.10.(10개월)	부친상을 당함 京畿監司의 서목. 자 汝極. 생원시
군수	박일운(朴一運)		1661.9.18.~1661.9.19.(1일)	개차(改差)
군수	박매(朴邁)		1661.9.19.~1661.9.21.(3일)	개차
군수	원만춘(元萬春)	原州	1661.9.21.~1663.7.8.(1년 10개월)	개차 양전(量田)하기를 균일하게 하니 백성들이 은혜를 칭송하였다
군수	이충연(李冲淵)		1663.7.8.~1664.1.17.(6개월)	
군수	이명담(李命聃)		1664.1.20.~1665.2.28.(1년)	1664년 11월 표리 1습을 하사받음
군수	권순창(權順昌)	安東	1665.2.28.~1665.3.8.(1개월)	권경근의 아들로 자 聖之. 김장생의 문인으로 부자가 안성군수가 되었으며, 寧國原從功臣이 됨.

1200 안성향교지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이지하(李祉遐)	廣州	1665.3.8.~1665.10.2.(6개월)	자 字綏. 사마시
군수	이익배(李益培)	全義	1666.10.2.~1666.10.4.	개차
군수	김인량(金寅亮)	安東	1665.10.4.~1666.10.6.(1년)	자는 代天이며, 丁卯년에 진사
군수	송시증(宋時曾)	恩津	? ~ ?	은진송씨족보 및 승정원일기
군수	정사효(鄭思孝)	溫陽	? ~1679.5.	진사 및 문과급제 선정비1694.5.
군수	허륙(許陸)	金海	1670.8.7.~1671.10.7.(1년 2개월)	무과(武科)
군수	최효건(崔孝騫)	水源	1671.10.7.~1671.10.14.	문과(文科). 개차
군수	김하중(金夏鍾)		1671.10.14.~1672.윤7.12.	개차
군수	유탁연(柳卓然)	晉州	1672.윤7.12.~1672.	진사(進士)
군수	김하현(金夏鉉)	慶州	? ~1673.5.18.	생원 및 문과급제. 정월에 정한기를 논 핵하고자 연명으로 통간을 냄. 부윤을 지냄.
군수	최완(崔浣)	江陵	1673.5.18.~1673.10.16.	문과(文科)
군수	권순창(權順昌)	安東	1673.10.16.~1673.12.1.	두 번째 안성군수를 지냄
군수	권대운(權大胤)	安東	1673.12.11.~1675.3.	
군수	이?		1676.12.19.~1677.4.20.	
군수	안? (安)		1977.12.19.~1678.4.20	
군수	이지웅(李志雄)	碧珍	1678.4.20.~1678.11.17.	
군수	윤원(尹源)	坡平	1678.11.17.~1679.10.24.	
군수	박태장(朴泰長)	潘南	1679.10.24.~1679.12.5.	
군수	이장영(李長英)		1679.12.5.~1680.10.15.	
군수	박빈(朴斌)		1680.10.16.~1681.8.8.	가선대부
군수	이만성(李晩成)	全州	1683.5.26.~1686.4.4.	부좌상사 白軒文忠公景奭의 손자
군수	이여(李畬)	德水	1686.4.5.~1686.4.10.	문과. 좌의정을 지냄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황쇠(黃釗)		1686.4.10. ~ ?	
군수	성진(成璿)	昌寧	1689.윤3.21. ~ ?	문과
군수	목창우(睦昌遇)		1691.6.14. ~ ?	
군수	이수준(李秀儁)	韓山	1694.7.17. ~ ?	
군수	이도원(李道源)	全州	? ~ 1697.6.11.	高陽郡守李公墓誌銘
군수	이창조(李昌肇)	晉州	1697.6.12. ~ 1698.4.27.	
군수	이규수(李奎壽)		1698.4.27. ~ ?	遺愛婢 1702.3. 보개면에 묘와 묘비가 있다.
군수	이용신(李龍臣)	延安	? ~ ?	이일상의 손자 『豊墅集』권11.
군수	신처화(申處華)		1701.2.28. ~ 1703.3.20. (1년 11개월)	
군수	이홍조(李弘肇)	全義	1703.3.20. ~ 1703.12.21. (9개월)	통진부사로 감.
군수	유상(柳瑞)		1703.12.21. ~ 1706.5.17. (2년 5개월)	
군수	김도제(金道濟)	淸風	1706.5.17. ~ 1707.8.24. (1년 3개월)	사망. 1714.3. 선정비
군수	정사신(丁思愼)	羅州	1707.8.28. ~ 1708.7.4. (11개월)	생진시 및 문과
군수	권지(權持)	安東	1708.7.4. ~ 1709.1.28. (6개월)	
군수	한종로(韓宗老)	淸州	1709.1.28. ~ 1710.4.28. (1년 3개월)	
군수	윤지경(尹趾慶)	坡平	1710.4.28. ~ 1711.7.1. (1년 3개월)	성천부사로 감
군수	김흥경(金興慶)	慶州	1711.7.1. ~ 1712.12.3. (1년 5개월)	
군수	송상증(宋相曾)		1712.12.3. ~ 1714.11.7. (2년)	
군수	이기현(李箕獻)	全州	1714.11.7. ~ 1714.11.11. (4일)	文科
군수	조태수(趙泰壽)	豊壤	1714.11.11. ~ 1714.11.20. (9일)	
군수	박상순(朴尙淳)		1714.11.20. ~ 1716.12.26. (2년 1개월)	
군수	이명관(李命觀)	韓山	1716.12.26. ~ 1718.4.9. (1년 8개월)	숙종 17년 5월 29일 포상함. 身死事

1202 안성향교지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조창수(趙昌壽)		1718.4.12.~1720.1.21.(1년 9개월)	
군수	김수(金洙)	淸風	1720.1.21.~1720.2.9.(18일)	
군수	박창윤(朴昌潤)	密陽	1720.2.9.~1720.8.5.(6개월)	안성군수 교지의 주인공
군수	조수(趙修)		1720.8.5.~1721.4.28.(8개월)	삭거사관 김창집과 연관
군수	이위(李瑋)	全州	1721.4.28.~1722.3.26.(11개월)	增廣試
군수	정후일(鄭厚一)	迎日	1722.3.27.~1722.9.14.(6개월)	
군수	이형곤(李衡坤)		1722.9.14.~1723.6.2.(9개월)	
군수	이성좌(李聖佐)	全州	1723.6.2.~1723.6.6.(5일)	탐독 삭거사관(김창집의 인척)
군수	이수헌(李秀憲)		1723.6.6.~1725.6.2.(2년)	
군수	송상유(宋相維)	思津	1725.6.2.~1726.5.2.(11개월)	평산부사
군수	서종집(徐宗集)		1726.5.2.~1727.8.17.(1년 2개월)	宣惠廳郎廳
군수	한범석(韓範錫)		1728.3.14.~1728.3.15.(2일)	
군수	이광직(李光績)		영조 4년(1728) 3월 28일자 국문초록에	이광직 역시 그 가운데 들었습니다.
군수	민제장(閔濟章)	驪興	1728.3.15.~1728.5.20.(2개월)	군수로 부임하여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아우 濟萬과 함께 반란군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워 분무일등원종공신에 훈록되었다.
군수	이룡신(李龍臣)	延安	1728.5.20.~1730.8.9.(2년 3개월)	
군수	이종성(李宗城)	慶州	1730.8.10.~1730.11.25.(3개월)	진사시와 문과 후 영의정. 시호 문충공. 『오천집』이 있다.
군수	성의석(成義錫)	昌寧	1730.11.27.~1731.6.21.(7개월)	
군수	조영록(趙榮祿)		1731.6.21.~1734.10.20.(1년 4개월)	생원, 영조 8년 10월 12일 진구(賑救)를 잘한 것이 도내(道內)에서 으뜸이니, 가자(加資)해야 마땅합니다.
군수	조명재(曹命宰)	昌寧	1734.10.20.~1737.윤9.29.(3년)	진사. 선정비 영조15년 건립.
군수	박종(朴琮)	密陽	1737.윤9.29.~1741.	자 國珍. 생원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한덕필(韓德弼)	淸州	1741.5.25.~1741.10.14.(5개월)	
군수	홍전보(洪銓輔)	豐山	1741.10.14.~1744.	진사. 선정비 영조20년 6월
군수	원경순(元景淳)	原州	1744.6.5. ~ 1745.1.28.(7개월)	문과. 이조판서
군수	이제원(李濟遠)	牛峯	1745.1.28.~1745.12.12.(11개월) 도암 이재의 자	문과 대사간. 선정비 영조23년 4월 立殉義碑于壬辰義兵將洪季男戰壘以表之.
군수	김한정(金漢禎)	慶州	1745.12.12.~1746.9.10.(9개월)	
군수	심득현(沈得賢)	靑松	1746.9.10.~1747.8.22.(11개월)	자 共叔. 진사
군수	구척(具伋)		1747.8.18.~1747.8.22.(4일)	선정을 베풀
군수	심득진(沈得眞)		1747.8.22.~1748.6.21.(10개월)	
군수	정여직(鄭汝稷)	草溪	1748.6.21.~1749.8.10.(1년 2개월)	무과에 급제하여 어영대장 한성부우윤
군수	조재일(趙載一)	豐壤	1749.8.10.~ ?	자 得而. 진사
군수	서민수(徐敏修)	大邱	1752.6.4.~ ?	자 士行. 진사
군수	신흡(申曉)	平山	1755.4.4.~ 1755.4.13.	
군수	한덕일(韓德一)	谷山	1755.4.13.~ ?	자 伯咸. 진사. 충주 출생
군수	이성모(李聖模)	德水	1759.5.28.~1761.2.25(1년 9개월)	자 汝仰. 진사. 지평 출생
군수	박호원(朴好源)	潘南	? ~1761.5.22	자 民則. 진사. 영천군수로 감.
군수	이의현(李宜顯)	延安	1762.11.12.~ ?	『陶谷集』권21 禮曹判書宋公諡狀
군수	홍준해(洪準海)	南陽	? ~ ?	진사 및 문과. 자 효직(孝直)
군수	이성진(李成鎭)	德水	1764.12.25.~1765.1.	자 大裕. 생원
군수	김두추(金斗秋)	光山	1765.1.3.~1765.1.3.(당일)	饑民보고 부실. 파면
군수	이영배(李永培)	全義	1765.1.3.~1766.1.3.(1년) 李德隣아들	자 久之. 掌苑署別提로 감
군수	이복원(李福源)	延安	1767.6.30.~1768.6.17.(1년)	문과. 좌의정 및 영종추부사
군수	정소검(鄭昭儉)	東萊	1768.6.17.~ ?	자 子天. 생원

1204 안성향교지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이기경(李基敬)	全義	1771.4.7.~1771.4.14.(7일)	자 伯心. 문과장원. 淸州敎使로 감.
군수	송익수(宋翼洙)	礪山	1771.4.14.~1771.10.9.(6개월)	
군수	한후유(韓後裕)	淸州	1771.10.9.~ ?	자 伯昌. 생원
군수	김복근(金復根)	安東	1774.3.4.~1776.6.15.	
군수	한명주(韓命周)	淸州	? ~1776.11.9.일자 죄인?	
군수	김이현(金履鉉)	安東	1776.12.27.~1776.12.29.(2일)	친안군수로 발령
군수	이우배(李雨培)	全義	1776.12.29.~ ?	
군수	이국향(李國享)	全州	1778.2.24.~1779.2.27(1년)	1월경 給災를 거깃보고와 착복, 추핵
군수	이창중(李昌中)	全州	1779.12.29.~1780.2.16(2개월)	군수 8월 11일 이창중에게 아마 1필을 사급하도록 하라.
군수	엄사만(嚴思晩)	寧越	1780.2.18.~ ?	자 寡悔. 문과
군수	민백준(閔百準)	驪興	1780.5.11.~1781.윤5.13.(1년)	민백준의 묘갈명에는 안성 사민이 송덕비를 세웠다고 한다.
군수	이보첨(李普瞻)	龍仁	1781.윤5.13.~1781.윤5.27.(14일)	
군수	방진성(方盡誠)		1781.윤5.27.~ ?	
군수	김서갑(金瑞甲)	光山	1782.4.15.~1784.12.25.(2년 8개월)	
군수	김리현(金履顯)		1784.12.25.~1785.8.15.(8개월)	
군수	이천목(李天穆)	韓山	1785.8.15.~1789.5.26 (3년 9개월)	홍산현감. 자 命興. 진사
군수	김용주(金龍柱)	慶州	1789.5.26.~1790.12.15.(1년 6개월)	利川牧과 相換
군수	조상규(趙祥逵)		1790.12.15.~1792.9.23.(1년 9개월)	진사
군수	김로성(金魯成)	慶州	1792.9.23.~1793.1.16.(4개월)	
군수	신석(申昔)		1793.1.16.~1793.1.26.(2개월)	안산군수
군수	이도문(李度文)	延安	1793.1.26.~1793.3.7.(2개월)	자 士郁. 생원
군수	오재두(吳載斗)		1793.3.7.~1793.9.21.(6개월)	진위현령과 相換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조윤식(曹允植)		1793.9.21.~1798.6.21.(5년)	
군수	윤재급(尹載汲)	漆原	1798.6.21.~1798.12.10.(6개월)	자 熙祖. 진사. 개차
군수	조휘진(曹翬振)	昌寧	1798.12.10.~1798.12.20.(정조 22) 10일	
군수	김상엄(金相嚴)	善山	1798.12.20.~1799.11.5.(11개월)	
군수	박종우(朴宗羽)	潘南	1799.11.5.~1800.9.11.(10개월)	자 儀甫. 생원. 파직
군수	김복순(金復淳)		1800.9.11.~1801.4.28.(7개월)	
군수	이로재(李魯在)		1801.4.28.~ ?	
군수	홍리간(洪履簡)		1804.11.2.~1807.6.22.(2년 6개월)	
군수	심응규(沈應奎)	靑松	1807.2.22.~1810.12.28.(11개월)	자 叔度. 진사. 拿處
군수	박종경(朴宗敬)		1810.12.18.~1814.12.25.(4년)	개차
군수	이집로(李集魯)	慶州	1814.12.25.~1815.10.11.(1년 10개월)	자 禮在. 진사. 파출
군수	이득양(李得養)	全州	1815.10.11.~ ?	자 聖文. 생원시. 수원출생
군수	임희계(任希季)		1821.6.30.~1822.6.17.(1년)	암행어사의 서계로 처벌
군수	윤조(尹稠)		1822.6.19.~ ?	
군수	송계백(宋啓柏)		1825.6.8.~1825.7.16.(1개월)	
군수	김삭(金鑠)		1825.7.16.~1826.6.14.(1년)	이날 兒馬을 받음 포상
군수	김형근(金鑠近)		1826.6.14.~1827.11.25.(1년 5개월)	相換
군수	김영석(金永錫)		1827.12.15.~1828.6.23(6개월)	
군수	서호순(徐灝淳)	大邱	1831.12.25.~1833.7.23.(1년 6개월)	자 明達. 兩試. 拿處
군수	서승순(徐承淳)	大邱	1833.7.24.~1835.3.25.(1년 8개월)	자 美揆. 생원
군수	이희승(李羲升)	韓山	1835.6.14.~ ?	자 讓汝. 생원
군수	이용재(李容在)	韓山	1838.6.25.~ ? 행어사의 서계로 전안성군수 이용재를 1839.6.25일에 죄를 내림.	자 景晦. 진사. 이날 被罪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정만교(鄭晩敎)	溫陽	1839.6.25.~1841.12.25.(2년 6개월)	자 成伯. 진사. 永世不忘碑 1841.12.
군수	김재성(金在成)	光山	1841.12.25.~1843.12.26.(2년)	
군수	김헌순(金獻淳)	安東	1843.12.26.~1846.7.11.(2년 5개월)	
군수	이휘재(李彙載)	珍寶	1846.7.11.~ ?	호는 雲山. 사마시. 호조참의. 1886.3. 永世不忘碑, 『운산문집』 6책이 전함.
군수	이윤우(李胤愚)	延安	1849.7.25.~1850.7.25.(1년)	
군수	송흠성(宋欽成)	恩津	1850.8.4.~1852.7.8.(2년)	蔭職 영세불망비 1851.8.
군수	홍우신(洪祐信)	風山	1852.7.9.~ ?	사마시. 좌승지. 仲助
군수	윤자옹(尹滋膺)	坡平	1854.12.25.~1857.5.16.(2년 6개월)	자 伯善. 사마시. 相換
군수	김병완(金炳阮)		1857.5.16.~1858.6.21.(1년 1개월)	改差
군수	이병용(李秉龍)	遂安	1858.6.22.~1859.12.2.(1년 6개월)	어떤 본에는 秉자가 炳자로 기록됨
군수	조병섭(趙秉燮)	楊州	1859.12.2.~1860.12.10.(1년)	자 穉弘. 진사. 개차
군수	조남순(趙南淳)		1860.12.10.~1863.12.22.(3년)	
군수	김병훈(金秉薰)	江陵	1863.12.22.~1864.11.9.(11개월)	생원. 맹산현감
군수	유승근(柳承根)	全州	1864.11.9.~1865.3.18.(4개월)	생원. 換去
군수	정기명(鄭基命)	東萊	1865.3.18.~1865.9.12.(6개월)	진사. 換去
군수	정현석(鄭顯奭)	草溪	1865.9.12.~1866.1.11.(10개월)	진사. 換去
군수	이승로(李承老)	韓山	1866.1.12.~1867.9.17.(1년 8개월)	생원. 죄를 받음
군수	정기석(鄭箕錫)	延日	1867.9.19.~1869. 회방인 정문승의 손	선정비 1869.5. 영세불망비1869.11. 표창으로 승서(陞敍)하였다.
군수	임태준(任泰準)	豐川	1871.12.8.~1872.9.1.(9개월)	영세불망비 1874.5.16. 애민선정비 1872.8.
군수	조태영(趙台永)		1873.1.13.~1873.5.10.(4개월)	遭祖父喪遞
군수	송희성(宋熙成)		1873.5.10.~1874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김병우(金炳右)	安東	1874.8.14.~1875.1.10.(5개월)	진사. 상환
군수	홍순궁(洪淳肯)	南陽	1875.1.10.~1877.12.20.(2년 11개월)	연안부사로 감. 선정비 1879. 윤3.
군수	김유현(金有鉉)		1877.12.20.~1881.	
군수	민영순(閔泳純)	驪興	1881.7.12.~1882.6.12(2년)	문과. 가선. 선정비 1883, 1886년
군수	강범수(姜凡秀)		1882.6.22.~1882.9.1.(3개월)	
군수	민영순(閔泳純)	驪興	1882.9.1.~1883.2.11.(5개월)	
군수	조성호(趙性鎬)	林川	1883.2.11.~1885.4.11.(1년 10개월)	진사. 상환
군수	이시우(李時宇)		1885.4.11.~1885.10.9.(6개월) 통정대부	상환. 통진부사로 감.
군수	심헌지(沈憲之)		1885.10.13.~1886.3.6.(7개월)	해미현감으로 감. 영세불망비 丙戌 2월
군수	현석운(玄昔運)	天寧	1886.3.6.~1887.6.11.(3개월)	개차. 선정비 1887.10. 봉상사제조
군수	이명석(李命錫)		1887.6.26.~1887.7.27.(1개월)	잡과. 하직인사
군수	성면호(成冕鎬)	昌寧	1887.10.15.~1888.6.30.(8개월)	적성 출생. 生員. 김포군수로 감.
군수	최락주(崔洛周)		1888.7.1.~1890.1.28.(1년 6개월)	가림주구로 민란이 발생하자 관찰사 조동면이 파출한 뒤에 귀양 감.
군수	조석영(趙奭永)	豊壤	1890.1.29.~1890.5.20.(4개월)	
군수	이우규(李祐珪)		1890.5.20.~1892.5.13.(2년)	영세불망비 1892.6.
군수	윤경환(尹慶煥)		1892.5.13.~1892.5.26.(13일)	개차
군수	김인성(金仁性)		1892.5.26.~1892.6.1.(4일)	개차
군수	어재홍(魚在泓)		1892.6.1.~1892.6.3.(2일)	개차
군수	김중권(金鍾權)		1892.6.3.~1892.6.10.(7일)	개차
군수	이기홍(李起泓)	全州	1892.6.10.~1892.6.21.(11일)	
군수	문순현(文順鉉)		1892.6.21.~1892.6.23.(3일)	
군수	최한조(崔瀚祖)		1892.6.23.~1892.6.25.(2일)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김익성(金益性)		1892.6.25.~1892.6.27.(2일)	
군수	곽한두(郭翰斗)	玄風	1892.6.27.~1892.6.29.(2일)	前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
군수	한철교(韓喆敎)		1892.윤6.1.~1892.윤6.7.(6일)	개차
군수	우용진(禹龍鎭)		1892.윤6.9.~1892.윤6.13.(3일)	개차
군수	홍철보(洪哲普)		1892.6.13.~1893.5.10.(11월)	

3. 대한제국기 안성군수 명단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성하영(成夏泳)	昌寧	1893.5.10.~1894.9.30.(1년 4개월)	“본군의 동학도의 두목 유구서(兪九西)와 접주 김학여(金學汝), 진천의 동학도 김금룡(金今龍) 등을 기찰하여 체포해 1894년 9월 27일에 백성들을 많이 모아 놓고 우선 처형하였다.”
군수	홍운섭(洪運燮)		1894.9.30.~1895.2.5.(5개월)	파출
군수	조영구(趙寧九)	豐壤	1895.2.5.~1895.6.18.(4개월)	문과. 면직
군수	안기중(安沂中)		1895.6.18.~1895.12.20.(6개월)	7월 8일 취임. 면직
군수	이명헌(李命憲)		1896.2.3.~1896.4.18.(3개월)	사직
군수	윤영렬(尹英烈)	海平	1896.4.18.~1899.10.(3년 6개월)	日新 戊戌(光武二年·一八九八) 영세불방비 1897.10. 각사등록
군수	남계술(南啓述)		1899.~? (광무4~?)	
군수	이기홍(李起泓)	全州	1900.6.~1900.6.	한성 출생. 1885년 무과
군수	윤영렬(尹英烈)	海平	1900.6.~1902.1.28.(1년 2개월)	日新 戊戌(光武二年·一八九八) 영세불방비 1897.10. 『각사등록』
군수	이종두(李鍾斗)		1902.1.28.~1904.4.25.(2년 2개월)	영세불방비 1905.1.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김헌순(金獻淳)	安東	1904.1.~1904.9.12.	
군수	이응중(李膺鍾)		1904.4.25.~1905.1.27.(9개월)	
군수 署理	이승옥(李承玉)		1905.3.~1905.4.28.(1개월)	陽智郡守 李承玉이 安城郡守 署理
군수	이호집(李鎬集)		1905.4.28.~1907.6.7. (1년 9개월)	
군수	김영진(金英鎭)		1907.6.15.~1907.10.3.(4개월)	內閣法制局 官報課
군수	최달빈(崔達斌)		1907.10.8.~1907.10.8.(당일)	內閣法制局 官報課
군수	이석재(李錫宰)		1907.10.~1907.10.18.(8일)	
군수	곽찬(郭燦)		1907.10.26.~1908.9.7.(1년)	선정비 1908.8.
군수	이승현(李承鉉)		1908.9.7.~1908.9.7.(당일)	안성사람
군수	김영진(金英鎭)	安東	1908.9.7.~1910.1.1..(1년 3개월)	早稻田專門學校 정치경제과 졸업
군수	최태현(崔台鉉)		1910.1.10.~1910.3.17.(2개월)	

遭母喪遞 : 모친상을 당하여 체임됨.

遭父喪遞 : 부친상을 당하여 체임됨.

遭祖父喪遞 : 조부상을 당하여 체임됨.

病 遞 : 본인의 병환으로 체임됨.

大諫改遞 : 대간의 요청으로 체임됨.

換 去 :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직이 맞바뀜.

本道改遞 : 경기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함으로서 체임됨.

體府改遞 : 관찰사의 요청으로 체임됨.

去思碑, 善政碑, 永世不忘碑, 遺愛婢 : 선정을 베푼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갈려 간 뒤에 그의 고마움을 생각하여 고을 주민들이 세운 비

移 排 : 관직을 옮겨감.

瓜滿遞 : 임기가 만료되어 체임됨.

이상의 안성군수를 지낸 인물 중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은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홍명하(洪命夏)와 영조 때 이종성(李宗城) 두 사람이 있고, 좌의정을 지낸 인물은 숙종 때 이여(李畬)와 영조 때 이복원(李福源) 등 두 사람이 있다. 그리고 명현으로는 사계 김장생 선생이 있으며, 부자가 안성군수를 지낸 인물은 권경근과 그의 아들 순창(順昌)이다. 권순창의 자는 성지(聖之)로 사계 김장생의 문인이며,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이 된 인물이다.

4. 일제강점기 안성군수 명단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김영진(金英鎭)	安東	1910.3.18. ~ ?. 두 번째 부임	창씨개명. 大川時民 早稻田專門學校 정치경제과 졸업
군수	최달빈(崔達斌)		1910. ~ 1913.	
군수	나호(羅鎬)		1914. ~ 1918.	
군수	서상준(徐相準)	大邱	1919.5.18. ~ 1922.	日本視察
군수	이기주(李起鑄)		1923. ~ 1924.12.27.	1924.12..27 휴직 동아일보
군수	홍종국(洪鍾國)		1924. ~ 1927.1.30.	1927.2.22.일자 보도 동아일보
군수	신현태(申鉉泰)		1927.1.30. ~ 1929.3.16.	중의일보
군수	최익하(崔益夏)		1930.2. ~ 1934.4.	인천 출생. 漢城師範學校 教員養成所. 고양군수로 감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진흥문(全興文)	羅州	1934.4.~1936.4.2.	개성 송도면 출생. 京城中東學校
군수	안창환(安昌煥)		1936.4.12.~1939.	안창환이 안천창환으로 창씨개명을 함.
군수	안천창환(安川昌煥)		1940.~1941.	안창환이 안천창환으로 창씨개명을 함.
군수	森山淸吾		1941.7.1.~1942.	
군수	權濬甲重		1942.~1943.	권갑중이 창씨개명. 직원록 자료

5. 광복 이후 안성군수 명단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박부양(朴富楊)		1945.10.18.~1946.7.21.	
군수	서재식(徐載植)		1946.7.21.~1947.8.30.	
군수	홍우승(洪祐崇)		1947.8.30.~1948.8.12.	천안 출신
군수	고주현(高周鉉)		1948.8.13.~1949.5.11.(9개월)	서울 출생. 경성고보 졸
군수	이교완(李敎完)		1949.5.12.~1952.4.10.(2년 11월)	안성 출생. 양정고 졸
군수	백남기(白南基)		1952.4.11.~1953.1.13.(9월)	
군수	이의종(李義鍾)		1953.1.14.~1954.8.15.(1년 7월)	
군수	김용석(金溶錫)		1954.8.16.~1956.9.20.(2년 1월)	平澤通伏里 출생. 선린상업학교 졸
군수	박태근(朴泰根)		1956.9.21.~1959.2.26.(2년 5월)	

1212 안성향교지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이종상(李鍾相)		1959.2.27.~1959.10.22.(8개월)	
군수	유인상(柳寅相)		1959.10.23.~1960.6.25.(8개월)	
군수	박상진(朴相鎭)		1960.6.26.~1960.12.19.(6개월)	
군수	홍승각(洪承珌)		1960.12.20.~1961.6.21.(6개월)	
군수	남상집(南相集)		1961.6.22.~1962.4.10.(10개월)	
군수	오건식(吳建植)		1962.4.11.~1964.10.14.(2년 6개월)	
군수	윤석범(尹錫範)		1964.10.15.~1967.12.18.(3년 2개월)	
군수	노창현(盧昌鉉)		1967.12.19.~1969.2.20.(1년 2개월)	
군수	강우혁(康宇赫)		1969.2.21.~1970.8.18.(1년 6개월)	
군수	오호선(吳好善)		1970.8.19.~1971.8.20.(1년)	
군수	이건우(李建雨)		1971.8.21.~1975.9.2.(4년)	
군수	우광선(禹光璿)		1975.9.3.~1976.8.4.(11개월)	
군수	윤병하(尹秉夏)		1976.8.5.~1977.2.4.(6개월)	
군수	이호선(李浩善)		1977.2.5.~1979.5.20.(2년 3개월)	
군수	이재원(李載元)		1979.5.30.~1980.5.21.(1년)	
군수	조건호(趙建浩)		1980.5.22.~1981.5.30.(1년)	
군수	최순식(崔順植)		1981.7.6.~1983.4.10.(1년 9개월)	
군수	백종민(白種旻)		1983.4.11.~1985.3.10.(1년 11개월)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군수	남기명(南基明)		1985.3.11.~1986.3.7.(1년)	
군수	박창곤(朴昌坤)		1986.3.8.~1986.12.23.(9개월)	
군수	조원극(趙源克)		1986.12.24.~1988.3.31.(1년 3월)	
군수	이상건(李相乾)		1988.4.1.~1988.12.31.(9월)	
군수	조성헌(趙成憲)		1989.1.1.~1991.7.15.(2년 6월)	
군수	윤봉수(尹鳳洙)		1991.7.14.~1991.7.15.(1년)	
군수	김규완(金圭完)		1992.7.16.~1995.6.30.(2년 11월)	
군수	이종건(李鍾健)		1995.7.1.~1998.3.31.(2년 9월)	

6. 안성시의 관선 및 민선시장 명단

직명	성명	본관	재임기간	비고
관선시장	이종건(李鍾健)		1998.4.1.~1998.6.30.(2개월)	4월 1일, 시로 승격
1대 민선시장	이종건(李鍾健)		1998.7.1.~1999.12..9.	초대 민선시장으로 당선. 재선거 관계로 시장 공백발생
2대 민선시장	이동희(李東熙)	全州	1999.12.10.~2002.6.30.	보궐선거에서 당선
3대 민선시장	이동희(李東熙)		2002.7.1.~2006.6.30.	3대 민선시장으로 당선
4대 민선시장	이동희(李東熙)		2006.7.1.~현재	4대 민선시장으로 당선